

2009 年度

イムゼミ集

どのように学ぶかを学ぶのがすべてである

(ジョン・ネスビッツ)

<目次>

I. スタディツアー

コーヒーショップ	小野華奈	p. 4
チムジルバン	垣下友希	p. 16
空港	畑野友里恵	p. 27
キャンパス	佐志原彩華	p. 36
トイレ	杉野由可子	p. 47
コンビニ	原田有紀子	p. 61
地下鉄	森田幸枝	p. 76

II. 専門演習

【翻訳】

『마음에 행복을 주는 이야기』	
「사랑이 아름다운 건」	p. 91
「용기를 주는 사람이 최고다」	p. 93
「남자만이 진실한 사랑을 알고 있다」	p. 95
「가끔 낮잠을 즐기자」	p. 97
「작은 친절이 큰 결과를 낳는다」	p. 99
「후회하지 않는 인생」	p. 101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p. 103

【慣用句】

「한글」 検定公式ガイド 合格도우미	p. 105
--------------------	--------

【韓国ルポ】

2009 年度慶南大学交換留学生の韓国ルポ 藤村菜美	p. 112
----------------------------	--------

【発想の大転換】	p. 118
----------	--------

III. YPUドリームアドベンチャープロジェクト

p.127

IV. 卒業論文

「日韓両言語の感謝表現に関する対象研究」 小野華奈	
「恋愛表現からみる日韓コミュニケーション・スタイルの違いについて」 垣下友希	
「韓国語における同義語比較」 畑野友里恵	

V. あとがき

I. スタディツアー

「カルチュラル・スタディーズの実践：

韓国人の日常的な生活空間で韓国文化を発見する」

2009年8月17日～20日

韓国語文献

김찬호(2007) 『문화발견-KTX에서 찜질방까지』 문학과지성사

커피숍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곳

유럽인들이 커피에 중독되기 전까지 유럽인들은 커피에 대해 경멸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들이 경멸하는 미개국의 음료라고 본 것이다. 예컨대, 1610 년 터키를 여행했던 영국인 조지 샌디스는 커피에 대해 ‘땃국물처럼 시커먼’이라는 표현을 썼다.(……) 조선에 들어온 커피는 미개국이 아니라 개명국의 상징이었다.(……) 그건 오히려, 보통 사람들이 군집하기 어려운 전통 한병의 보약 색깔이었다.

-강준만·오두진, 『고종 스타벅스에 가다』 중에서

현대 서구 문명은 이슬람 문화에게 큰 빚을 지고 있다. 의학·수학·천문학·지리학·향해술 등에서만이 아니다. 일상생활에서 필수품이 되버린 커피도 이슬람 문화권을 통해 널리 보급된 음료이다. ‘커피’나 ‘카페’라는 말도 ‘까흐와’라는 아랍어에서 유래하였다. 원래 에티오피아 지역에서는 오래전부터 커피 원두 가루를 민간요법의 처방에 사용하고 있었는데, 15 세기 중반 예멘의 어느 수도사가 그 지방을 여행하다가 열병으로 앓아누웠을 때 원주민들이 그것으로 치료를 해줌으로써 이슬람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다고 한다. 수도사들이 설교를 듣거나 명상을 할때 졸음을 쫓기 위해 즐겨마시던 커피는 메카에서 판매되기 시작했고, 성지순례자들 의해 지역 일대로 퍼져나갔다. 음주를 금하는 이슬람 세계에서 커피는 술을 대신한 음료였고, 당시 중동의 도시들에 성행한 커피점들은 선술집과 같은 사교 장소가 되었다.

유럽에서 커피가 널리 보급되기까지 유럽인들은 커피를 부정적으로 생학하고 있었다. 그러나 오스트리아 빈의 커피점을 효시로 유럽에도 커피가 급속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유럽에서도 커피점은 중요한 사교 장소로 정착해갔다. 17 세기 영국에서는 커피점을 ‘penny university’라고 불렀다. 커피 값만 치르면 신문과 잡지를 볼 수 있었고, 벽에 붙은 게시판에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정치에서 문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벌일 수 있었다는 점이다. 그래서 커피점은 사회 경제적인 변화의 중요한 모태가 되었다. 영국만이 아니었다. 19 세기 중엽 프랑스 파리에는 4 만 개가 넘는 카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노동자들은 사교와 문화 창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그곳은 지식인과 예술인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다양한 문화를 발흥시킨 거점이 되었다.

한국에서는 어떠했을까. 앞에서 인용한 책은 지난 100 여 년 동안 한국에서 커피를 둘러싸고 벌어진 사회의 변화를 소상하게 추적하고 있다. 100 여 년 전 한국인들은 수많은 바래품들과 함께 도입된 커피를 서양문명에 대한 경와삼으로 대했다. 우연히 한약과 비슷한 색깔을 띤 것도 기이한 안연아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커피와 함께 출현한 것이 다병이었다. 낯선 사람들 사이의 만남이 빈번해지는 근대 도시에서, 집

바깥에서 차를 마시는 공간은 자연스럽게 형성되기 마련이다. 그러나 다방의 본격적인 변성은 해방 이후라고 저자들은 증언한다. 외국에서 독립 운동을 하다가 돌아온 지사들, 경찰에 쫓겨 다니던 사람들, 염세주의에 갇혀 집 안에 처박혀 있던 이들이 한꺼번에 거리로 쏟아져 나오면서 그들을 위한 만남의 장소가 더욱 필요해졌다는 것이다. 명동, 충무로, 소공동, 종로 등 서울의 변화가가 그 중심이었다.

해방 이후 다방은 지식인 실업자(룸펜)들의 아지트이면서 새로운 문화가 움트는 산실이었다. 1950~60 년대에 명동 일대의 몇몇 다방들에는 많은 문인들이 모여들어 한국 문학사에서 중요한 만남과 토론을 이어갔다. 충무로가 영화 산업의 1 반지가 된 것도 전화가 귀했던 시절 영화인들이 그 일대의 다방들을 사무실로 사용한 데서 연유한다. 당시의 다방에서는 마담이라 불리는 여주인이 단골손님들을 일일이 맞이하고 대화의 상대도 되어주는 역할을 했다. 1970 년대 대학을 중심으로 청년 문화가 발흥할 무렵 다방은 음악 감상실과 함께 세련된 대중문화를 향유하는 공간이었다. 다방 한 쪽에 뮤직 박스가 있고, 그 안에서 DJ 가 감미로운 목소리로 음악과 사연을 소개하던 모습은 50 대 이상의 기성세대에게 아련한 추억이다.

1980 년대에 접어들어 대학가에서는 다방이 하나 둘씩 ‘커피숍’ 으로 대체되었다. 이제 다방은 대도시의 변두리나 지방의 소도시나 농어촌에 가야만 볼 수 있는데,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음악이 흐르지 않고 텔레비전이 커져 있다는 것, 그리고 나이드신 아저씨들이 주된 손님들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마담이 단골 고객을 직접 맞이하면서 옆에 앉아 차를 함께 마심으로써 매상을 올리는 다방도 있다. 커피숍에 다방이 밀려나게 되면서 이른바 티켓 다방 이 빠르게 확산되었다. 이제 ‘다방’ 하면 ‘아가씨’ 가 연상될 정도다. 어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는 ‘다방’ 을 검색하면 19 세 미만은 접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도라는 전통과 사뭇 대조를 이루는 다문화의 현실이다.

다른 한편 커피숍은 젊은이들의 공간으로 꾸준히 변용되어 왔다. 1980 년대에 꾸준히 늘어난 커피숍은 다방보다 세련된 인테리어와 보다 안락한 의자 등으로 손님들을 끌어들이는다. 폭신한 고파에 몸을 맡기고 한없이 수다를 떨 수 있는 공간이 한국처럼 도시 곳곳에 널려 있는 나라도 많지 않다. 고급스러운 레스토랑과 상당 부분 흡사한 그 공간들은 보다 서구적이고 귀족적인 디자인으로 젊은이들의 감각에 호소한다. 한편 커피숍과 전혀 다른 성격을 띠고 파격적으로 등장한 것이 ‘록카페’ 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1990 년대 초에 서울의 신촌 위시한 일부 지역에서 반성했던 록카페는 성인의 출입을 금지하고 ‘물이 좋은’ 젊은이끼리만 즐기는 배타적 유흥 공간이었다. 디스코텍이나 나이트클럽보다 훨씬 좁은 그 카페 안에 춤출 수 있는 공간이 있어 젊은이들이 마음껏 몸을 흔들 수 있었다. 록카페는 몇 년 지나지 않아 자취를 감추었지만, 그 문화의 에너지는 홍대 앞의 크립들로 옮겨갔다.

최근 커피숍들은 소비자의 취향에 따라 오랜 전통의 북카페와 사주 카페이외에도, 갤러리형 카페, 족욕 카페, 산소 카페, 마시지 카페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누구와

함께 가느냐에 따라 카페 선택이 달라지는데 연인끼리는 다소 후미진 구석이 있고 테이블끼리 멀리 떨어져 있으며 소파가 있는 곳(나란히 앉아 오래 있어야 하니까) 으로 주로 간다. 그에 비해 동성 친구들끼리는 좀더 환하고 개방적이고 모던한 공간을 선호하고, 여자들끼리는 남성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운 여성 전용 카페를 찾기도 한다.

지금 커피숍의 대세를 이루는 것은 커피 전문 브랜드들이다. 이 회사들은 ‘전문점’답게 다양한 종류의 커피맛을 개발하여 마니아들을 사로잡았다. 매체 광고 대신 입소문을 내고 도시 중심가를 선점하는 전략으로 브랜드 인지도에서 맥도날드를 제친 스타벅스(‘별 다방’이라고도 불린다)가 한국에서 가장 먼저 생긴 곳은 이화여대 앞이었다. 유행에 가장 민감한 장소를 선택하여 여대생들을 겨냥한 마케팅 전략은 나름대로 성공을 거두었고 스타벅스의 성공으로 비슷한 형태의 커피숍들이 속속 출현하였다. 커피빈(‘콩 다방’이라는 별명이 있다), 파수쿠찌, 로즈버드, 할리스……커피 전문점이라고 하지만 거기에서는 커피 말고도 주스나 쿠키 등 다양한 메뉴를 구비하고 있다. 그리고 한결같이 손님이 직접 음식을 나르는 셀프 서비스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그래서 이런 곳에서는 나이 어린 사람들이 커피 값을 내는 경우도 많다. 일반 찻집이나 음식점에서는 선불인 경우 종업원이 받아가고, 아니면 가게를 나갈 때 계산하기 때문에 선배나 상사들이 지불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런데 커피 전문점에서는 상황이 달라진다. 연장자에게 ‘심부름’을 시키기가 어렵고, 그렇다고 돈을 받아가기도 뭐하기 때문에 결국 후배나 부하 직원들이 음료를 주문하고 배달하면서 지불까지 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이다.

또 한 가지, 브랜드 커피숍들이 중요한 공통점은 테이크 아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바야흐로 ‘모바일 커피’의 시대다. 커피를 들고 마시면서 걸어가는 것이 이제 하나의 패션으로 정착하고 있다. 특히 젊은 여성들의 경우 멋진 옷을 입고 나들이하면서 자판기 커피를 들고 다니면 스타일을 구긴다. 그 옷차림에는 브랜드 커피숍의 마크가 선명하게 찍혀 있는 큼직한 종이컵이 걸맞은 것이다. 그러나 길거리를 다니면서 음식을 먹는 것은 아직도 불편하거나 생소 모양이다. 아니면 우리에게도 커피 그 자체보다도 누군가를 만나 이야기하는 것이 더 중요한 듯하다. 그래서 그럴까, 스타벅스의 경우 유독 한국에서만은 매장의 넓이를 40 평 이상으로 고집하고 있다.

그런데 커피숍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이들도 꽤 많다. 하루 종일 책을 보거나 컴퓨터 작업을 하는 손님도 많다. 예전 같으면 다방에 혼자서 우두커니 앉아 있으면 웬지 청승맞아 보였지만, 지금은 오히려 세련되어 보이기도 한다. 음식점에서 혼자 밥을 먹는 것은 처량해 보이지만, 커피숍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독서에 몰두하는 모습은 우아하나도 여겨진다. 집이나 독서실보다 이곳이 좋은 점은 혼자만의 세계에 있으면서도 타인과 함께 공존하면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멋진 인테리어 속에서 유유자적하게 커피와 음식을 음미하고 고급 케이크를 먹는 즐거움은 디지털 카메라에 담겨 미니 홈페이지 종종 올라간다. 커피숍은 자신의 산뜻한 이미지를 연출해보는 세트장처럼 여겨지는

듯하다.

혼자 차를 마시는 사람들은 대개 창가에 자리를 잡는다. 창가에는 아예 바깥을 정면으로 볼 수 있도록 테이블이 창문과 나란히 배치되어 있고, 일인용 의자들이 하나씩 놓여 있다. 바로 이 점이 다방과 커피숍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다방에서는 바깥을 보기가 어렵다. 특히 요즘에는 다방이 대개 지하에 자리 잡고 있다. 반면 커피숍에서는 카다란 창을 통해 도시의 못 풍경을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다. 사람들은 행인들의 모습이나 차량의 행렬을 바라보면서 이런저런 공상을 따라다닌다. 그러나 그것은 커피숍 안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흠쳐보기만은 아니다. 바쁜 걸음으로 지나가는 사람들도 창가에 앉아 있는 손님들은 힐끗 쳐다보게 될 때가 있다. 특히 2,3 층에 앉아 있는 손님들은 앉아서 이야기하는 모습 전체가 그대로 외부에 노출된다.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의 풍경이 커피 전문점의 광고판이 되어주는 셈이다.

헤밍웨이는 파리의 카페를 무척 사랑했던 작가로 유명하다. 그는 몇몇 단골 카페에서 많은 시간을 혼자 보내면서 글을 쓰고 세상을 구경했다. 그에 대한 소감은 소설 「파리는 축제다」에 다음과 같이 잘 나타나 있다. “태양이 어지러운 거리를 비추거나 황금의 먼지처럼 황혼이 따뜻한 대지 속으로 밀려들어올 때, 그리고 밤이 찾아와 수백만 개의 불빛들이 세상을 대낮처럼 밝혀줄 때면, 나는 어김없이 카페의 테라스에서 커피를 앞에 놓고 멍청히 앉아 있다. 시간을 잊은 채 생각에 잠겨 있다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내 앞을 받아들이면서 날마다 큰 길을 끊임없이 지나다니는 각양각색의 군중들을 사멸하고 있다. 모든 인생의 모습들이 거기에 총망라되어 있다. 커피 한 잔 값으로 당신은 그 모든 것을 볼 수 있으며 자신을 위해 천 가지 이야기도 풀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도 오늘 한번 커피숍에서 작가가 되어보자. 시인의 언어로 도시에 말을 걸어보자.

(翻訳)

一人でいても寂しくない所

ヨーロッパ人たちがコーヒーにはまる前まで、ヨーロッパ人たちはコーヒーに輕蔑的な態度をとった。輕蔑する未開国の飲み物だと見たからだ。例えば、1610年ターキーを旅行したイギリス人ジョージ・センデイスはコーヒーについて、‘汚水のように黒い’と表現した。...朝鮮に入ってきたコーヒーは、未開国ではなく開明国の象徴であった。...それはかえって、普通の人たちが手の届かない伝統の漢方の強壯剤の色だった。

강준만・오두진 『고종스타벅스へ行く』より

現代、西欧文明はイスラム文化に大きな影響を受けている。医学・数学・天文学・地理学・航海術などだけではない。日常生活で必需品となっているコーヒーもイスラム文化圏を通じ広がり普及した飲み物だ。‘コーヒー’や‘カフェ’という言葉も、‘カプワ’というアラブ語から由来する。もともとエチオピア地域では、昔からワンダーコーヒー豆を民間療法の処方に使用していたが、15 世紀中盤イエメンのある修道者がその地方を旅行し、日射病で寝込んだ時、原住民たちがそれで治療をしたためイスラム世界に知られるようになった。修道者たちが説教を聞き、瞑想をする時、眠気を覚ますために、たしなんだコーヒーは、メカで売られるようになり聖地巡礼者たちにより、中東地域の一帯に広がっていった。飲酒を禁止するイスラム世界でコーヒーはお酒に代わる飲み物であり、当時中東の都市に盛行するコーヒー店は立ち飲み屋のような、社交場となった。

ヨーロッパでコーヒーが広がり普及するまで、ヨーロッパ人たちはコーヒーを否定的に考えていた。しかしオーストリア、ビーンのコーヒー店を皮切りにヨーロッパでもコーヒーが急速に広がっていった。17 世紀イギリスではコーヒーを‘penny university’と呼んだ。コーヒーの値段だけ支払えば、新聞と雑誌を見ることができ、壁に張ってある掲示板でたくさん情報を得ることができるからである。さらに重要なことは、そこで多様な人々が政治に文学に、時間になるまでいろんなテーマについて討論をすることができたのだ。だからコーヒー店は社会の経済的な変化の重要な母体となった。イギリスではなかった。19 世紀中東フランスパリでは 4 万件あまりのカフェがあったが、ここで労働者たちは社交と文化創造の機会を得ることができた。また、知識人と芸術家たちがネットワークを形成しながら多様な文化を勃興する拠点となった。

韓国ではどうだっただろうか。인용환の本は 100 年前くらいから韓国でコーヒーを取り囲み広がる社会の変化を詳しく追跡してきた。100 年余りも前、韓国人たちは数多くの舶来品と一緒に導入したコーヒーを西洋文明に対し畏敬心でみた。偶然に薬と同じ色をしたことも不思議な縁だと言えるだろう。コーヒーと一緒に出現したのが喫茶店であった。若い人たちの間の出会いが頻繁になっていくのは近代都市で、家の外でお茶をする空間は自然に形成するものだ。しかし、喫茶店の本格的な繁盛は解放以後だと、著者たちは証言する。外国で独立運動をし、帰ってきた志士たちが警察に追われている人たち、ペシズムに閉じ込められ家の中に閉じこもっていた人たちが、一気に道へあふれ出て、その人たちの出会いの場所が必要になってきたことだろう。ミョンドン・チュンムロ・ソゴンドン・チュンロなどソウルの繁華街がその中心であった。

解放後の喫茶店は、知識人、実業家たちのたまり場でありながら新しい文化が芽開くところであった。1950-60 年代にミョンドン一帯の喫茶店では文人たちが集まり、韓国文学者に重要な出会いと討論を続けていた。チュンムロが映画産業の 1 番地となったことも、電

話が珍しかったとき、映画人たちがその一帯を事務室として使用したことがきっかけであった。当時の喫茶店では、マダムと呼ばれる女主人が、常連客と向かい合って会話するのが役割であった。1970年代、大学を中心に青年文化が起こりそうなころ、喫茶店は音楽と鑑賞室とともに洗練された大衆文化を共有する空間となった。喫茶店の一角に、ミュージックボックスがありその中にDJが甘い声で音楽とサ연을紹介した姿は50代以上の既成時代のかすかな思い出。

1980年代に入ると大学では喫茶店が一つ二つコーヒーショップと変わった。今、喫茶店は大都市の町外れや地方の小都市や農漁村に行けば見られるが、いくつかの共通点がある。音楽を流さずテレビがついていること、そして年を召したおじさんたちが主なお客ということだ。そしてマダムが常連客を直接招きながら横に座ってお茶をし、お金を稼ぐ喫茶店もある。コーヒーショップの喫茶店がそっちのけにされながら、いわゆるチケット喫茶店が急激に広がっていった。今喫茶店といえば、当時のおじさんが年をとったくらいだ。あるインターネットポータルサイトでは、喫茶店を探したら19歳未満は接近できないようにしてある。茶道という伝統といかにも対照である茶文化の現実だ。

もう一方コーヒーショップは若い人たちの間で、少しずつ変容してきた。1980年代に粘り強く伸びたコーヒーショップは喫茶店より洗練されたインテリアとかよりは、安らげる椅子などで客を引き入れた。ふかふかしているソファに体を預け、限りなくおしゃべりができる空間が韓国のように都市あちこちに散らばっている国も多くない。高級なレストランと相当するその空間は、西欧的で貴族的なデザインで若い人たちの感覚に訴えた。一方、コーヒーショップと全然違う性格を持っていて、破壊的に登場したのがロックカフェだ。現在は存在するが、反映したロックカフェは成人の出入りを禁止し、イケてる若者のみ楽しめる排他的、遊び場所となった。ディスコテクやナイトクラブより確実に小さいそのカフェの中でダンスできる空間があり、若者たちが心行くまで体を動かした。ロックカフェは数年で、痕跡を消したが、その文化のエネルギーはホンデ前のクラブに移動した。最近のコーヒーショップは、消費者の趣向に合わせて、昔からあるブックカフェと占いかフェ以外にもギャラリー系カフェ、足浴カフェ、酸素カフェ、マッサージカフェなど多様化している。誰と一緒にいくかによってカフェ選択が変わってくる。恋人同士は多少奥の隅の空間があり、テーブル同士離れていながらソファがあるところ（並んですわり長い間いなければならないから）へ主に行く。それ以外、同性の友達同士は、もう少し明るく開放的でモダンな空間を好み、女子同士は男性たちの視線から自由な女性専用カフェを探すこともある。

今や、コーヒーショップの大勢を占めるのは、コーヒー専門ブランドだ。これらの会社は専門店らしく多様な種類のコーヒーの味を開発し、マニアたちをひきつけた。媒体広告

の代わりに入所門を出し都市の中心街を先占する戦略でブランドの認知度からマクドナルドを除きスターバックス（星喫茶ともいう）が韓国で最初に出来た場所は、梨花女大の前だった。流行に最も敏感な場所を選択し女大生たちを狙ったマーケティング戦略は、次第に成功を収めスターバックスの成功と似た形のコーヒーショップがぞくぞく出現した。コーヒービーン（豆喫茶ともいう別名もある）パスクチ、ローズボード、ハリス...コーヒー専門店というがここでは、コーヒーではなくジュースやクッキーなど多様なメニューがある。そして終始一貫、客が直接料理を選べるセルフサービスシステムで運営される。そしてこれらのところでは、年の若い人たちがコーヒー代を払う場合も多い。一般の喫茶店や飲食店では、先払いの場合、従業員が取りに行き、でなければ店を出る時支払うため、先輩や上司が支払うことが自然だ。しかしコーヒー専門店では、状況が変わってくる。年長者にメニューを頼みに行ってもらうのが難しく、このくらいのお金をもらうのもなんだから、結局後輩や部下の職員たちが飲み物を注文し、受け取り、支払うまでする場合が多くなっている。

あともう一つ、ブランドコーヒーショップの重要な共通点はテイクアウトが可能なことだ。今や‘モバイルカフェ’の時代だ。コーヒーを持ち歩きながら飲むことは、今や一つのファッションと定着している。特に若い女性たちの場合、きれいな服を着て外出し自販機のコーヒーを持ち歩けばみっともない。その服には、ブランドコーヒーショップのマークが、鮮明に書いてある大きな紙コップが似合うのだ。しかし道を歩きながら、食べ飲むことは、今でも不便であり見慣れないものだ。そうでなければ、私にはコーヒーそのものよりも、誰かと出会い話すことがもっと重要ということだ。だからそうなのか、スターバックスの場合、唯一韓国だけはお店の広さが 40 坪以上ある。しかしコーヒーショップに座っている人たちの姿をよく見てみると、1 人で時間を過ごす人がとても多い。1 日中、本を読んだりコンピュータをする客も多い。ずっと前であれば、喫茶店で 1 人ぼんやりと座っていたら何か哀れなように見えたが、今はかえって垢抜けているように見える気もする。飲食店で 1 人ご飯を食べることは、さびしく見えるが、コーヒーショップで 1 杯お茶して読書に没頭する姿は、優雅に見える。家や図書室よりこの場所がいい点は、一人だけの世界にいらながらも他人と共存しながら、つながっているという気持ちを持つことができることではないだろうか。おしゃれなインテリアの中で悠々自適にコーヒーと音楽を吟味し高級なケーキを食べる楽しみは、デジタルカメラへ残しミニホームページへたまに載せる。コーヒーショップは自身のさわやかなイメージを演出してみるセット場のように感じられる。

一人でお茶をする人たちは、ほとんど窓際の席に座る。窓際にははじめから、外側を正面として見られるよう、テーブルが窓と並び配置されており、1 人用の椅子が、ひとつずつ置いてある。まさにこの点が喫茶店とコーヒーショップの最も根本的な違いの一つと言える。喫茶店では外側を見るのが難しい。特に、最近は喫茶店がほとんど地下に位置する

ようになった。反面、コーヒーショップには大きな窓を通し、都市の多くの風景を簡単に鑑賞することができる。人々は、行員の姿や車の行列を見ながらああこうだと空想する。しかし、それはコーヒーショップの中に座っている人たちだけではない。通行人たちも窓側に座っている客をちらちらと見る時がある。特に 2.3 階に座っている客が座って話をしていく姿全てが、そのまま外部に露出される。余裕ある時間を過ごす人々の風景がコーヒー専門店の広告になるわけだ。ヘミングウェイは、パリのカフェをとて愛していた作家で有名だ。それは、いくつか行きつけのカフェでたくさんの時間を一人で過ごしなが文を書き、世界を見た。それについて、所存する小説「パリは祭りだ」に次のように表されている。‘太陽が慌ただしい道を映しだし黄金のちりのように夕暮れが暖かく台地の中を押し寄せる時、そして夜がやって来て数百万個の炎たちが世界を、昼間のように明るくする時、私は間違いなくカフェのテラスでコーヒーを前にぼんやりと座っている。時間を忘れて感慨に浸り、コーヒーを一口飲み、私の前に広がる世界を見してみる。パリの門は開けっ放しで全ての人々を受け入れながら日ごとに大きな道を絶え間なく通りすぎる様々な群集を見ている。全ての人生の姿がここに網羅されている。コーヒー一杯の値段で、あなたのその全てのことを見ることが出来、自身のために千種類の話も解き明かすことが出来るだろう。’ 私たちも今日一日コーヒーショップで作家になってみよう。詩人のことばで都市にことばをかけてみよう。

空間から見るコーヒーショップ

小野華奈

それでは、コーヒーは日本にはいつ頃伝わってきたのだろうか。一説には、足利時代にキリスト教の布教のためにやってきたポルトガル人やスペイン人が伝えたといわれているが、現在有力な説としては、江戸時代に入ってから長崎出島にオランダの商人が持ち込んだとされている。

高井によると、日本にコーヒーが伝来したのは江戸時代徳川綱吉の頃で、1641年長崎の出島において、オランダ人に振舞われたのが最初であると考えられている。大田南畝の『瓊浦又綴』には「焦げ臭くして味ふるに堪えず」とあり、日本人の味覚には合わず、受け入れられなかったことが記されている。その後、黒船来航と共に西洋文化が流入し、長崎、函館、横浜などの開港地を中心として西洋料理店が開店するようになり、そのメニューの一部としてコーヒーが一般庶民の目に触れるようになった。1866年に輸入関税が決定され、正式にコーヒーが輸入された1877年頃になるとコーヒーを商品として取り扱う地盤が出来上がり、現代に見られるような本格的な喫茶店としての形態を初めて持ったのは1888年に開店した「可否茶館」である。勤めていた外務省を辞めた鄭永慶が現在の台東区上野に開店した。現代の複合喫茶の様相で、トランプやビリヤードなどの娯楽品、国内外の新聞や書籍、化粧室やシャワー室などが備えられていた。鄭は「コーヒーを飲みながら知識を吸収し、文化交流をする場」として広めようとしたが経営は振るわず、1892年にその幕を下ろし、鄭はアメリカ合衆国に去った。それからしばらく経った1911年、画家の松山省三、平岡権八郎、小山内薫がパリのカフェをイメージして4月に開店した「カフェー・プランタン」をはじめ、水野龍の「カフェー・パウリスタ」、北村重威の「カフェー・ライオン」など、銀座にカフェと呼ばれる店が相次いで誕生する。それぞれの店は独自色を打ち出し、カフェー・プランタンは「初の会員制カフェ」として、カフェー・パウリスタは「初の庶民喫茶店」「初のチェーン店舗型喫茶店」として、カフェー・ライオンは「初のメイド喫茶」として人気を博した。また、この頃登場した暖めた牛乳を提供する「ミルクホール」も学生などに人気を博し、その版図を広げた。

大正から昭和にかけて「飲食を提供しつつサービスを主体にした店」と、「あくまでコーヒーや軽食を主体とした店」への分化が進む。前者はそのまま「カフェ」または「特殊喫茶」「特殊飲食店」としてバーやキャバレーのような形で次第に風俗的意味合いを持つようになった。1929年に「<カフェ><バー>等取締要項」が、1933年に「特殊飲食店取締規則」が出され、規制の対象となった。一方後者は「純喫茶」「喫茶店」と呼称されるようになり、やがて外来する店舗も含んだ「カフェ」として発展していくこととなった。1933年当時は特殊飲食店が喫茶店の二倍を数えたものの、一般庶民にコーヒーが浸透しはじめ、1935年には東京だけで10,000店舗を数えるなど順調に増え続け、サービスや提供形態の多様化が進んだ。多様化は地域の特性を育み、例えば銀座は高級感を売りに出した店舗が特徴として知られるようになり、神田は容姿端麗な女性給仕を揃えた学生を対象としたサ

ービスを展開、神保町は落ち着いた雰囲気の中で本を読みながら過ごすスタイルが定着した。しかし、日中戦争が勃発し、戦時体制が敷かれるようになると、コーヒーは贅沢品に指定され、1938年には輸入制限が始まった。第二次世界大戦が始まると完全に輸入が禁止され、供給源を断たれた喫茶店は次々と閉店していった。そのような中でも大豆や百合根を原料とした代用コーヒーを用いて細々と経営を続ける店も見られた

戦後の荒廃した日本で喫茶店が復活を見るのは1947年ごろからで、戦時下の代用コーヒーや米軍の放出品を用いたGIコーヒーなどが提供された。一般にコーヒーが再び広まるのは、輸入が再開された1950年以降となる。こうした輸入豆はその需要のほとんどが喫茶店であったと見られる。

世の中が平静を取り戻すにつれ、そのときの世情を取り込んだ様々な喫茶店が興亡した。1960年ごろは個人経営の店が主流となり、店主のこだわりが店の個性として色濃く繁栄された喫茶店が人気を獲得した。特に「音楽系喫茶」と呼ばれる喫茶店は、シャンソン喫茶、音楽演奏がサービスの主となったジャズ喫茶、歌声喫茶、ロック喫茶、後年のディスコやクラブなどに多大な影響を与えたロカビリー喫茶、ゴーゴー喫茶など多数の業態の店が誕生している。LPレコードなど、金銭的にも個人レベルでは入手が困難であった時代であり、喫茶店にはこうした音楽鑑賞を趣味とした庶民たちへの場所貸しといった要素が強く出ていた。そのため、住宅環境の改善や音楽配信媒体の低価格化が進むにつれ、こうした業態の喫茶店の需要は無くなっていった。

1970年ごろに名古屋で漫画喫茶という業態の喫茶店が誕生する。雑誌やコミックを多数取り揃え、自由に読ませる形式が広く受け入れられ、ブームを巻き起こした。当初、漫画喫茶はフルサービスの店が主流で、入退店時刻を店側が管理し、規定時間を超えた場合はもう1品注文して貰う、といった方式が一般的であった。さらに1995年以降のインターネットの普及に伴い、こうした店は漫画の他、インターネットのサービスも提供するようになる。全国にチェーン展開されるとパーソナル化が進行し、現在に見られる簡易な間仕切りが施されたセルフサービスタイプの店舗が一般化した。

1970年代以降は、コーヒーを飲むという行為がより大勢の人に浸透し、「珈琲館」や「カフェ・ド・コロラド」といった珈琲専門店も登場した。やがて時代の流れが速くなり、「喫茶店でのんびり」といった行為が見られなくなると、細切れに空いた時間を活用したいという客のニーズに合わせた従来の喫茶店に変わる、セルフサービスのカフェが主流となった。そうした文化概念を日本で確立させたのは鳥羽博道が1962年に設立した「ドトールコーヒー」であったが、そのサービスを定着させたのは1996年に日本へ進出してきた「スターバックス」であると言われている。スターバックスは、日本に上陸して僅か十年で業界最大手であったドトールコーヒーの売り上げを上回り、一躍業界最大手に躍り出たことでも知られる。

日本では、若者および女性向けに内装や食器、雰囲気などを重視した店舗を中心に「カフェ」と呼ばれることも多くなってきた。また、見晴らしの良いテラスにて「カフェテラ

ス」を行っているところもある。ヨーロッパ風の店をヨーロッパ・カフェ、イタリア風の店をイタリアン・カフェと呼ぶ事もある。

2002 年には、コーヒー豆の年間輸入量が 40 万トンを突破し世界第 3 位のコーヒー輸入国となった。しかしその一方で、近年の喫茶店業界全体を見ると後退の一途であり、1981 年には 154,630 店を数えた喫茶店は、2006 年には 81,042 店と約半減している。

韓国と、日本のコーヒーショップについて考える前に、現在、韓国でコーヒーショップといえば、喫茶店（カフェ）から本格的なコーヒー専門店までをさす。日本ではコーヒーショップといえば、コーヒー専門店の意味することが多く、喫茶店（カフェ）とコーヒーショップは、イメージが異なってくる。以後、韓国のコーヒーショップ、日本のカフェ共に、カフェと呼ぶことにする。

韓国に来て、すごく感じたのはカフェがとても多い事であった。留学中、何件も行ったが、どのカフェもいるだけで楽しめ落ち着けつけるそんな場所であった。ちなみに日本も、カフェがあり、こちらにも人気がある。しかし韓国とは少し違うように思う。日本のカフェは、落ち着ける場所ではあるが、それよりもおしゃれなインテリアや内観、外観そして豊富なメニューをそろえてあり、行くと違った意味で幸せになれる空間である。各国共にいろんなカフェがあるから、カフェめぐりをして比べてみるのもとても面白いだろう。

また、内観として、日本は席など個別になっていないが、韓国では個室のようになっていて、カーテンを下ろせば自分達だけの空間になる。早く帰ってくださいと言われていく分に全くならず、気付けば 2〜3 時間たっていることもある。居心地の良さがとてもいい。外観は、日本はオープンテラスのあるカフェが多いが、韓国はビルの一部にあることが多い。だから、こんなところにカフェがあったのと感じることがある。値段としては、日本も韓国もさほど変わらないが、同じ値段からいったら、人それぞれの好みもあるが日本のほうが美味しいと思う。しかし、韓国では当たり前のようにお菓子が付いてきて、おかわり自由。それがとても嬉しい。

日本のカフェは、外観も内観も悪くはないが、重要視しているのは、コーヒーの味やメニューで、韓国は、コーヒーの味が悪くはないが、重要視しているのは、カフェの内観や雰囲気だと思う。

空間という視点で見た時に、学生の私たちが居心地いいと思うのはやはり、韓国のカフェであろう。年代が、変わってくると日本のカフェのほうで居心地がよいかもしれない。それは、韓国ではカフェにおばさんがいる光景はあまり見ないが、日本ではよく見かける。カフェという空間がターゲットにしている客層が、内観外観で伝わってくる気がする。日本では、どちらかといえばカフェは女性が幸せを感じる場所であるだろう。そのため日本のカフェといえば女性同士で行くことが多く、恋人同士よりも断然女性同士の客が目につく。若い年代から、主婦など広い層の年代が集まっている。一方韓国では、恋人同士の客が目につく。そして客のほとんどが学生くらいの若い年代である。この違いは、どこか

ら来るのであろうか。韓国留学時、韓国は日本より恋人向けのお店や物が多いなと感じることがあった。その一つにカフェがあげられる。カップル席と呼ばれる、カップル専用とまではいかないが、カップルが座る席がいくつも設置してある。日本ではあまり見慣れない光景だ。カップルが、何時間も二人だけの時間を過ごすのだ。デートする時、カフェに行くことは今や当たり前なのではないかと思うほどであった。そして、韓国のカフェで見かける光景の一つに、試験勉強をしている学生が多いということ。日本では、学生がたまって勉強するところといえば、ファミリーレストランである。韓国では、それに当たるのがカフェなのだ。意外と勉強がはかどる。なぜならば、個別に仕切っている空間で集中でき、休もうと思えば、テレビを見てふかふかのソファで寝る。何時間いてもちっとも窮屈ではない。日本ではカフェで勉強しようと思うと、少し引け目になるし、どちらかというとカフェは女子がおしゃべりを楽しむための場所である。

両国共に言えることは、たくさんのカフェがあると、やはり儲かる店と儲からない店が出てくると思うし、儲かるためには消費者の望む店にするために、センスとコーヒーの味が重要になってくると思う。実際、近年の日本では、喫茶店業界全体を見ると後退の一途であり、1981年には154,630店を数えた喫茶店は、2006年には81,042店と約半減している。というデータが出ている。韓国のカフェ文化も、日本のような状態になるのは、必然的であろう。他の店と差別化を図らなければならなくなるだろう。

今までカフェについて述べてきたが、コーヒー専門店はどうだろうか。以後コーヒーショップと呼ぶ。日韓共にコーヒーショップの、客層や内観外観は変わらない。そして一人でお茶をする客も多い。実際、日本では一人でご飯を食べることも買い物をする 것도、韓国のように寂しく見られることはない国である。だから、コーヒーショップも同様に一人の客はたくさんいるのだ。本を読んだり、勉強したり、コーヒーショップを待ち合わせ場所にしたり、韓国と変わるところはない。しかし一つ言えるのが、韓国より日本のコーヒーショップには、会社員などスーツを着た客が多いということ。仕事の合間、また仕事をするためにコーヒーショップにいる人も多くはない。カフェとは違い、個々の空間があるのではなく、一つの空間にみんながいて、みんながコーヒーを飲みながらそれぞれ自由にしているという感じだ。コーヒーショップは、老若男女問わずそして国も問わず、コーヒーをたしなむことのできる場所であり、空間よりもそのブランドコーヒーを飲んでいるということが、客にとっての幸せなのだろう。

参考文献

- ・高井尚之 『日本カフェ興亡記』 日本経済新聞出版社、2009年。
- ・wikipedia

찜질방

프라이버시부터 자유로워지기

내가 친구들과 함께 온천장에서 로마 시대의 대욕탕 같은 커다란 풀을 속에 타인과 함께 벌거벗고 들어간 것은 처음이었다. 물 위에 머리통만 내놓고 황홀한 표정을 짓는 주위 사람들의 모습은 경이롭기 그지없는 것이었다. 나는 황홀하기는커녕 물이 너무 뜨거워서 비명을 지를 지경이었다. 우리들 프랑스인은 적당히 따뜻한 물로 욕조를 채우고, 물속에 들어간 후에 더운 물을 추가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니 섭씨 40 도 정도의, 아니 때로는 그 이상의 뜨거운 물에도 유유히 앉아 있는 이 나라 사람들을 어찌 존경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장 폴 마티스, 『프랑스인이 본 한국, 한국인』 중에서

인간은 유난히 물을 좋아한다. 영장류 가운데 사람만큼 목욕을 즐기는 동물은 없다. 우리는 왜 몸을 씻는가. 단지 생리적인 이유 때문만은 아니다. 원시 시대 때부터 인간은 물에 뭔가 신령한 힘이 깃들어 있다고 믿어왔다. 많은 종교에서 제사를 지내거나 신성한 일을 하기 전에 목욕재계(沐浴齋戒)라는 것을 해왔는데, 이는 몸을 닦으면서 마음을 정화하는 중요한 의례 절차이다. 개신교의 일부 교파에서는 물속에 온몸을 담기 세례를 치르는 침례(浸禮)를 행한다. 다른 한편 목욕을 일상의 여가로 정착시킨 것은 그리스·로마 문명이었다. 서양사학자 설해심의 『온천의 문화사』에 따르면 로마의 상류사회에서 매일 오후에 목욕을 하는 것은 문명화된 로마인이라는 정체성을 부여하는 일종의 사회적 코드였다. 그래서 공중목욕탕은 원형경기장과 함께 로마 문화의 대표적인 상징물이 되었다.

동양에서 목욕탕을 가장 잘 발달시킨 나라는 일본이다. 일본에서는 화산이 많은 지리적 조건으로 인해 온천이 많이 개발되어왔는데, 특히 에도(江戸) 시대 이후 서민들이 치료 목적으로 온천을 많이 이용하였고 거기에 숙박시설들이 들어섰다. 지금 일본에는 2 천 개 이상의 온천장이 공식 등록되어 있고 국내 여행객 가운데 2 할이 온천욕을 즐긴다. 일반 주택지의 경우에도 에도 시대부터 센토(銭湯)라는 공중목욕탕이 들어서 도시인들의 사교장이자 쉼터로 기능했고, 집에서도 목욕하는 습관이 일찍이 정착되어 있었다. 뜨거운 물에 몸을 데우는 것은 일본인들이 즐기는 레저이다. 그런데 그런 일본인들이 ‘때밀이 관광’을 위해 한국을 찾는다. ‘이태리타올’로 피부를 박박 문지르는 행위는 목욕탕 바닥에서 맨몸으로 누워 잠을 자는 모습 등과 함께 한국 목욕탕의 진기한 풍경을 이룬다.

그 목욕탕이 진화하여 새로운 업태로 선풍을 일으킨 것이 바로 찜질방이다. 이는 기존 목욕탕의 범주에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신종 업태였던 만큼, 처음에는 행정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가 뒤늦게 관련 법규가 마련되었다. IMF 위기 때 창업의 열기

속에서 등장한 찜질방은 2004 년 5 월, 전국에 1600 개를 넘어섰다. 점점 대형화되는 추세 속에서 건평 1 만 평짜리 찜질방도 등장했다. 역사상 이렇게 큰 ‘방’은 어디에도 없었을 것이다. 이제 영화나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배경 공간으로 종종 등장할 정도로 찜질방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고 친밀한 장소가 되었다.

‘찜질’의 뜻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온천 또는 뜨거운 모래나 물 따위에 몸을 담가 땀을 흘려 병을 고치는 일’이라고 나와 있다. 영어에서는 ‘fomentation’이라는 어려운 용어가 여기에 대응한다. 서양안들에게 찜질은 그만큼 특수한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인에게 그것은 생활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되었다. 생각해보면 그 말이 범상치 않다. 몸을 찌다니! 섬뜩하기까지 하다. ‘불가마’는 더욱 적나라하지 않는가. 어느 주간지에서 수도권 인근의 쏘가마 찜질 명소들을 소개하는 기사를 실었는데, 그 제목이 ‘뜨끈뜨끈 몸 지지고 오순도순 정 나누고’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그 기사 중에 이런 대목도 있다. ‘찜질하는 시간은 길어도 30 분을 넘지 않도록 한다. 그래야 질식과 화상 등 쏘가마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우리는 그렇듯 끔찍한 사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불가마에 몸을 맡기는 것이다.

그와 관련한 우스갯소리가 있다. 어떤 사람이 지옥에 떨어져 유향불에 고통받을 것을 생각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웬일인지 전혀 뜨겁지 않더라는 것. 사정을 알아보니 지옥에 온 한국인들이 웬만큼 뜨거운 유향불엔 끔찍도 하지 않아 지옥의 시설을 수리하느라 잠시 휴업 중이었다고 한다. 그만큼 한국인들은 뜨끈뜨끈한 것을 유난히 좋아한다. 심지어는 워터파크에도 찜질방이 있다. 더위를 피해 찾아간 곳에서 일부러 땀을 흘리는 사람들은 한국인밖에 없지 않을까. 뜨거움에 대한 열망은 펄펄 끓어야 맛이 있는 찌개나 탕, 온돌 등에서도 잘 나타난다. ‘ondol’은 ‘kimchi’ ‘Taekwondo’ 등과 함께 영어로 정착된 한국어이다. 찜질방의 정수는 널찍하고 따뜻한 방바닥인데, 이는 온돌 문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찜질방의 가장 가까운 원조는 사우나일 것이다. 사우나는 기존의 대중탕에서 진화한 것으로 새로운 휴식 가능 공간을 추가하면서 정착되어왔다. 이에 대해 어느 문화연구자의 설명을 들어보자.

대부분의 도시 공간들이 자본 축적의 논리에 지배되면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적인 장소들은 드물어졌다. 그 중의 예외적인 공간은 1970 년대 후반과 1980 년대 초반에 복잡한 사거리와 동네에 등장한 사우나들이었다. 일본 제국주의 시대부터 존재했고 집에 목욕탕이 없던 사람들이 목욕을 할 수 있었던 소박한 대중목욕탕과는 달리, 1970 년대 후반부터 생겨난 사우나들은 훨씬 더 크고 수면실도 지니고 있었다.

그런데 찜질방은 기존의 목욕탕, 온천, 사우나, 한증막 등과도 구별되는 공간이다.

아니, 그 모든 것을 아우르면서 확장된 돌연변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 핵심은 그 안에 수많은 ‘방’ 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목욕과 관련해서 동굴방, 산림욕방, 참숯방, 황토방, 소금방, 얼음방, 자수정방 등이 있다. 그래서 여러 환경에 몸을 노출시키면서 땀을 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욕탕이외에 찜질방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실로 다양하다. 식당, 헬스클럽, 요가, 에어로빅, 안마, 피부 관리, 수면방, 놀이방, 노래방, PC 방, 영화방, 소연회장, 기도방, 서예나 노래강습, 야외 폭포 정원, 연예인들의 공연이 이루어지는 중앙 광장……. 바야흐로 찜질방은 복합 레저타운을 지향하면서, 그동안 왕성하게 증식해온 방들을 총집결시키는 소우주와도 같은 공간이 되었다. 그래서 ‘건강 랜드’ 라는 이름이 등장하기도 했다.

이 별천지에서 사람들은 간단하게 변신한다. 소비자들은 목욕재계로 몸을 정결하게 한 다음 유니폼 (?) 으로 갈아입음으로써 이회한한 영토의 일원으로 거듭나게 된다. 잠옷처럼 헐렁헐렁한 그 옷을 입으면 편안해진다. 게다가 온돌이라는 공간의 구조가 마치 집에 와서 혼자서 또는 가족들끼리 부담없이 눌러앉는 분위기와 흡사한 마음가짐이 되도록 하는 듯하다. 거기에서는 부와 지위, 세대 그리고 남녀의 구분이 사라진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몸의 현상이 숨김없이 드러난다. 찜통에서 땀을 뺄뺄 흘리는 모습을 서로 바라보는 것은 각별한 느낌이다. 특히 남자와 여자가 마주앉아 분비물을 노출하는 것은 특이하다. 화장을 열심히 하는 젊은 여성들도 많은 사람들 앞에 맨 얼굴을 편안하게 드러낸다. 과연 그곳은 체면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해방구가 아닐까.

그런 새각은 사람들이 잠자는 모습에서 더욱 확연해진다. 찜질방의 진국을 맛보려면 하룻밤을 지내보아야 한다. 그 넓은 마루에 낮선 사람들이 엉클어져 집단 취침을 하는 광경은 마치 피난민 수용소를 방불케 한다. 여기저기 들리는 코 고는 소리, 대책없이 벌린 팔과 다리 그리고 입, 밀실에서나 취할 연인들의 포즈……. 잠이란 지극히 사적인 행위인데, 완전히 남남끼리 그것도 성의 장벽을 넘어 이토록 스스럼없이 침실을 공유한다는 것은 얼핏 기괴하게까지 느껴진다. 그런데 바로 그 ‘부담 없음’, 사적 영역의 경계가 홀연히 사라지면서 경험되는 묘연한 일체감이 찜질방의 매력이라.

말하자면 이 공간에서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상당히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이것을 ‘몸의 사회성’ 이라는 차원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들 앞에서 코를 후비거나 트림을 하거나 방귀를 내뿜지 않는다. 공공 장소에서 꾸벅꾸벅 졸거나 심하게는 침까지 흘리는 모습을 보이면 매우 부끄럽게 생각한다. 설혹 어디선가 혼자서 자다가 일어나서도 팔을 베었던 자국이 얼굴에 빨갛게 남으면 감추고 싶어 한다. 그 모두가 생리적인 현상이 그대로 노출되는 ‘자연스러운 몸 natural body’ 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타인을 만날 때 그런 흔적을 지우고, 몸가짐과

얼굴, 그리고 옷매무새를 일정하게 꾸민다. 멋진 옷을 입거나 화장을 정성스럽게 함으로써 ‘사회적 몸 social body’를 연출하는 것이다. 그런데 찜질방은 그 거추장스러운 허울에 크게 구애받지 않을 수 있는 공간이다.

찜질방을 찾는 사람들의 동반자 가운데는 가족도 적지 않다. 온천 같은 곳에 가족 단위로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여성들은 남성보다 목욕 시간이 길기 때문에 서로 시간을 맞추느라 서둘러야 한다. 그에 비해 찜질방에서는 여자들이 목욕을 아무리 오래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 남자들은 일찍 끝내고 나와서 잠을 자거나 텔레비전을 보면 된다. 그리고 어른과 아이들이 오랜 시간을 함께 있어도 각자 취향에 맞는 방식으로 휴식이나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공간과 시설이 제공된다. 부모는 아이들을 챙길 필요가 없고, 아이들은 부모의 간섭에서 자유로워진다. 그런 점에서 찜질방은 세대 차이 구애받지 않고 가족들이 함께 여가를 모낼 수 있는 공간이 되어주는 셈이다.

동서고금을 통해 목욕탕은 휴식, 치료, 위생, 사교, 오락 등의 기능을 담아왔다. 찜질방은 그러한 전통을 집약적으로 갖추고 있으면서 저렴한 숙소로도 애용된다. 출장은 직장인, 귀가를 포기한 취객, 외국인 노동자, 가출한 청소년 등이 고단한 몸과 마음을 의지하는 여인숙이다. 물론 여럿이 함께 온 손님들이 훨씬 많은데, 그들은 여기에서 나른하고도 농밀한 만남을 즐긴다. 가족 이외에도 회사 동료, 연인, 동네 계모임, 그리고 청소년들의 또래집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단위들이 모여들어 어우러지는 찜질방은 21 세기의 동네 사랑방인 듯하다. 실제로 지방 소도시에서는 그곳이 공회당 같은 역할을 하기도 한다.

찜질방은 땀을 흘리는 공간이다. 땀은 단순한 분비물이 아니다.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노력을 할 때 그 모습을 가리켜 ‘땀을 흘린다’라고 표현한다. 인간은 오랜 역사에서 주로 일을 하느라 땀을 흘렸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인간은 노동이 아닌 스포츠와 휴식을 통해서 더 많은 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이제 사람들이 헬스클럽과 목욕탕에서 쏟아내는 땀은 공간에서 흘리는 땀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것으로 짐작된다. 그 양은 앞으로 점점 많아질 것이다. 발한(發汗)을 통해 관계도 그만큼 끈끈해지는 것일까. 우리가 심신의 이완과 양생에 이토록 집착하는 것은 삶이 워낙 사납고 가파른 긴장에 휩싸여 있기 때문이리라. 로마의 공중목욕탕이 이따금 황제도 함께 벌거벗은 몸으로 납시던 친밀한 사교 공간이었듯이, 한국의 찜질방도 만인의 평등함을 확인하며 혼연일체가 되는 장소인지 모른다. 신성한 제의를 앞두고 목욕재계하듯, 험난한 세파에 지친 몸과 찢기고 얼룩진 마음을 정화하는 전당일 수도 있다.

(翻訳)

プライバシーから自由になる

私は温泉に行って、ローマ時代の大浴場のような非常に大きいプールの中に、友人や他人と一緒に裸で入ることは初めてだった。頭だけ水面の外に出して恍惚とした表情を浮かべる周囲の人々の姿は、驚異的で言い尽くせなかった。私は、恍惚どころか湯が熱すぎて、悲鳴をあげるほどだった。私たちフランス人は、適度なぬるま湯で浴槽を浸してから、その中に入った後で更に熱い湯を追加するのが一般的だ。だから、摂氏 40 度程度の、いや時にはそれ以上の熱い湯にも悠々と浸かっているこの国の人たちを尊敬せざるを得ない。

— チャン・ポール・マーティス、『フランス人が見る韓国、韓国人』の中で

人間は、ひときわ水が好きである。霊長類の中で、人間ほど入浴を楽しむ動物はいない。私たちは、なぜ体を洗うのか。単なる生理的な理由のためだけではない。原始時代の頃から、人間は水に何か神霊な力が宿っていると信じてきた。多宗教で祭司を務めたり、神聖な行事を行う前に斎戒沐浴というものをしてきたが、これは体を磨きながら心を浄化する重要な儀礼手順だ。プロテスタントの一部の教派では、水中に全身を浸け、洗礼を執り行う浸礼を行う。一方で、入浴を日常の余暇として定着させたのは、ギリシャ・ローマ文明だ。西洋史学者のソル・ヘシムの『温泉の文化史』によれば、ローマの上流社会で毎日午後に入浴をすることは、文明化されたローマ人というアイデンティティを与える一種の社会的コードだった。そして公衆浴場は、円形競技場とともにローマ文明の代表的な象徴物となった。

東洋で入浴場を最も発達させた国は日本である。日本では、火山が多いという地理的な条件によって温泉が多く開発されてきたが、特に江戸時代以降、庶民が治療目的に温泉を多く利用し、ここに宿泊施設が加わった。現在、日本には二千個以上の温泉が公式登録されており、国内旅行客の 2 割が温泉を楽しんでいる。一般住宅地の場合でも、江戸時代から銭湯という公衆浴場ができ、都会人の社交場であると同時に休憩所として機能し、家でも入浴する習慣が早くから定着されていた。熱い湯で体を温めることは、日本人が楽しむ余暇である。しかし、そのような日本人が“垢すり観光”のために韓国を訪れる。“イタリータオル”で皮膚を擦る行為は、浴場の床に裸で横たわって眠る姿などとともに、韓国の入浴場でみられる珍しい光景だ。

その入浴場が進化し、新しい業態¹で旋風を巻き起こしたものが、まさに^{チムジルバン}찜질방だ。これは、既存の入浴場の範疇に合わない新種の業態で、はじめは行政規制の死角にあったため、かなり後になって関連法規が整備された。IMF 危機時、創業の熱気の中で登場した찜질방は 2004 年 5 月、全国に 1600 箇所を超えた。徐々に大型化される動向の中で、建坪 1 万坪ほどの찜질방も登場した。歴史上このような大きな^{バン}방(部屋)はどこにもない。現在、

¹意味：営業や企業の状態・形態

映画やテレビドラマの背景としてときどき登場する찜질방は、私たちにとって非常に馴染み深い場所となった。

“찜질”の意味は、辞書では“温泉、または熱い砂や湯などに体を浸し、汗を流すことで病を治療すること”とある。英語では、“fomentation”という難しい用語が当てはまる。西洋人にとって찜질は、それほど特殊な行為であるといえる。しかし、韓国人にとって찜질は、生活の一部になっている。考えてみれば、その言葉自体が普通でない。体を蒸すなんて！身の毛がよだつ。“불가마 (火窯)”という言葉は、より赤裸々だ。ある週刊誌で、首都圏近郊의 불가마 (炭窯) という찜질の名所を紹介する記事を掲載したが、そのタイトルが“ほかほかと体を煮つめ、仲睦まじく情を分かちあう”であった。そして、その記事の中にはこのような一節もある。“찜질する時間は、長くても 30 分を超えないようにする。そうすれば窒息や火傷など불가마安全事故を防止できる。”私たちは、そのように残酷な事故の危険を顧みずに불가마に体を委ねているのだ。

それと関連した笑い話がある。ある人が地獄に落ちて、유황불 (硫黄が燃える時の青い炎) の熱さが苦痛だろうと恐怖に震えていたが、どういうわけか全く熱くなかったとのこと。その事情を調べてみると、地獄に来た韓国人たちが유황불の少々の熱さには少しも動じず、地獄の施設をより熱くしようと修理するために、しばらく休業中だったという。それだけ韓国人は、「熱々」が一際好きなのだ。その上、ウォーターパークにも찜질방がある。暑さから逃れる場所でわざと汗を流す人は、韓国人しかいないのではないだろうか。熱さに対する熱望は、ぐらぐらと沸いてこそ味があるチゲやスープ、オンドルなどにもよく現れている。“ondol”は“kimchi”“Taekwondo”などとともに英語に定着している韓国語だ。찜질방において最も重要なのは、広くて温かい床であるが、これはオンドル文化と密接な関連があるといえる。

찜질방の最も近い元祖はサウナである。サウナは既存の大衆浴場で進化したもので、新しい休息可能空間を加えながら定着してきた。これに対し、ある文化研究者の説明をみてみよう。

大部分の都市空間が資本蓄積の論理に支配され、休息をとれる公的な場所はめったになかった。その中の例外的な空間は、1970 年代後半から 1980 年代初期にかけて登場した複雑な交差点と、町に登場したサウナの二つであった。日本帝国主義の時代から存在し、家に風呂がない人々が入浴できる素朴な大衆浴場とは違って、1970 年代後半から生まれたサウナははるかに大きく、睡眠室も備えていた。

しかし、찜질방は既存の浴場、温泉、サウナ、汗蒸幕などとは区別される空間だ。いや、その全てを合わせながら拡張された突然変異ともいうべきものだ。その核心は、その中に数え切れないほどの“방 (部屋)”があるという点だ。まず風呂と関連して^통글^바방 (洞窟部屋)、^{살림}욕^방 (山林浴部屋)、^참숯^방 (白炭部屋)、^황토^방 (黄土部屋)、

소금방 (塩部屋)、얼음방 (氷水部屋)、자수정방 (紫水晶部屋) などがある。そのため、様々な環境に体を委ねながら汗を流すことができる。のみならず、浴場以外に찜질방が提供するサービスは実に多様だ。食堂、フィットネスクラブ、ヨガ、エアロビクス、按摩、皮膚管理、睡眠室、遊び部屋、カラオケ、パソコン部屋、映画部屋、小宴会場、気道部屋、書道・歌謡講習、野外滝庭園、芸能人の公演ができる中央広場……まさに찜질방は複合レジャータウンを目指しつつ、その間どんどん増加してきた部屋を総集結させる小宇宙ともいような空間になった。そのため、“健康ランド”という名前が登場したのだ。

この別天地で、人々は簡単に変身する。消費者たちは、斎戒沐浴で体を清潔にしてからユニフォーム(?)に着替え、この珍しい領土の一員に生まれ変わる。パジャマのようなぶかぶかのその服を着れば楽になる。その上、オンドルという空間の構造が、まるで家に来て一人で、または家族同士で気兼ねなくいられる雰囲気を作り、心をリラックスさせてくれるようだ。ここでは、富と地位、世代そして男女の区別がなくなる。そして、ありのままの体の状態がそのまま現れる。찜통 (蒸し風呂) で汗をだらだら流す姿を互いに眺めるのは、格別と感じられる。特に、男性と女性が向かい合って座り、汗を露出するのは特異なことだ。化粧を一生懸命する若い女性たちも、大勢の人々の前ですっぴんを気楽にさらけ出す。やはりこの場所は、面目の束縛から解放されるところではないだろうか。

そのような考えは、人々が眠る姿からより確実になる。찜질방の本質を知るには、一晚を経験してみなければならない。その広い床に見知らぬ人々が散らばり、集団で眠る光景は、まるで避難民収容所を彷彿させる。あちらこちらで聞こえるいびきの音、おかまいなしに広げた腕や脚、そして口、密室ででも酔いしれる恋人たちのポーズ……眠りとは、限りなく私的な行為なのに、全くの他人同士で、それも性別を超えて、これほどまでに気兼ねなく寝室を共有するとは、少し奇怪にまで感じられる。しかし、まさにこの“気兼ねがない”、私的領域の境界が一切なくなる時に経験する微妙な一体感が찜질방の魅力だろう。

いわば、この空間で人々は他人の視線からかなり自由になる。これは、“体の社会性”という次元で考えてみることができる。例をあげると、私たちは普段、他人の前で鼻をほじくったり、げっぷをしたり、おならをしたりしない。公共の場所でうとうと居眠りをしたり、ひどい時にはよだれまで垂らす姿を見せれば、非常に恥ずかしくなる。仮にどこか一人で寝て起きても、腕枕をした跡が顔に赤く残っていれば隠したくなる。その全てが、生理的な現象がそのまま露出される“自然な体 natural body”であるためだ。私たちは他人と会う時、そのような痕跡を消して、態度や表情、そして身なりをきちっと整える。素敵な服を着たり、化粧をちゃんとしたりすることで、“社会的な体 social body”を演出している。しかし찜질방は、その面倒な外見に一切掬われることのない空間だ。

찜질방の来館者の中には、家族の姿も少なくない。温泉のような所に家族で行く場合がたまにあるが、女性は男性より入浴時間が長いため、互いに時間を合わせようと慌てなくてはならない。それに比べて찜질방では、女性がどんなに長時間入浴していたとしても何の問題もない。男性は入浴を早く終えれば、眠ったりテレビを観たりしていてもよい。そ

して、大人と子どもが長時間一緒にいても、それぞれの趣向に合わせた方法で休息したり遊びを楽しめたりするほど、多様な空間と設備が提供されている。両親は子どもたちに食事を作る必要がなく、子どもたちも親の干渉から自由になる。そのような点で찜질방は、世代差に捉われないで家族たちが一緒に余暇を送れる空間となっているわけだ。

古今東西を通して浴場は、休息、治療、衛生、社交、娯楽などの機能を含んできた。찜질방は、そのような伝統を集約的に備えていながら、安価な宿泊所としても愛用されている。出張で来たビジネスマン、帰宅できない酔っ払い、外国人労働者、家出した青少年などが、疲れた体と心を癒しに来る宿泊所だ。もちろん仲間内で来る客の方がはるかに多いのだが、彼らはここで、くたびれていても濃密な時間を楽しむ。家族以外にも会社の同僚、恋人、近所のおばさん、そして青少年たちの集団に至るまで、多様な単位で集まる찜질방は、21世紀の集会場のようだ。実際に地方の小都市では、찜질방が公会堂のような役割をすることもある。

찜질방は、汗を流す空間だ。汗は単なる分泌物ではない。何かを作り上げるために、力を尽くし努力する時、その姿を示すのが“汗を流す”という表現だ。人間は長い歴史の中で、主に仕事をすることによって汗を流してきた。しかしいつからか、人間は労働ではないスポーツや休息を通して、より多くの汗をかくようになった。現在、人々がフィットネスクラブや浴場で流している汗は、工場で流す汗と比較できないほどの量であると思われる。その量は、今後徐々に多くなっていくだろう。一緒に汗を流すことによって、関係もそれだけ強くなるのだろうか。私たちが、心身のリラックスと保養にこんなに執着するのは、人生があまりにも荒々しく陰しい緊張に縛られているためだろう。ローマの公衆浴場が、ときどき皇帝も一緒に裸になって訪れるほど親密な社交空間だったように、韓国の찜질방も、万人の平等を確認でき、渾然一体となる場所なのかもしれない。神聖な儀式を前に齋戒沐浴するように、찜질방は陰しい世の荒波に疲れた体と折れた心を浄化する殿堂ともいえる。

찜질방からみる韓国文化

垣下友希

●韓国のお風呂事情

韓国では、日本のように家庭でのんびり湯に浸かるということは殆どない。湿度が低いせいか、毎日湯船に入る習慣は無く、基本的にシャワーのみで、週に1, 2度、垢すりタオルで垢を落とすというのが一般的である。ただ、足や上半身（特に首あたり）は外出から帰ってきたらすぐに濡れタオルで拭き、汚れがたまらないようにするようだ。また韓国では湯船に入る場合、たとえ家族でも必ずお湯を換えるのだが、これが面倒であるために、家庭ではあまり湯船に浸からないという説もある。

一方で、韓国には日本でいうスーパー銭湯のような찜질방や汗蒸幕が数多くあるため、普段家で湯に浸からない分、韓国人はそのような場所をよく訪れる。しかも찜질방などは、10,000ウォン程度と安価なため、頻繁に利用する人も多いようだ。

●찜질방とは

찜질방とは、銭湯のような浴場はもちろん、さまざまな種類のサウナがある他、食堂、仮眠室、マッサージ、インターネットカフェ、フィットネスクラブなど、お風呂以外にも充実した施設が整っている健康ランドのような所である。찜질방は街のあちらこちらにあり、殆どが24時間営業だ。しかも料金も手頃なため、安価な宿泊施設として利用する客も多い。また、浴室や更衣室以外は男女兼用なので、家族、恋人、友人など、誰とでも気軽に楽しめるレジャー施設となっている。

●韓国人にとっての찜질방

韓国人にとっての찜질방とは、「憩いの場」であるといえる。

もちろん、찜질방を訪れる第一の目的は、健康面や衛生面を考え、“汗をかいて綺麗になる”ことだろう。しかし、韓国人が찜질방を利用する本当の目的は、一緒に訪れた家族、恋人、友人たちとゆったりとした時間を過ごし、身体だけでなく心までリラックスさせることではないだろう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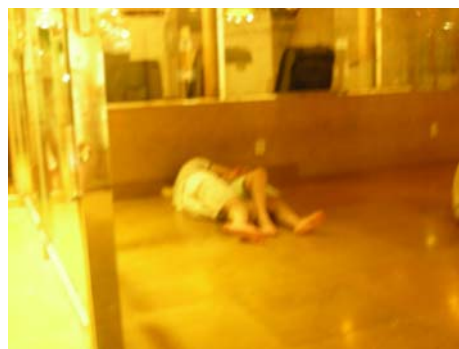
찜질방専用の服に着替え、化粧を落とすと、日常のしがらみから解放されるような感覚がある。そしてサウナに入って汗を流し、疲れたらロビーで休憩するのだが、ここで面白いのが、日本人と韓国人の物の捉え方の違いである。日本人であれば、せっかく찜질방に来たのだから、サウナに入る時間をできるだけ長く取りたいと思うのではないだろうか。ところが韓国人の場



合、サウナに入るよりも、ロビーでくつろいでいる人の方が断然多い。一概にはいえないが、찜질방にいる韓国人をみると、汗をかいて綺麗になるというより、家族や恋人とゆっくり団欒し、ストレスを発散することで綺麗になるという印象を受ける。

また、찜질방は安価な宿泊施設ともなっているが、夜遅くに子どもがいたり、カップルと一緒に寝ていたりする光景は、日本人の目には異様に映るだろう。厳しい親を持つ私からすれば、「恋人と外泊なんて…親は何も言わないのだろうか」と不思議に思う。しかし、もしかすると両親の方も、「찜질방は団欒・憩いの場」という認識があるからこそ安心できるのかもしれない。

それにしても、人の目を気にせず抱き合って寝ているカップルを目にすると、見ているこちらが恥ずかしくなってしまう。公共の場にも関わらず、まるで家にいるかのようにリラックスできるのは、찜질방の力なのか、ただ単にお国柄の違いなのか、興味深いところである。



●日本との比較

韓国の찜질방と比較するため、日本のスーパー銭湯に行ってみた。スーパー銭湯は、찜질방ほど規模は大きくないが、浴場やサウナの他に食堂、整体・マッサージ、ゲームなどが設置されている。

찜질방と私が訪れたスーパー銭湯との違いは、“スーパー銭湯は 24 時間営業ではないため、「安価な宿泊施設」という認識はない”という点と、“男女兼用のスペースはロビーのみであるため、찜질방のようにカップルで楽しむことがなかなかできない”という点だ。また、調査の時間帯を合わせるため、スーパー銭湯へは平日の 23 時頃に訪れたが、大半は男性で、子どもの姿もほとんど見られなかった。

そして、韓国人にとっての찜질방と日本人にとってのスーパー銭湯とは、その目的や役割が大きく違うように見受けられた。韓国人にとっての찜질방は、「憩いの場」とであると先に述べたが、日本人がスーパー銭湯を訪れる目的は、「のんびりお風呂を楽しむ」ことであるようだ。男女兼用のロビーでは、ゆっくりお風呂を楽しんだ後に、身体を冷ましたり、少しくつろいだりするといった様子で、多少休憩すればすぐに帰宅する客も多かった。日本人にとって「憩いの場」の役割を果たすのはお風呂そのものであり、熱い湯に浸かりながら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楽しむというのが、日本人が銭湯を訪れる最大の目的ではないかと思われる。

しかし、今回は浴場を中心としたスーパー銭湯との比較であったため、スーパー銭湯よりも大規模で施設が充実している健康ランドと比較すれば、また違った調査結果が現れるかもしれない。

● 찜질방からみる韓国文化

韓国人と接していると、コミュニケーションに対して積極的でスキンシップも多いため、人と人の距離が近いと感じることが多々ある。そのように、「自分のテリトリーをあまり強調しない」という点は、찜질방においても同様のことが言えるのかもしれない。

眠くなれば、見ず知らずの人が隣で寝ていても、特に気にすることなく自分も寝る。そのような深夜から明け方にかけての찜질방の光景は、何かあっても「괜찮아 (大丈夫)」で乗り切る韓国人の大らかさを象徴しているように思えた。

また、一人で訪れる客が殆どいない点を見ると、やはり韓国人にとって찜질방とは、仲間との団欒を楽しむもので、一緒に汗を流したり眠ったりすることで、お互いの距離をより縮めることのできる空間なのではないだろうか。

これが、日本人である私の目から見た찜질방である。



〈参考URL〉

『韓国のお風呂』 <http://www.bath25.com/kankoku.html>

공항

물리적으로 볼 때 공항은 빠져나갈 데 없는 완전한 환경을 이룬다. 대부분의 여행객들에게 공항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건물이라기보다는 그들을 둘러싸는 분위기 또는 대기와 같아 도대체 공항을 밖으로부터 보는 경우가 드물게 마련인데, 그것은 안으로부터 경험되는 수밖에 없다. 물론 출발하는 공항 또는 여행객이 그럴 만한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도착하는 공항의 출입구를 잠시간 바라볼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경우도 오늘날의 거대 공항, 특히 시카고나 동경이나 프랑크푸르트의 공항의 전체를 하나의 원근법 속에, 즉 한 사람의 적절한 시각으로부터 포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김우창. 「국제공항:포스트모더니즘의 상황에 대한 명상」 중에서

‘비행기 태워준다’는 말이 있다. 칭찬이나 아침으로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해준다는 뜻인데, 비슷한 말로 ‘떡워준다’가 있다. 또한 ‘들뜬다’ ‘기분이 업 up 된다’등의 표현도 흥분과 희열 등의 감정을 가리킨다. 외국어에서도 비슷한 표현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위쪽으로 올라가는 동작과 즐거운 느낌은 쉽게 연상된다.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비행기를 타는 경험도 그러하다. 하늘 높이 솟구쳐 올라 멀리 날아갈 때 우리의 마음은 들뜬다. 애니메이션 「스노우맨 The Snowman」의 주제가 「Walking in the Air」에서 묘사되는 경쾌한 분위기에 사로잡힌다.

그런 분위기는 공항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느껴진다. 국제 공항은 특히 더 그러하다. 항공망이 지구촌을 하나로 엮어내는 ‘월드와이드 웹’이라면, 공항은 그 소통의 관문 곧 ‘포털 사이트’라고 할 수 있다. 국가와 국가 사이의 그 회색지대를 통과할 때 우리는 새삼 국적을 의식하며 이방인이 된다. 국제공항은 특정 국가의 영토에 속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바깥에 존재한다. 말하자면 국경과 국경 사이의 공백 지대이다. 「터미널 The Terminal」이라는 영화는 그 본질을 잘 포착하고 있다. 어느 재즈 연주자의 사인을 받기 위해 미국에 온 주인공은 고국이 쿠데타로 인해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자 국제 미아가 된 채 공항에서 생활한다.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것이지만, 실제로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공항을 드나드는 사람들은 모두 국적과 행선지가 분명하다. 그들은 공항에서 국가의 구속에서 벗어나지만 국제 미아가 아닌 ‘국제인’이 된다. 한국을 벗어난다는 것 그리고 외국으로 나간다는 것은 가슴 설레는 일이다. 일상에서 벗어나는 해방감, 그리고 낯선 곳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출국 신고를 마치고 나면, 여객들은 묘연한 무중력 상태에 접어든다. 숨 가쁘게 달려가던 시간은 느긋하게 굴절된다. 탑승권을 지니고 있기에 서두를 필요가 없다.

어떤 사람들은 도착지의 시간으로 자신의 손목시계를 미리 조정해놓기도 한다.

승객들을 지배하는 시간은 행선지에 따라 제각각으로 분화된다. 특정한 시간이 적용되지 않는 국적 불명의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은 업무와 인간관계 그리고 사회적 책임 등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듯하다. 승객들이 들고 있는 쇼핑백에는 ‘Duty Free’라는 글씨가 큼직하게 찍어져 있다. 국내에 얹힌 수많은 일들과 그 ‘의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시공간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하지만 그 홀가분한 ‘해방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승객들은 예외 없이 신발까지 벗어서 짐과 함께 엑스레이 카메라에 투과시켜야 하고, 몸 구석구석 검사를 받아야 한다. 모두가 잠재적 테러범으로 의심받는 것이다. 9·11 테로나 「다이하드 2」 같은 영화를 보면 공항과 비행기가 얼마나 위험한 공간인지 새삼 확인하게 된다. 더구나 그곳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람들 즉 표적이 되는 인물들이 많이 드나드는데 이들은 공격의 대상이 되기 쉽다. 그래서 언제나 삼엄한 경비를 하고 있다. 편리한 문명의 이기를 누리기 위해 치러야 하는 불편함을 여기에서도 새삼 확인하게 된다. 그러나 일상을 벗어나는 홀가분함 또는 낯선 곳으로 간다는 설렘 때문인지, 수속을 밟는 사람들은 그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한다. 또한 출입구 심사, 세관 신고, 질병 검역 등의 번거로운 절차도 순순히 따른다.

TV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 보면 공항을 배경으로 하는 장면이 종종 나온다. 사랑을 나누던 주인공 남녀 가운데 한 사람이 자신의 갈 길을 찾아서 멀리 떠날 때, 이별의 장소로 나오는 곳은 거의 항상 공항이다. 막 출국하려는 즈음 가까스로 도착한 연인이 뛰어와서 극적인 작별 인사를 나누는 장면을 종종 보게 된다. 「러브앤크루얼리 Love Actually」라는 영화의 처음과 마지막 부분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공항에서 해후하는 모습을 연달아 보여주는데, 애정이 스스럼없이 표현되는 공간으로서의 공항을 인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다른 한편, 뉴스에도 공항이 자주 등장하는데, 중요한 인물이 입국하거나 출국할 때 거기에서 인터뷰가 종종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외국에서 대단한 성취를 이룬 스포츠 선수 등 ‘거물급’이 입국할 때는 엄청난 취재 경쟁이 벌어진다. 거기에서 방송 카메라에 자주 찍히는 스타들은 자연스럽게 포즈를 취하고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데 아주 능숙하다.

국제공항은 그 안에서 웬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동북아시아의 주요 허브 공항으로 자리 잡은 인천국제공항의 예를 보면, 어린이 놀이방, 유아 휴게실, 마사지실, 사우나, 환승 호텔, 약국, 의료센터, 서점, 기도실, 비즈니스 센터, 정보 통신 센터, 구두 닦는 가게 등이 있다. 이 별천지에 잡상인이나 노숙인들은 얼씬거리지 못할 뿐 아니라, 빈궁한 차림의 사람들도 찾아보기 어렵다. 화장실의 청결도는 최고 수준이고 미세 먼지나 소음 공해도 적은 편이다. 공항은 그렇듯 매우 위생적으로 관리된다. 또한 항공사 직원들의 친절함도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한다. 그리고 삼삼오오 지나가는 스튜어디스들의 이미지는 그 공간의 깔끔한 분위기와 잘 어울린다. 주변 사람들은 그들의 화사한 외모와 당당한 발걸음에 힐끗힐끗 눈길을 보낸다. 그 선망의 시선은 공항 바깥에서도 쏠아지는데, 그래서 그런지 유니폼 차림으로 출퇴근하면서 도시를 활보하는 유일한 직종이 스튜어디스이다. 그러나 아무리 외모가 뛰어난 스튜어디스도 승객들을 대할 때는 철저하게 겸손하고 공손해야 한다. 격조 있는 디자인에서 각뚝한 손님 대접에 이르기까지 극진한 정성이 가득 담겨있어야 하는 곳이 바로 공항이기 때문이다. 승객들은 여기에 들어와 있다는 것만으로도 귀빈이 된 듯 느낀다.

그런데 승객들 가운데에도 몇 가지 부류가 있다. 짐을 잔뜩 가지고 두리번거리는 사람은 처음 출국을 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 반면에 단출한 가방을 메고 편안한 모습으로 수속을 밟는 사람은 여러 번의 해외 여행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런 모습들은 여권에 찍힌 입출국 허가 도장의 개수와도 연관이 있을 것 같다. 또한 승객들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수준의 차이는 좌석의 급수로 분명하게 나타난다. 비행기 좌석은 ‘이코노미’ ‘비즈니스’ ‘퍼스트’로 ‘클래스’가 정확하게 나뉜다. 이코노미석에서의 장거리 영정은 고역이다. 노약자들이 ‘이코노미석 증후군’이라는 시체 이상을 주의해야 할 정도로 좌석이 비좁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비즈니스나 일등석은 널찍한 좌석에서 몸을 눕힐 수 있고, 승무원에게서 일류 호텔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뿐만 아니라 그 ‘귀빈’들에게는 탑승 전에 공항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는 ‘프레스티지 Prestige’가 주어진다. 그들은 융숭한 대접을 받으면서 자신이 정말로 ‘매우 중요한 인물(VIP:Very Important Person)’임을 확인하게 된다.

하지만 외국에 도착하여 입국 수속을 밟는 과정에서는 그러한 구별과 위신고 빛이 바래기 일쑤이다. 입국 심사대에서는 국적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몇몇 선진국에서는 단지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멸적인 대우를 받기도 한다. 입국 심사 담당 직원이 방문 목적을 까다롭게 캐묻고 귀국 항공권을 보여달라면서 잠재적 불법 체류자로 취급하는 것이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한국 공항에서 더욱 굴욕스러운 대접을 받으며 설움을 겪는 외국인과 해외 거주 동포들이 훨씬 많다. 결국 공항은 국적별로 글로벌 위신의 급수를 확인받는 검열의 장치가 아닌가 한다.

비행기 좌석의 등급이나 소속 국가에 대한 국제적 평가는 사람의 값어치를 얼마만큼 반영하는 것일까. 국경을 넘나들면서 그 차이들을 사뭇하게 해탈하고 싶다. 비행기에서 마주치는 무변(無邊)의 창공, 서로의 존재가 투명해질 수 있는 그 바탕화면에서 ‘국민’으로 호명되지 않는 ‘나’를 클릭해보고 싶다. 우리는 집과 동네와 나라를 벗어나 세계로 나아가면서 오히려 자아를 깊숙하게 들여다보게 되는 경우가 많다. 제도로 규정되거나 어떤 범주로 환원되지 않는 인간 본연의 모습이 참으로 존귀한 인격으로

떠오르게 된다. 그렇게 빈 그릇으로 지구촌 시민들을 만날 수 있다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VIP 로 다가올 것이다. 공항은 그렇듯 소탈한 마음들이 떠나고 돌아오는 빈[空]항구[港]이다. 하늘로 비상하면서 우리는 허공 속에 묻어두었던 편심(平心)을 불로들이고 삶과 세상을 드넓을 여백으로 옮겨놓는다.

(翻訳)

空港

物理的に見る時、空港は抜け穴のない完全な環境を成す。大部分の旅行者たちにとって空港は、客観的に存在する建物というよりは彼らを囲む雰囲気または大気のようで、空港を外から見る場合は滅多にないのが当たり前で、それは中から経験するしかない。もちろん出発する空港または旅行者がそれ相応の心の余裕がある人であれば、到着する空港の出入口をしばらく見上げる機会がなくはないが、そのような場合も今日の巨大空港、特にシカゴや東京やフランクフルトの空港の全体を一つの遠近法の中に、すなわち一人の適切な視覚から捕らえるのは不可能だ。

-キム・ウチャン「国際空港：ポストモダニズムの状況に対する瞑想」より

‘飛行機に乗せてあげる’と言う言葉がある。褒め言葉やお世辞で相手の気持ちを良くしてあげるという意味だが、似ている言葉で‘浮かべてあげる’がある。また‘浮き立つ’、‘気持ちがアップする’などの表現も興奮と喜びなどの感情を示す。外国語でも似ている表現をたくさん見つけることができる。上方へ上がる動作と楽しい感じは簡単に連想される。単純な比喩ではなく実際に飛行機に乗る経験もそうだ。空高く飛び上がり遠くへ飛ぶ時、私たちの心は浮き立つ。アニメ「スノーマン The Snowman」の主題歌「Walking in the Air」で描写される軽快な雰囲気に魅了される。

そんな雰囲気は空港に立ち入る瞬間から感じられる。国際空港は特にそうだ。航空網が地球村を一つに編み出す‘ワールドワイドウェブ’なら、空港はそれを繋げる関門、すなわち‘ポータルサイト’と言える。国家と国家の間のその灰色地帯を通過する時、私たちは改めて国籍を意識して異邦人になる。国際空港は特定国家の領土に属しながら、それと同時にその外に存在する。言わば国境と国境の間の空白地帯だ。「ターミナル The Terminal」という映画はその本質をよく捉えている。あるジャズ演奏者のサインを貰うためにアメリカへ来た主人公は、母国のクーデターによって国家に認められなくなると国際迷子になったまま空港で生活する。この映画は実話を元に作ったものだが、実際にそんな事はほとんど起こらない。空港を出入りする人々は皆国籍と行く先が明らかである。彼らは空港で国家の拘束から脱するが、国際迷子ではなく‘国際人’になる。韓国を出ること、そして外国に行くということは胸がドキドキする事だ。日常から脱する解放感、そして見慣れない所に対する期待感のためだ。出国申告を終えてからは、旅客たちははっきりしない無重力状態に入る。忙しく過ぎていった時間はゆったりと変わる。搭乗券を持っているので急ぐ必要がない。

ある人々は到着地の時間に自分の腕時計をあらかじめ調整しておいたりする。乗客たちを支配

する時間は行く先によってまちまちに分けられる。特定の時間が適用されない国籍不明の空間で、多くの人々は業務と人間関係、そして社会的な責任などのくびきから抜け出すようだ。乗客たちが持っているショッピング・バッグには‘Duty Free’という字が大きく書かれている。国内に残した数多くの事とその‘義務’から自由になれる時空間に入って行くのだ。

しかしその身軽な‘解放区’に入るためには非常に難しい手続きを踏まなければならない。乗客たちは例外なく履き物まで脱いで荷物と一緒にX線カメラに透過しなければならず、体をくまなく検査しなければならない。皆が潜在的テロ犯に疑われるのだ。9・11 テロや「ダイハード 2」のような映画を見れば空港と飛行機がどれくらい危険な空間なのか改めて確認することになる。その上その場所は国家的に‘重要な’人々、すなわち標的になる人物たちがたくさん出入りするので、人々は攻撃の対象になりやすい。そのためいつも厳しい警備をしている。便利な文明の利器を享受するために行わなければならない不便さをここでも改めて確認することになる。しかし日常を抜け出す気楽さ、または見慣れない所に行くという胸のときめきのせいなのか、手続きを踏む人々はその不便さを喜んで甘受する。また出入国審査、税関申告、疾病検疫などの煩わしい手続きも素直に従う。

TVドラマや映画を見ていれば空港を背景にする場面がたびたび出てくる。愛を分かち合った主人公男女の中で、ひとりが自分の行く道を捜して遠く離れる時、別離の場所に出てくる所はほとんどいつも空港だ。ちょうど出国しようとする頃やっと到着した恋人が走って来て、劇的な別れのあいさつを交わす場面をたびたび見るようになる。「ラブアクチュアリー Love Actually」という映画の初めと最後の部分では数多くの人々が空港でめぐり合う姿を相次いで見せているが、愛情が自然に表現される空間としての空港を印象的に描いている。一方、ニュースにも空港がよく登場するのだが、重要な人物が入国したり出国したりする時、そこでインタビューがたびたび行われるためである。外国ですごく成功したスポーツ選手など‘大物’が入国する時は、おびただしい取材競争が起こる。そこで放送カメラによく撮られるスターたちは自然にポーズを取って、記者たちと話を交わすことがとても上手だ。

国際空港はその中で大体の日常生活を営める程、多様な施設をそろえている。東北アジアの主要ハブ空港として位置づけられている仁川国際空港の例を見れば、子供保育所、乳児休憩室、マッサージ室、サウナ、乗り換えホテル、薬局、医療センター、書店、お祈り室、ビジネスセンター、情報通信センター、靴を磨く店などがある。この別世界に行商人やホームレスたちは足を踏み入れることができないだけでなく、貧窮な姿の人々も見つけるのが難しい。トイレの清潔度は最高水準で微細のはこりや騒音公害も少ない方だ。空港はそうのように非常に衛生的に管理される。また航空会社職員たちの親切なところも‘グローバルスタンダード’に符合する。そして三々五々過ぎ行く客室乗務員たちのイメージはその空間の洗練された雰囲気とよく似合う。周辺の人々は彼らの豪華な容貌と堂々とした足取りにちらちら視線を送る。その羨望の視線は空港外でもあふれ、そうしたためかユニホーム姿で出退勤して、都市を歩き回る唯一の職種が客室乗務員だ。しかし、いくら容貌が優れた客室乗務員も乗客たちに対する時は、徹底的に謙遜で礼儀正しくしなければならない。格調あるデザインで丁寧なお客さんの接待に至るまで手厚い誠意をたくさん込めなければならない。

い所がまさに空港である。乗客たちはここにいるということだけでも貴賓になったように感じる。

ところで乗客たちの中にもいくつかの部類がある。荷物をいっぱい持ってキョロキョロ見回す人は初めて出国をする人である可能性が大きい。反対に身軽なかばんを持って楽な姿で手続きを踏む人は数回の海外旅行経験があるだろう。このような姿はパスポートにつけられた入出国許可印鑑の個数とも関連があるようだ。また乗客たちの社会的地位や経済的水準の差は座席のクラスで明らかになる。飛行機の座席は‘エコノミー’‘ビジネス’‘ファースト’で‘クラス’が正確に分けられる。エコノミー席での長距離旅程は苦痛だ。老弱者たちが‘エコノミー席症候群’という身体異常に気を付けなければならないほどに座席が窮屈だからだ。それに比べてビジネスやファーストクラスは広い座席でからだを横にすることができ、乗務員から一流ホテル水準のサービスを提供される。それだけでなく彼‘貴賓’たちには搭乗の前に空港ラウンジを利用できる‘プレステージ Prestige’が与えられる。彼らは丁重な接待を受けながら、自分が本当に‘非常に重要な人物(VIP:Very Important Person)’であることを確認することになる。

しかし外国に到着して入国手続きを踏む過程では、そういう区別と威信も色褪せるのが常だ。入国審査台では国籍が一番重要だからだ。いくつかの先進国ではただ韓国人という理由だけで侮蔑的な待遇を受けたりもする。入国審査担当職員が訪問目的をしつこく問い詰め、帰国航空券を見せてくれと言って潜在的不法滞留者として扱うのだ。しかし考えて見れば韓国空港でさらに屈辱的な接待を受けて悲痛を与えられる外国人と海外居住同胞たちがはるかに多い。結局空港は国籍別にグローバル威信のクラスを確認する検閲の装置ではないかといえる。

飛行の機座席のクラスや所属国家に対する国際的評価は、人の値打ちをどれだけ反映するのだろう。国境を行き来しながらその差から軽く開放されたい。飛行機から見える広々とした青空、お互いの存在が透明になれるそのデスクトップで、‘国民’と呼ばれない‘自分’をクリックしてみたい。私たちは家と町内と国を抜け出して世界に出て行ってこそ、むしろ自分を奥深くのぞき見つめ直せることが多い。制度に規定されたり、ある範疇として還元されたりしない人間本来の姿が真に尊い人格として浮び上がる。そのように空の器で地球村市民たちに会うことが出来るならば、ひとりひとり皆がVIPに近付くだろう。空港はそのように気さくな心が出たり入ったりする空〔빈〕港〔항구〕だ。空に羽ばたきながら私たちは虚空の中に葬った平常心を呼び戻して、人生と世界を広い余白に移してお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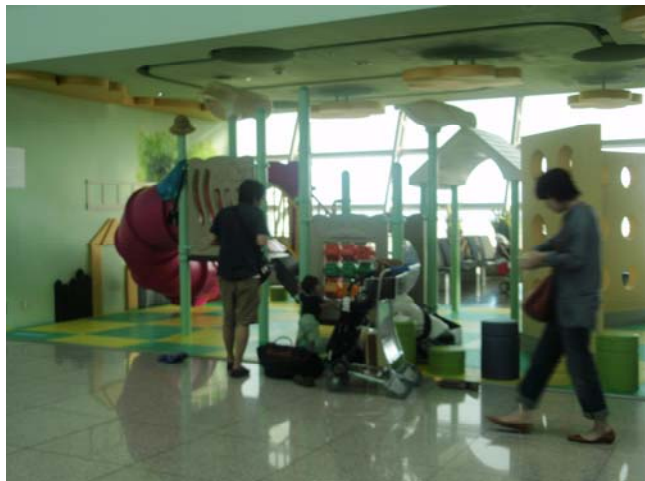
空港での過ごし方

畑野友里恵

世界の航空関連データを収集・提供するオフィシャル・エアライン・ガイド社によると、2007年9月時点で世界には8728の空港があり、アジアは1125（うち日本92）の空港を所有している。世界的にみると「空港の所有」と「空港の運営」が一体になっているのが主流であるが、一方で日本は、戦後に国や自治体が空港の土台となる滑走路や航行援助施設を建設した。ところが、空港ターミナルをはじめとする空港施設については、財政難だったために民間資金で整備をしていたという。その結果、日本では国や自治体が空港を所有し、空港の運営は空港ごとに設けられたターミナルビルが担当した。このような上下分離型（「空港の所有」と「空港の運営」が一体ではないこと）は世界的に稀なやり方だそう。また空港経営において、売り上げの二本柱となるのが、航空系収入（着陸料や施設使用料）と非航空系収入（免税店や物販、飲食店、駐車場などの商業収入）である。しかし、巨額になってしまう空港の建設・維持費を早期に回収しようとする、航空系収入の拡大が重要になるため、日本の拠点となる空港における着陸料は世界的にみても割高な水準であるのが現状だ。

空港といえば、「地方や海外に行くための交通手段の一つ」という考え方が一般的なものだと思う。空港に必要とされているものとはいったいなんだろうか。調べてみたところ、①航空機を安全・確実・迅速に離着陸させる能力、②旅客や荷物の積み降ろしを安全確実に行う能力、旅客の扱いについては快適性も要求される、③航空機の整備・補給能力、④旅客・荷物を市街中心部へ（または市街中心部から）遅滞無く送る能力、⑤国際空港では、出入国管理・通関・検疫（CIQ）に関する業務、と空港に要求される機能というのは5つあることがわかった。この中で私たちが一番関係してくるものは②の“旅客の扱いについては快適性も要求される”という部分だろう。この“快適性”というものが次の空港での過ごし方に関わってくる。

空港での過ごし方といえば、携帯を使って誰かと「メール」や「電話」をしたり、自身が持っているオーディオ機器（iPodや携帯電話など）で音楽を聴いたり、本を読んだりするというのが一般的ではないだろうか。“空港”という空間では、時間の使い方が限られてしまうが、最近の空港では、私たち利用客が‘搭乗時間までより快適に過ごす’ということが重視され始めている。そのため、書店や売店（薬局など）だけでなく、規模の大きい空港に関しては、



小さな子どもが遊べるキッズルームやインターネットラウンジ、喫茶店、リラクゼーションサロン、仮眠室、シャワールームなど、以前では考えられない設備が整っている。今回のスタディツアーでは、空港で過ごす時間が多かったのでいろいろなものを観察してみた。

まず、日本の空港（広島空港・国際線）では売店でお土産等を買っている搭乗客、パンを買いテレビを見ながら朝食を食べているサラリーマンがいた。人々を観察していると、やはり旅行慣れしている人、そうではない人の区別がはっきりわかる。早朝だったのも関係していると思うが、団体客が多く、それぞれこれからの旅行に対する期待感について話していた。個人で行動している人が少なかったが、私を含めた一人での場合、やはりオーディオ機器を使って搭乗時間を待つ人が多かった。また、空港の中には職員や搭乗客のほかには見送りに来ている人しか見当たらなかった。

では韓国の空港（仁川国際空港）はどうだろうか。日本の空港（広島空港・国際線）とは比較にならないほど広く、空港内を歩き回る職員数が圧倒的に多かった。またテロ対策なのか、銃を持ちながら巡回する警備員も多く、警備員を見つけると少し重苦しい雰囲気に飲まれそうになった。空港内には食事をするレストランのような場所やカフェ、コンビニの近くに大きなテレビがあった。空港の端に設置してあるテレビの前には、明らかに旅行客ではない人々が椅子の上に寝そべりテレビを観たり、寝たりとマイペースに過ごしていた。また他のテレビの前には昼休憩中の職員が寝たりテレビを観ながら談笑したりと、やはり自分たちの空間を作り思い思いの時間を過ごしていた。携帯を使い電話をしている人や、オーディオ機器で音楽を聴いている人も多かった。空港に恋人を迎えに来て、出てきた恋人に走って抱きつくカップルや、待っている彼女に花束を渡す彼氏もおり、まるで映画のワンシーンを見ているようだった。

設備については、インターネットラウンジや韓国伝統文化センターというものが目に付いた。インターネットは10分500ウォン（約40円）で少し高く感じた。一方で、搭乗口に向かう途中にある韓国伝統文化センターでは、韓国の伝統靴をモチーフにしたストラップを無料で作ることが出来るので、搭乗時間を待つ外国人が多く利用していた。



今回空港で過ごす時間は、日本より韓国のほうが長かった。日本の空港では早朝だったせいもあるが、何もすることがなく愛用の iPod 片手に朝食を食べ、ひたすら人間観察をしていた。韓国でも iPod が必要になるのかと思っていたが、人間観察をしていくうちに iPod よりもその場の“音”の方が面白いことに気づいた。恋人たちが楽しげに話す声や親子が再会を喜ぶ声、仕事に疲れきった職員の声など、普段では気づかない“音”に気づくことが出来た。拳銃を持ちながら巡回し、重々しい雰囲気を醸し出す警備員がいる反面、家族・恋人との再会の喜びを確かめ合う心温まる光景もある。この二つの異なる空間を合わせて持っているのが“空港”なのではないだろうか。

参考 URL

○世界の空港・空港事情を追う-空港-フォーラム福岡（2009年9月6日 閲覧可能）

http://www.forum-fukuoka.com/airport/fukuoka/23_1823/

○空港とは

<http://www.weblio.jp/content/%E7%A9%BA%E6%B8%AF>

캠퍼스

낭만 과 불안 사이

가을 잎 찬 바람에 흩어져 날리면 캠퍼스 잔디 위엔 또 다시/ 황금물결 잊을 수 없는 얼굴 얼굴
얼굴들 루루루루 꽃이 지네 루루루루 가을이 가네/ 하늘에 조각구름, 무정한 세월이여 꽃잎이
떨어지니 젊음도 곧 가겠지/ 머물 수 없는 시절 시절 시절 시절들/루루루루 세월이 가네 루루루루
젊음도 가네

— 송창식 노래, 「날이 갈수록」

의 노래는 1975 년 개봉된 영화 「바보들의 행진」에 삽입되었던 곡이다. 이 영화는 한국의 영화사에서 캠퍼스를 모대로 대학생들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킨 첫 작품이었다. 그런데 위의 가사에서 드러나듯이 그 분위기는 사뭇 음울하다. 유신 독재의 억압이 가중 되던 시절, 저항이라고 해보아야 기껏 장발 단속을 뿌리치고 도망가는 정도로밖에 표출되지 않는다. 통기타를 들고 교외로 놀러나가는 것도 규제의 대상이 되었던 상황에서, 대학생들은 학과별로 맥주 많이 마시기 대회를 벌이면서 괴로운 현실을 잊어려 한다. 결국 주인공들은 답답하고 허무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자, 떠나자, 동해 바다로를 외치며 ‘고래 사냥에 나선다. 이는 당시 대학생들의 사회적 심리적 한계 상황과 자유에 대한 열망을 반영했다. 그런데 1980 년대에 접어들어 대학생들의 기세는 돌변한다. 그 들은 권력에 용맹스럽게 도전하면서 광범위한 정치 세력을 형성하였고, 캠퍼스는 사회 변혁의 진원지가 되었다. 중앙일보사가 한국의 산업화 이후 40 년 역사와 한국인의 삶을 추적한 『아!대한민국』이라는 책에서는 당시의 상황을 1970 년대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80 년대 등장한 386 세대의 모습은 달랐다. 고뇌의 본질은 비슷했으나 저형 정신은 전 세대보다 격렬했고, 행위도 더 도전적이었다. 강한 동질성을 바탕으로 대중을 조직화함으로써 변혁의 주체가 될수 있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앞세운 병태의 후예들은 민주화를 이루어내며 ‘바보들의 행진’을 마무리한다.”

지만 1990 년대에 들어서면서 그 맹렬한 기상은 희미해져갔다. 대학생들이 사회 변혁의 주역으로 나섰던 1980 년대의 분위기와는 판이하게 이제 청년들은 신용 불량,의 굴레와 실업의 악몽에 가위눌리고 있다. 역사의 방향을 리드했던 위치에서 이제는 거꾸로 사회의 짐이 되어버린 듯한 느낌이다. 30 년 전 젊은이들의 심경에 드리웠던 음울한 기운이 격세유전으로 재현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달라진 상황은 고뇌의 진원지가 정치가 아닌 경제라는 점, 그리고 이제는 멀리 동해까지 도망가지 않아도 거대한 정보 세계와 현란한 소비문화에 빠져 현실을 잠시 잊을 수 있다는 점이다.

기에 덧붙여 연애는 점점 더 매혹적인 은둔처가 되어준다. 커플들은 캠퍼스 안팎에서 다채로운 러브 스토리의 각본을 쓰고 연출한다. 입시 지옥에서 벗어나 직업 전선으로 나아가기 전 4~5 년의 짧은 청춘을 한껏 예찬한다. 한때 캠퍼스를 배경으로 하여 유행처럼 제작되었던 처춘 시트콤들은 솜사탕 같은 연애담이 주를 이루었다. 물론 그것은 실제 대학생들의 모습과 상당히 괴리된 면이 있었다. 학교 공부의 어려움과 취직에 대한 중압감을 달콤한 연애 감정으로 가뿐하게 지워버릴 수 있는 대학생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렇긴 해도 캠퍼스라는 공간은 언제나 다분히 낭만적인 이미지로 체감된다. 그곳은 십대 청소년들에게는 동경의 대상이고, 졸업생들에게는 추억의 장소이다. 졸업식보다 중요한 졸업식기념사진, 그리고 특히 여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졸업 앨범 사진도 바로 캠퍼스의 아름다운 경관을 배경으로 하여 촬영되는 것이 기에 의미가 있다. 사회적으로도 캠퍼스는 각별한 위상을 차지하는 듯하다. 수도권 전철역 이름 가운데 대학 이름이 들어간 것이 무려 20 여 개나되는데, 이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현상이다. 대학 간판이 인생의 로드맵을 만드는 데 결정적인 ‘랜드마크’가 되어온 현실이 우리의 공간 지각에도 그대로 투영된 것일까. 사실은 대학들이 자신의 이름을 조금이라도 더 알리기 위해 애쓴 결과이다. 또 실제로 한국의 캠퍼스에는 경관 그 자체로 매우 훌륭한 명소들이 많다. 정신없이 변모하는 도시 속에서 대학의 교정은 고궁이나 숲처럼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 느긋하게 시간을 음미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래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캠퍼스는 계절을 따라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공원이 되어준다.

그런데 최근 많은 캠퍼스들이 아담한 정취를 잃어가고 있다. 숲과 오솔길이 없어지고 그 자리에 높은 건물이 들어선다. 대학의 몸집이 커지면서 공간도 확장되고 복잡해진다. 대학들은 저마다 캠퍼스의 획기적인 개발을 통해서 위세를 떨치려 한다. 대학 내에서도 각 기구들 사이에 규모의 경쟁이 벌어지고 산학 협동이라는 명목하에 계속 새로운 건물들을 세운다. 그 가운데 역사에 길이 남을 만큼 기념비적인 건축물은 찾아보기 어렵고, 그 대신 가지각 색의 시시한 건물들만 곳곳에 자꾸 세워진다. 전체적으로 캠퍼스는 빠른 속도로 그리고 난잡한 몰골로 변신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서울에 있는 대학들 가운데는 크고 작은 산을 끼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1990 년대 이후 난 개발이 진행되면서 수많은 녹지와 산책로가 사라져갔다. 그런데도 오랫동안 대학은 도시계획이나 환경 정책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었다. 2000 년에 들어서 뒤늦게 건교부는 도시계획 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대학도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그 효력이 실제로 발휘되고 있는지는 의심스럽다.

그렇듯 급변하는 캠퍼스에서는 재학생들조차 이방인이 되어가는 듯하다. 외부에서 학교를 방문한 이들이 학생들에게 어떤 건물의 위치를 물어보면 모른다는 대답이 점점 더 많이 나온다. 교내의 건물 이름과 지리 정보에 가장 밝은 사람은 엉뚱하게도 주차

관리 용역업체 직원, 그리고 인근의 음식점 배달부들이다. 그러므로 앞장 「학교」에서 언급했던 잠재적 커리큘럼이라는 관점에서 지금 대학은 건축에 어떤 교육 철학을 담고 있는지 자문하게 된다. 난개발 속에 미아가 되어가는 대학생들에게 대학이라는 말은 추상명사로 변해갈 것이며 오랜만에 모교를 방문한 졸업생들은 학창 시절의 억이 담긴 풍경이 사라져버렸음을 아쉬워하게 될 것이다. 대학마다 재정의 빈약함을 소하면서 동문들에게 후원금을 요청하고 있는데, 정작 그들이 애교심을 느끼게 할 한 상징자원은 그렇게 훼손당하고 있는 것이다. 학 조직이 비대해지고 공간이 변모하면서 학생과 학생, 교수와 학생 사이의 관계도 점 소원해진다. 대학생들이 가장 소통하기 어려워하는 상대가 누구인지 강의실에서 어분 적이 있는데, 놀랍게도 교수라는 대답이 가장 많이 나왔다. 왜 그렇게 생각할까. 곰이 생각해보니 교수와 학생 간의 접촉면이 너무 비좁다. 캠퍼스 안에서 교수와 생이 강의실 이외에서 편안하게 만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유 공간은 거의 없다. 계실, 식당, 체육관, 벤치 등 어디에서도 교수와 학생은 섞이지 못하다. 그나마 학원생들은 연구실이나 교수 식당 등지에서 교수들과 시간을 함께하는 경우가 기는 하지만 학부생들은 그런 기회가 거의 없다. 대학이 젊은이들에게 역동적인 자기 성의 공간이 되기 어려운 것이다. 캠퍼스가 배움과 성장의 생태계를 담보하는 그릇이 지 못하면, 대학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배움은 이제 젊은이들만의 독점물이 아닌 시대로 가고 있다. 미국이나 본에서는 노후 안식처로 대학 주변 마을 collegetown 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학이 제공하는 다양한 강의를 듣고 캠퍼스 안에서 벌어지는 각종 문화 행사를 즐길 있다는 매력 때문이다. 몇몇 대학들은 그러한 수요에 부응하여 별도의 주택 단지를 조성하기도 한다. 최근 국에서는 몇 년 사이에 곳곳에서 평생학습도시 가 제창되고 있는데, 대학은 거점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을 듯하다. 또한 그렇게 된다면 정원 미달로 존폐의 로에 놓이는 많은 지방 대학들에게 새로운 학생 발굴의 돌파구가 열릴 것이다. 를 위해서 대학은 캠퍼스의 근린 지역을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자체와 유기적 연계를 맺어 은퇴자들이 제 2 의 인생을 영위할 수 있는 멋진 삶의 전을 만들어내고 그들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야호로 상아탑이 고령화 사회의 대안적 생활양식 창출에도 한몫하는 것이다. 림으로써 대학은 여러 세대가 공존하면서 생각과 경험을 나누는 지성의 전당이 된다.

최근 일부 대학들은 담장 허물기를 추진하고 있다. 캠퍼스를 지역사회에 개방하면서 민들에게 녹지나 정자 등 휴식 공간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이다. 담장 허물기에 해서는 6 부의 「공원」에서도 언급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도심지의 공원을 확보하기 해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학 이외에도 개인 주택이나 원, 관공서, 문화회관 등에도 적용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과 권유로 진행되는 업이지만,

이를 계기로 대학은 사회와 새롭게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시 지옥의 연장선상에서 취업 준비에 계속 시달리는 대학생들, 프로젝트 수주와 고서 작성에 매달리느라 정신이 없는 교수들, 그들이 학문적인 사유를 통해 새로운 계의 원리를 탐구하는 열정을 되찾을 수 있을까. 캠퍼스 내에 그나마 남아 있는 그마한 산책로, 장을 허물어 생겨나는 벤치에서 조용히 사색하는 대학인들을 만나고 싶다. 부 대학에서 진행되는 에코 캠퍼스 운동도 궁극적으로 대안적인 삶의 모습을 상하고 실현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30 여 년 전 영화 속의 대학생들은 외로움과 무력감에 시달리다가 고개를 잡으려 해로 떠났다. 지금 대학생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을 잊으려 자폐적인 밀실에 둔하면서 정보의 망망대해에서 주책없이 표류하기 일쑤이다. 젊은이들이 패기와 념을 가지고 인생과 세상의 드넓은 부루 오션 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기성세대가 전을 제시해주어야 한다. 젊다는 것은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퍼스는 젊은이들이 지성을 배양하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상상력을 커우는 간이다. 문제투성이의 갑갑한 현실을 창조적인 모험의 기회로 함을 수 있는 용기가 기에서 움튼다. 1980 년대에 유행했던 노래 「꿈을 먹는 젊은이」 (남궁옥분) 의 가사 한 이 오늘 새롭게 들린다. ‘ 푸른 나래 펴고 꿈을 먹는 젊은이여, 성난 파도처럼 이 리를 즐겨요’ .

학이 환경에 끼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학인들이 펼치는 사회 운동. 퍼스에서 소비되는 막대한 양의 물과 에너지, 거기에서 배출되는 각종 쓰레기와 해화학물질을 모니터링하면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에서는 1990 년대 초반부터 시작된 이 운동은 한국에서 1990 년대 후반에 본격화 었다. 대표적으로 경북대에서 시작한 대학 내 자동판매기 없애기 운동이 중앙대와 공회대에서 자판기의 자기컵을 없애기 위한 자기컵 갖기 운동으로 확대되고, 구 영남대 환경동아리 ‘에코스트리트’ 와 대학인 ‘녹색네트워크’ 는 자동차 없는 색캠퍼스를 내걸고 인 라인 스케이트 페스티벌을 열기도 하였다. 2000 년대 어와서는 학교 당국이나 교수 사회 내에서도 녹색캠퍼스에 대한 관심과 활동이 아졌다 (김지영 「에코 캠퍼스 운동의 현황 및 과제」

아무도 목표로 삼은 적이 없고 거대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미개척 시장을 하는 경제학 용어로서 가치의 혁신을 통해 경쟁자가 없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있음을 강조한다. 이와 반대말인 레드 오션은 이미 존재하는 시장으로 점유율 쟁에서 앞서야 할 뿐 아니라 기존 업체는 물론 신생 업체와도 경쟁하여 살아남아야 는 영역이다.

(翻訳)

秋の葉が冷たい風に散らばり飛ばされると、キャンパスの芝の上には、また再び黄金の波/忘れられない顔
顔 顔など ルルルル 花が散る ルルルル 秋がいく/ 空に雲の切れ, 無情な年月であり花の葉が落ちる
と若さもすぐすぎるよ/とまることができない時 時 時 時など ルルルル年月が過ぎるよ ルルルル若さ
もすぎるよ 日がすぎるほど

上の歌は 1975 年ロードショーされた映画「馬鹿達の行進」に挿入された曲だ。この映画は韓国の映画社でキャンパスを舞台で大学生達を主人公として登場させた初の作品だった。ところで上の歌詞で現れるようにその雰囲気は全く陰鬱だ。維持独裁の抑圧が増した時代, 抵抗だとしてもせいぜいのところ長髪を取り締まることを振り放して逃げ出すなった状況で, 大学生達は学科別でビールを多く飲む機会を開きながら苦しい現実を忘れようとする。結局主人公達は憂鬱なむなしい心を紛らわすため さあ, 出よう, 日本海の海を叫び、クジラ狩りに出かける。これは当時大学生達の社会的心理的限界 状況と自由について熱望を反映した。ところが 1980 年代にさしかかって大学生達の意気込みは急変する。それらは権力が勇敢な挑戦しながら広範囲な政治勢力を形成した, キャンパスは社会変革の震源地になった。中央日報社が韓国の産業化以後 40 年の歴史と韓国人の人生を追跡した「あ、大韓民国」という本では当時の状況を 1970 年代と比較して次のように要約している。“80 年代登場した 386 世代の姿は違った。苦悩の本質は似ていたが抵抗精神は私は世代より激烈だった, 行為ももっと挑戦的だった。強い同質性を素質で大衆を組織化することによって変革の主体になった。「イムのための行進曲」を先立った病状の子孫達は民主化を名出ししながら‘馬鹿達の行進’を締めくくる。”

しかし 1990 年代に入ると同時にその激しい気性はかすかになっていった。大学生達が社会変革の主役で出た 1980 年代の雰囲気とはまったく違うように今に青年達は信用不良の束縛と失業の悪夢にうなされている。歴史の方向をリードした位置から今は逆に社会の負担になってしまったような感じだ。30 年前若者達の心境に伝えた陰鬱な気運が隔世遺伝によって再現されているのかもしれない。ところが根本的で違った状況は苦悩の震源地が政治ではなく経済という点, そして今ははるかに遠く日本海まで逃亡しなくても巨大な情報世界と絢爛した消費文化にはまり現実をしばらく忘れることができる点だ。

そこに付け加えて恋愛はさらに魅惑的な陰鬱先になってくれる。カップル達はキャンパス外で多彩なラブストーリーの脚本を書いて演出する。入試地獄から抜けだして職業戦線へ出る前 4～5 年の若い青春をできる限り礼賛する。ある時キャンパスを背景にして流行のように制作された青春コメディーらは綿あめのような恋愛談が主であった。もちろんそれは実際大学生達の姿とかなり面があった。学校の勉強の難しさと就職について重圧感を甘ったるい恋愛感情で軽くなくしてしまうことができる大学生はほとんどいないためだ。それにしてもキャンパスという空間はいつも随分ロマン的なイメージで体感される。そこ

は 10 代青少年には憧れの的であり、卒業生には思い出の場所だ。卒業式より重要な卒業式記念写真、そして特に女学生にとっても重要な卒業アルバム写真もすぐキャンパスの美しい景観を背景にして撮影されることに意味がある。社会的でもキャンパスは格別な位相を占めているようだ。首都圏 電车站 名のなかで大学名が入っているのがだいたい 20 あまりになるので、これは違う国で見つけることが難しい現状だ。大学看板が人生の Loadmap を作っているので決定的なランドマークになってきた現実が私たちの空間知覚にもそのまま投影されるのか。実際は大学生達が自身の名を少しでももっと知らせるために苦勞した結果だ。また実際に韓国のキャンパスは景観それ自体にとっても立派な名所が多い。我を忘れ変貌している都市内で大学の校庭はそれ自体にとっても立派な名所が多い。我を忘れ変貌している都市内で大学の校庭はそれ自体にとっても立派な名所が多い。我を忘れ変貌している都市内で大学の校庭はそれで学生達だけでなく市民達にもキャンパスは季節に従って自然を満喫できる公園になってくれる。

ところが最近多いキャンパスなどがシックな趣きをなくしていつている。森と細道がなくなつてその場所に高い建物が建っている。大学の姿が広がりながら空間も拡張されて複雑になる。大学などは各ごとキャンパスの画期的な開発を通して威勢をふっている。大学内でも各 機構などの間で規模の競争が広がって産学協同では名目にずっと新しい建物などをたてる。その中で歴史に長く残るほど記念碑的な建築物を見つけるのが難しく、その代わり様々な色のくだらない建物だけ あちこちによく立てられる。全体的にキャンパスは速い速度で、そして難解な姿で返信しているのだ。特にソウルにある大学などの中は大きくて小さい山を挟んでいる場合が多いので、長い間大学は都市計画や環境政策の死角地帯で放置されていった。2000 年に入つて遅すぎる建設交通部は都市計画施設基準に関して規定を改定する過程で大学も対象に含ませることで決定した。しかしその効力が実際に発揮されているのかは疑わしい。

そのように急変するキャンパスでは在学生達さえ異邦人になっていつているようだ。外部から学校を訪問したこれらが学生達にどんな建物の位置を聞いてみると分からないという返事がだんだん多く出てくる。校内の建物の名と地理情報に最も詳しい人はとんでもなく駐在管理用役企業体職員、そして近隣の飲食店配達部などだ。したがって真っ先に「学校」で言及した滞在的カリキュラムという観点から今 大学は建築にどんな教育哲学をこめているのか自問するようになる。難開発の中で迷子になっている大学生達に大学という言葉は抽象名詞で変わっているので久々に母校を訪問した卒業生達は学校時代の思い出が込められた風景が消えてしまったことを名残惜しくなるのだ。大学より貧弱さを訴えながら同窓達に後援金を要請しているので本来それらが愛校心を感じるに値する象徴を志願はするように毀損されているのだ。大学組織が肥大になって空間が変貌されながら学生と学生、教授と学生との関係もだんだん念願される。大学生達が最も疎通しにくい相手が誰なのか会議室で訪ねてみたことがあるのですが 驚くべき教授には返事が最も多く出てくる。なぜそう考えるのか。じっくり考えてみるのに教授と学生間の接触面がとても狭苦し

い。キャンパス内で教授と学生が講義室以外で楽に会う機会を分かち合うことができる共存空間はほとんどない。休憩室 食堂 体育館 ベンチなどどこでも教授と学生は混じれない。それさえも大学院生達は研究室や教授 食堂などの地で教授達と時間を共にする場合があるにはしかし学部生達はそんな機会がほとんどない。大学が若者達に力動的な自己の形成の空間になることが難しいのだ。キャンパスが学びと成長の生態系を保障するお手本になることができないなら大学はずっと可能な発展を企めないのだ。

ところが学びは今、若者達だけの独占物でなく時代でいっている。アメリカや日本では老朽安息の場として大学周辺村 college town が新しく浮かんでいる。大学が提供する多様な講義を聞いてキャンパス内で広がる各種文化行事を楽しむことができる魅力のためである。若干大学などはそんな需要に添って別途の住宅団地を造成したりもする。最近韓国では何年の間であちこちで生涯学習都市に提供されているので、大学はその拠点のなかで一つになることができるようだ。またそのようになるなら定員割れで存廃の岐路に置かれた多くの地方大学生達に新しい学生発掘の突破口が開かれるのだ。このため大学はキャンパスの近隣地域をよく立ち寄ってみる必要がある。知者型と有機的関係を結んで隠退者達が第2の人生を営むことができる素敵な人生の基盤を作りあげてそれらで生涯学習の機会を効果的に提供することができるのだ。まさに象牙の塔が高齢化社会の代案的生活様式創出にも利益するのだ。それで大学は様々な世代が共存しながら考えと経験を分かち合う知性の殿堂になる。

最近一部大学生達は垣根を壊すことを推進している。キャンパスは地域社会で開放されながら住民達に緑地や丁子など休息空間を提供するという趣旨からだ。垣根の取り壊しについては 6 部の公園でも言及されるので地方自治団体が都市地の公園を確保するために事業費の一部を支払いながら推進する事業で大学以外でも個人住宅や病院 官公署 文化会館などにも適用している。政府の政策と勧誘で進行する事業だが、これを契機に大学は社会と新たに関係を結ぶことができるかもしれない。入試地獄の延長戦上で就業準備にずっと苦しめられる大学生達、プロジェクト水柱と見て作成に頼るせいで我を忘れる教授ら、それらが学問的な理由を通して新しい世界の原理を探索する熱情を取り残すのだろうか。キャンパス内でそれさえも残っている小さめな散歩路、垣根を取り壊してできるベンチで静かに思索する大学人達に会いたい。一部大学で進行されるエコキャンパス運動も究極的で代案的な人生の姿を構成して実現する方向として進行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

30 年あまり前 映画の中で大学生達は寂しさと無力感で苦しめられクジラをつかみに動いていった。今、大学生達は未来について不安を忘れようと自閉的な密室に隠遁されながら情報の茫々たる大海でみだりに漂流するのが常だ。若者達が意気込みと新年をもって人生と世界の広々とした blue ocean で挑戦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気力が旺盛な世代が vision を提示しておかなければならない。若いというのはいつもまた始めることができることを意味する。キャンパスは若者達が知性を培いながら見えていない世界について想像力を伸ばす空間だ。問題だらけの息詰まる現実を創造的な冒険の機会としてみなすことが

できる勇気がそこで芽生える。1980 年代に流行した歌「夢を抱く若者」の歌詞一つのものが今日新たに耳にする。 青い翼を広げ、夢を抱く若者で憤る波のように、この場所を好みます。

大学が環境に与える悪影響を最小化するために大学生達が広げる社会運動。キャンパスで消費される莫大な量と物とエネルギー そこから排出される各種ごみと有害化学物質をモニタリングしながら環境親和的な生活様式を実現するのを目標とする。外国では 1990 年代初盤から始まったこの運動は韓国で 1990 年代後半に本格化になった。代表的に慶北大で始めた大学内自動販売あるのをなくすため運動が中央大と成功会大で自販機の自分のコップをなくすための自分のコップを持つ運動で拡大されてテグ慶南大環境サークルと大学である緑地ネットワークは自動車のない

緑地キャンパスを掲げてインラインスケートフェスティバル熱であった。2000 年代サークルでは学校当局や教授社会内でも緑地キャンパスについて関心と活動が高くなった（キムジョン「キャンパス運動の現況および課題」）

誰も目標にした事がなくて巨大な成長潜在力を持っている未開拓市場を意味する経済学用語として価値の革新を通じて競争者がいない新しい領域を開拓することがあることを強調する。これと反意語であるレッドオーシャンはすでに存在する市場でシェア競争で前に進まなければならないのみならず既存業社はもちろん新生業社とも競争して生き残らなければならない領域だ。

日本と韓国のキャンパスライフについて

佐志原 彩華

私が考えるキャンパスライフとは日韓も似ている部分が多いのではないだろうか考える。

厳しい受験戦争を終えた高校生は大学に入学し、そこで4年間在学し、様々なことを学ぶ。しかし日本と韓国では大学進学率が大幅に異なる。日本は大学全入時代に入り、大学の入学者数が志願者数と同じになるか上回る程度で数字上では入学はしやすくなったものの卒業は難しいのではないかと考える。いまだ大学進学率は日本が5割程度に対し韓国が8割以上であるのである。少子化や経済的理由によって高等学校卒業や大学中退者も増える傾向にある。

そして大学生は勉強に励むことはもちろんなことなのだが、自分の好きなスポーツに励み、アルバイトをして娯楽費などを貯め、自分の趣味や遊びなどに使い、さまざまな目的で大学生活を送っていることが現状である。また日本では親元を離れて一人暮らしをしている学生も多いため、自由な時間を過ごすことができる。

また韓国はアルバイトをするが、人にもよるが、そこまで真剣にはしていないと感じる。日本と同様にやはり学生なので勉強が第一だと考えられる。アルバイトで得たお金の用途については、学費の足しや娯楽費、貯金など似ている部分もある。学校が終わると図書館へ行く学生が多く、平日は夜遅くまで勉強し、試験期間では朝から図書館の前に長蛇の列が並び、席が埋まるほどだ。日本とは違い、勉強に対する意欲はとてもあるように考えられる。また韓国では日本と違って学生が一人暮らしすることはあまりなく、学費でお金がかかる分、寮を利用するなど、親しい友達と2人で暮らすという傾向がある。

そして日本も韓国も学生生活は、本来それぞれの学部属する者がそれぞれの専門分野の学問をより深く修めるために学業に励む場であることが本来の姿であると考えられる。しかし現実ではそのような姿勢で臨んでいない学生もいるだろうと考える。

大学では高等学校とは、はるかに授業カリキュラムが大きく異なる。日本とは違い、韓国では高等学校の頃は学年があがるにつれて大学入試のために勉強に励む姿勢は凄まじいのである。そして、もちろん学院(塾)に通う生徒も多い。近年、大学入試に論述試験を出す大学が増えている。そこで暗記・注入式教育を廃止し、創造的な思考や論理的表現力を育てるため、新しくできた論述学院に通い模範できる答案を学んだり、また親子で美術館に行き、そこで良い絵を見せて感性を養おうとするほど、韓国は日頃から子どもの教育に対する熱はとて熱いと考えられる。

大学の講義では、日本も韓国も必修科目や資格修得のための授業以外は好きな授業を選び、好きなように時間割を組むことができ、講義を受けることもできる。実際に授業の選び方は単位を簡単に取得できる授業を選ぶ学生が多いのではないだろうか。

生活面においては、日本も韓国も自分のペースに合わせて生活する場合が多く、やは

り自分の行動には責任をもって行動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考えられる。大学生のほとんどは成人しているため、社会に出た時に必要な知識も、学生の中に学んでおくことが最も理想的である。

なかでも人間関係においては、県大では同学年や学年をこえての交流は授業やサークル以外ではほとんどないを考える。サークルや部活、研究室などで顔見知りにならなければ、大学生活の中で一言も話したことがない場合も多いはずだ。授業外では学生同士が関わる人は当然限られていってしまい、そして学年があがるとゼミ単位で動くことになり、同じ学科でも交流が少なくなっていってしまうことが考えられる。私はそこから学生の交流が少ないことから、行動範囲が狭まってしまうため、活発的でないのだろうかと感じる。私が最近受けた講義はグループ単位で活動する授業であった。模造紙とペンを使い、グループで何かこのことについて話し合いをする時に皆が公平に意見を述べられているというのは少ないと考える。またグループワークをする場合には、グループ内でリーダーや書記、司会、発表係と各自割り当てる。決められた時間内で話し合い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まず同じグループの名前と学年を把握し、この授業のなかで「自分がある組織の中でどのような位置にいるか」というテーマでグループ別に話し合ったところ、自分と同じような思いを感じているということがはっきりと分かった。この授業では普段あまり関わらない人とも互いに意見を共有することができ、そして他のグループや先生がどのような考えをもっているのかということも分かり、学年をこえて交流ができるうえに考えていることなどが鮮明になったので非常に楽しく良かったと感じる授業であった。

学生と教員の関係も専攻や教育環境にもよるが、それほど深い関係になることは少ない。高校時代のように授業なども親身になって教えるのではなく、ただ淡々と授業を進行する場合も多い。しかしゼミなどが決まると、1年間もの間を過ごすことになるので仲も次第に深まってくる。

韓国では人間関係においては、日本とは違う部分がある。私が韓国に訪れた時、韓国人はとても積極的に元気で親しみ深いと感じた。日本人の特徴としては控えめで初対面では人見知りをする傾向があると感じる。お互いの親睦を深めるために、お酒を飲みながら会話をしたりゲームをしたりする。韓国ではこれを **Membership Training** という。先輩と後輩が仲を深めるためにこのような活動がされている。それによって先輩と回数を重ね、やっとのことで仲を深めあうことができる。韓国人にとってはやはり控え目に見える日本人とは仲良くするまでの時間が長いと感じるのではないのではないかと感じた。そして何よりも仲が深まったとしても上下関係の間でも礼儀はきちんとわきまえている。目上の人の前では、喫煙も控えられており、やはり上下関係の間では韓国では儒教の影響からか日本よりもはるかに厳しく感じられる。

そして大学4年になると、日本も韓国も就職活動が本格化される。さらに日本よりも韓国の方がインターンシップや学生がとても積極的だという。韓国では特に景気が悪け

れば悪いほど、良い大学に入って仕事もお金もたくさん貰える方が良い、有名な会社に入社したいので自分も同じ会社で働きたいなど思う学生が多い傾向があると考えられる。また大学生はもっと勉強に真剣に励みたいので大学院へ行ったり、語学留学へ行ったりする場合も多いという。

日本と韓国での大学の違いは似ている部分は確かに多いと感じられた。しかし勉強に対する姿勢は韓国人のほうが、とても真剣に取り組んでいると考える。行動などを見ても一度決めたらこの方法で進むというように、日本人よりも目的意識が強いと感じられる。なお人間関係においても興味深かったのは、韓国ではお酒を飲みながら互いの距離を縮めていき、仲を深めていくことであった。同級生の間でも先輩と後輩の間でも日常的にも礼儀もわきまえつつ、目上の人の前ではそのようなマナーも意識して接している部分はとてもしっかりしていると感じることができた。

더러움, 그 깨끗함에 대하여

가이하게도,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와 함께할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루도 빠짐없이 배설하고 있는 인분에 대해서는 끈덕지게 와면해왔다. 우리가 이처럼 인분의 재순환 문제에 대해서 마치 모래 얼굴을 파묻고 모른 채하려는 타조 같은 태도를 취하는 이유는, 똥이라는 말조차 입에 담기를 싫어하는 사회 정서 때문이다. [……] 하지만 머지않아 우리는 그 문제를 골똘히 다루지 않을 수 없는 시점에 다다르게 될 것이다. 자연계에는 폐기물이란 없다. 그것은 다만 사람들의 이해 부족으로 만들어낸 잘못된 개념일 뿐이다. 잘못된 개념을 없애기 위한 비밀의 열쇠는 우리 인간이 찾아야 한다. 자연은 수천 년 전부터 그 열쇠를 인간에게 전달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때를 기다리고 있다.

—조지프 젠킨스, 『똥 살리기 땅 살리기』 중에서

배설의 장애는 배고픔보다 훨씬 고통스러울 수 있다. 공복(空腹)도 괴롭지만 그것은 때로 오히려 심신을 맑고 활가분하게 하면서 건강한 식욕을 회복시켜준다. 그에 비해 변비 증세는 기(氣)의 흐름을 경직시키면서 만사를 귀찮게 만든다. 또한 배변이 급한데 화장실을 찾지 못하거나 누군가가 너무 오랫동안 변기를 차지하고 있을 때 발을 동동 구르고 얼굴이 창백해진다. 식사 한 끼 정도는 누구나 쉽게 굶을 수 있지만, 설사를 참는 것은 많은 인내심을 요구한다. 해탈을 위해 정진하는 스님들도 화장실을 ‘해우소’라고 부를 만큼 그 근심은 심각하다. 마음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생리적인 욕구가 바로 배변인 것이다. 그리고 사람은 자신의 배설물을 수치스럽게 여긴다. 중한 병에 걸려 대서변을 받아내야 하는 환자는 자존감이 떨어지기 쉬운데, 그 이유는 자신의 배설물을 노출시키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재난이 일어나면 화장실이 절박한 문제로 떠오른다. 미국 뉴올리언즈에 허리케인이 몰아닥쳐 수만 명의 이재민이 슈퍼돔에 대피했을 때 화장실의 상황은 끔찍했다고 전해진다. 2005년 11월 화학 공장 폭발 사고 당시 벤젠으로 식수가 오염된 중국의 하얼빈 시에서도, 도시 곳곳의 공중 화장실이 만원 사태가 되었다. 1995년 일본 고베 대지진 때도 피난민 수용소에서 가장 절실했던 것은 화장실이었다. 도시의 기능이 한꺼번에 붕괴된 상황에서 수세식 화장실은 무용지물이었다. 시민들은 변을 신문지로 싸서 커다란 비닐봉지에 담는 고생을 했다. 학교 운동장에 임시로 파놓은 화장실은 커다란 텐트로 남겨만 구분해놓았을 뿐 그 안에는 칸막이가 없어 이용하기에 대단히 불편했다. 재해 지역에 긴요한 음식이나 침구는 공중에서 비행기로 떨어뜨려줄 수 있지만, 똥은 하늘로 쏘아 올릴 수 없다. 이 비가역성(非可逆性)은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생태학적 진실이다.

인간에게 배설물 처리가 특별히 문제가 되는 까닭은 무엇인가. 정착 생활과 높은 인구밀도 때문이다. 다른 동물들은 아무데나 배변해도 문제가 없다. 널리 돌아다닐 뿐 아니라, 서식지의 밀도가 낮기 때문에 자연의 분해에 맡겨도 되는 것이다. 그에 비해 문명이 탄생한 이후 배설은 인간에게 심각한 과제로 부각되었다. 신석기 시대에 정착을 하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근대 산업도시에 인구가 밀집하게 되면서 공중위생의 확보가 절실했다. 기원전 3000 년경에 이미 수세식 화장실이 등장했고, 현대적인 화장실은 유럽과 미국에서 19 세기 중반에 출현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일제 강점기에 호텔과 백화점을 통해 보급되기 시작했다.

예나 지금이나 누구든 화장실을 가까이하기 싫어한다. 그러면서도 생활 세계 한가운데 둘 수밖에 없는 공간이 바로 화장실이다. 그래서 다른 혐오 시설은 도시의 외곽으로 다 내보낼 수 있어도 화장실만큼은 그렇게 할 스 없다. 오히려 더 가깝게 들어오고 있다. 예전에는 마당 또는 집 바깥에 있던 것이 이제 집 안으로 들어와 방 옆에 붙어 있는 것이다. 웬만큼 평수가 넓은 아파트에는 이제 화장실이 두 칸씩 설치되어, 암방에 작은 화장실이 바로 딸려 있다. 그렇게 되면서 화장실은 집 안에서 가장 깨끗하고 아늑한 공간으로 자리 매김되고 있다. 목욕 시설이 함께 곁들여지면서 화장실은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들어가 새면을 하고 이를 닦으며 하루를 준비하는 곳,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샤워를 하면서 피로를 푸는 휴식 공간이 되었다. 그래서 광고에도 종종 배경으로 등장하고 있을 정도이다. 이렇게 깨끗한 공간으로 바뀔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좌변식 양변기가 보급되면서 불쾌한 냄새를 최소화시킬 뿐만 아니라 순간적으로 분노를 시야에서 사라지게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화장실은 생리적인 욕구만 해결하는 곳이 아니다. 문을 잠그고 변기에 앉으면 완전하게 자기 혼자만의 공간이 된다. 아무런 눈치를 볼 필요 없이 안락하게 머물 수 있는 처소가 화장실이다. 그 철저한 익명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독특한 행위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낙서다. 공중화장실에서 발견된 낙서 몇 개를 보자. ‘긴급 속보! 이순신 사망!!’ 그 밑에 써 있는 글은 ‘알리지 말라 일렀거늘……’이다. 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차례로 써여 있는 경우도 있다. ‘신은 죽었다. -니체-’ ‘너는 죽었다. -신-’ ‘너희 둘 다 죽었다. -청소부 아줌마-’

그렇다. 인터넷이 보급되기 훨씬 전부터 댓글 문화가 형성된 곳이 바로 화장실이다. 그리고 포르노가 대중화되기 전에 음란한 그림들이 적나라하게 그려지고 감상된 곳도 화장실이다. 인터넷이 그러하듯이 화장실도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감추고 온갖 숨은 욕망과 장난기를 마음껏 배설하고 소통하는 공간이다. 또한 심오한 철학(또는 ‘개똥철학’)이나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의견이 오가는 토론장이기도 하다.

그런데 인터넷과 달리 화장실은 철저한 남녀유별의 공간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공간 안에 여성용 칸과 남성용 칸이 함께 있는 화장실이 꽤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런 곳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남녀 사이의 경계가 점점 회미해지는 사회적 추세와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남자들은 소변을 볼 때 다른 사람들과 나란히 서서 용무를 해결한다. 아는 사람들끼리는 간단한 이야기도 주고받는다. 여성들은 친구들끼리 우르르 몰려 들어와 수다를 떨면서 잠시 숨을 돌리기도 한다. 여성들은 남자보다 화장실에 머무는 시간이 약간 더 신데, 상대적으로 변기의 수가 적어 더 오래 기다려야 하는 데다가 용변을 보는 데도 남자보다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이다. 게다가 세면대 앞에서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화장을 고치는 데도 꽤 시간이 걸린다. 거울을 통해 옆 사람의 얼굴을 힐끗힐끗 보아가며 자신의 용모를 추스르는 그곳은 과연 ‘화장실’이다. 다른 한편 같은 여성이면서도 남자 화장실까지 드나들면서 하루 종일 청소를 해야 하는 아주머니들의 표정은 언제나 고단하다.

그렇게 열심히 청소를 하는데도 청결함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곳이 화장실이다. 특히 공중 화장실은 더욱 그러하다. 생각해보면 화장실만이 아니라 공공으로 이용하는 시설들이 대개 소홀하게 관리되는데, 화장실의 경우 그러한 소홀함의 결과가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날 뿐이다. 노후한 데다 제대로 관리도 되지 않고 있는 건물이나 공원, 지방 소도시의 시외버스 터미널 등의 화장실은 매우 낙후한 상태이다. 흔히 눈에 띄는 것으로 휴지통이 바로 코앞에 놓여 있는 데다가 거기에 휴지가 가득 넘쳐나는 모습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바닥에는 흥건하게 물이 고여 있어 보기에다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미끄러짐으로 인한 사고와 악취의 원인이 된다. 이런 모습들은 ‘관광 한국’에 어울리지 않는 풍경이다. 그 외에 시설과 물품의 관리 면에서 늘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많다. 다른 한편 관리 체계만이 아니라 이용자들도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 예를 들어 용변을 보고 나서 손을 씻지 않는 습관은 눈살을 찌푸리게 할 뿐 아니라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다행히 2002 년 월드컵을 치르면서 화장실에 대한 집중적 개선이 이루어졌다. 위국인들이 많이 드나들 만한 공중 화장실 가운데 몇몇 곳은 거의 호텔 수준으로 청결해졌다. 더 나아가 그 자체로 훌륭한 문화공간이라고 할 만큼 멋진 인테리어로 치장된 화장실도 곳곳에 생겨났다. 몇몇 지방자치단체들은 이색적인 화장실을 명소로 내세우면서 자신들의 지방을 홍보하곤 한다. 그런 화장실은 조명에서 향기 그리고 심지어 음향에 이르기까지 공감각적으로 이용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디자인으로 꾸며져 있다. 심리적인 것과 생리적인 것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볼 때, 쾌적한 환경이 빚어내는 기분은 배설 욕구의 해소에도 매우 긍정적인 시능을 할 것이다. 또한 공중 화장실뿐만 아니라 각 가정의 화장실도 많이 깨끗해졌다. 이처럼 우리의 화장실은 날로 청결해지고 있다. 달걀귀신은 이제 흘러간 이야기일 뿐이다.

그러나 정말로 청결해진 것일까. 화장실이 깨끗해질수록 지구는 점점 더러워진다. 가까운 일상 공간은 깔끔해졌지만, 이를 위해 엄청난 물을 소모하고(한 번 내려지는 물은 약 13 리터) 보이지 않는 먼 곳을 오염시켜야 한다. 이러한 삶의 양식에 대해 미국의 문명비평가 웬델 베리 Wendel Bery 는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마실 물에 오줌과 똥을 섞어 넣는 비싼 기술을 개발하고 그 물을 다시 마실 수 있는 물로 정화하는 더 비싼 기술을 발명한다면 미쳤다고 할 것이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최종적으로 남을 분뇨 찌꺼기는 서해(西海) 멀리에 버려지는데, 현재는 그런대로 자연 정화가 되지만 앞으로 중국에서 수세식 화장실이 보편화되면 감당할 수 없는 사태를 맞을지 모른다. 쓰레기와 함께 똥은 현대 문명의 아킬레스건이다.

하지만 오랜 역사 속에서 똥은 자원이었다. 한국에서도 불과 30 여 년 전만 해도 농가에서는 비료 대신 분뇨를 많이 썼다. 과거 일본에소는 에도(江戸)의 각 가정에서 배출되는 배설물을 인근의 농부들이 돈을 주고 사갔는데, 분뇨마다 등급이 있어 다이묘 등 신분이 높은 사람의 집에서 나오는 것일수록 그 영양가가 높았기 때문에 값이 비쌌다. 인분을 소중한 자원으로 여겼던 것은 한국에서도 불과 한 세대 전까지 마찬가지였다. 작가 박완서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시골 뒷간에 대해 공포감부터 갖고 있는 요즘 아이들이 들으면 구역질이 날 소리지만 실제로 우리 고장 뒷간은 팔죽을 먹어도 좋을 만큼 청결했다. [……]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조석으로 뒷간 바닥을 쓸어 선명한 싸리빋자루 자국을 내놓았다. 퇴비와 인분을 거름으로 쓸 때였다. 농토에 비해 인구가 적어 늘 인분이 달렸다. [……] 어떤 때는 송도까지 나가서 인분을 사 오는 수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개성 깍쟁이들은 오줌 똥에다 물을 타서 똥 지게 수효를 늘려서 팔았다고 욕들을 하곤 했다. 그렇게 욕하는 마을 사람 또한 개성 깍쟁이여서 마실 갔다가도 오줌이 마려우면 제 집 발머리에 와서 누지 만의 밭에서 누는 법이 없었다.

—박완서,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중에서

반면 인분을 자원으로 사용하는 대가로 치러야 했던 것은 기생충이었다. 필자는 초등학교를 다닐 때 1 년에 두 차례씩 대변 검사를 받고 회충약을 받아먹던 기억이 있다. 따라서 옛날 방식 그대로 분뇨를 자원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면 대안은 있는가? 앞서 인용한 조지프 젠킨스 Joseph Jenkins 의 『똥 살리기 땅 살리기 The Humanure Handbook』를 보면 톱밥을 활용하여 인분을 위생적으로 퇴비화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화학비료를 줄이면서 땅을 되살릴 수

있다고 한다. 이는 비상사태에 긴급하게 간이 화장실을 만드는 데도 적용되는 방법이다. 이를 거대한 도시에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지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예로부터 똥꿈은 길몽이라는(집 안에 똥이 넘치는 꿈은 크게 부유해질 것이라는 등) 해몽이 있었다. 그만큼 똥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던 것이다. 변소(便所)는 편안(便安)해야 한다. ‘restroom’이라는 말처럼 몸뿐 아니라 마음도 느긋하게 머물 수 있어야 한다. 아닌 게 아니라 우리는 몰래 울고 싶을 때 화장실을 찾는다. 그런데 그 편안함이 지속 가능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분노 처리 시스템이 달라져야 한다. 일찍이 먹는 것과 싸는 것, 깨끗함과 더러움은 피비우스의 띠처럼 상보적으로 맞물려 있었다. 오늘의 문명은 몸과 자연의 순환을 어떻게 실현할 것이다. 화장실에 앉아서 골똘히 생각해보자.

(翻訳)

トイレ 汚なさ、その清潔さについて

不思議にも、私たちは生まれる瞬間から死ぬ時まで、ずっと私たちと共にあるだけでなく、すべての人が 1 日も欠かすことなく排泄している人糞については、頑なに顔をそむけてきた。私たちがこのように人糞の再循環問題について、まるで砂の中に顔を埋めて知らないふりをするダチョウのような態度を取る理由は、糞という言葉さえ口に出すことを嫌う社会情緒のためである。[……] しかし、近々私たちはその問題を真剣に扱わずにはいられない時が来るだろう。自然界には廃棄物はない。それはただ人々の理解不足で作리出された誤った概念だけである。誤った概念をなくすための秘密の鍵は、私たち人間が見つけなければならない。自然は数千年前からその鍵を人間に渡す準備ができており、その時を待っている。

—ジョセフ・ジェンキンス『糞の活用、土地の活用』中より

便秘は空腹よりはるかに辛い。空腹も辛いですが、それは時としてより心身をすっきりと軽やかにさせ、健康的な食欲を回復させてくれる。それに比べて便秘は気の流れを硬直させると同時に物事を煩わしくさせる。また、急に排便したくなったのにトイレを探すことができなったり、誰かがとても長い間便器を占領したりしている時、足をどんどん踏み鳴らして顔を青白くさせる。食事 1 食程度は誰でも簡単に抜くことができるが、下痢を我慢することは多くの忍耐力が要求される。解脱のために精進するお坊さんもトイレを ‘²해우서 (ヘウソ)’ と呼ぶほどその不安は深刻だ。気持ちの問題で克服しがたい生理的な欲求がまさに排便である。そして、人は自分の排泄物を恥ずかしく思う。大きな病院にかかって大小便を提出しなければならない患者は自尊心を傷つけられやすいのだが、その理由は自分の排泄物を見せたくないためである。

² 解憂所。心配事や気がかりを解消する場所。煩惱を解脱する場所。

そのため、災難が起きるとトイレが切実な問題として浮上する。アメリカのニューオーリンズにハリケーンが襲って、水害を受けた数万名の市民がスーパードームに避難した時、トイレの状況は悲惨だったと伝えられた。2005 年 11 月の化学工場爆発事故当時、ベンジ^ンで飲料水が汚染された中国のハルビン市でも、都市の至る所の公衆トイレが満員の事態に陥った。1995 年日本の神戸大地震の時も避難民収容所で最も切実な問題だったのはトイレだった。都市の機能が一度に崩壊した状況で水洗式トイレは無用の物だった。市民たちは便を新聞紙で包んで、大きなビニール袋に入れる苦勞をした。学校の運動場に臨時で設置されたトイレは大きなテントで男女だけ区分しただけで、その中には^{ついたて}衝立がなく、利用するのに非常に不便だった。災害地域に急を要する食べ物や寝具は空中から飛行機で落としてもらうことができるが、糞は空へ撃ち上げることができない。この非可逆性は誰もそむくことができない生態学的真実である。

人間にとって排泄物処理が特に問題になる原因は何なのか。それは定着した生活と高い人口密度のためだ。他の動物たちはどこに排便しても問題ない。広く歩きまわるだけでなく、生息地の密度が低いために自然の分解に委ねてもよいのである。それに比べて文明が誕生した以後、排泄は人間に深刻な課題として浮き彫りになった。新石器時代に住居を持ち始めた時、そして近代産業都市に人口が密集するようになると同時に、公衆衛生の確保が切実になった。紀元前 3000 年頃にすでに水洗式トイレが登場し、現代的なトイレはヨーロッパとアメリカで 19 世紀中盤に出現した。そして、韓国では日本が植民地支配した時代にホテルと百貨店を通して普及され始めた。

昔も今も、誰もがトイレに近づくことを嫌う。そうでありながらも生活世界の中心に置くしかない空間がまさにトイレである。そのため他の嫌悪施設は都市の外にすべて追い出すことができても、トイレだけはそうすることができない。その上、より近くに入り込んでいる。昔は庭や家の外にあったものが今では家の中に入ってきて、部屋の横に設置されているのである。ある程度坪数が広いアパートには現在トイレが 2 つずつ設置され、居間に小さいトイレがついている。そうなると同時にトイレは家の中で最も奇麗で暖かい空間として位置づけられている。入浴施設も一緒に兼ねると同時に、トイレは朝起きてまず始めに入って顔を洗い、歯を磨いて 1 日を準備する所、夜寝床につく前にシャワーを浴びて疲労を取る休息空間になった。そのため広告にもさまざまな背景として登場しているほどだ。このようにきれいな空間として変化してきたことはもちろん、座便式洋便器が普及されると同時に不快なおいを最小限にするだけではなく、瞬間的に糞尿を視界から消す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ったためである。

しかし、トイレは生理的な欲求だけを解決する所ではない。扉を閉めて便器に座ると、安全な自分一人だけの空間になる。何も気を使う必要がなく気楽に居座ることができる場がトイレである。その徹底した匿名の空間で構成される独特な行為の中の一つがまさに落書きだ。公衆トイレで発見した落書きのいくつかを見よう。‘緊急速報！李舜臣死亡!!’ その下を書いてある文字は‘知らせないでと言ったのに……’だ。また、次のような内容が

順番に書かれている場合もある。‘神は死んだ。-ニーチェ-’ ‘お前は死んだ。-神-’ ‘お前たちみんな死んだ。-掃除婦のおばさん-’

そうだ。インターネットが普及するずっと前から書き込み文化が形成された所がまさにトイレである。そしてポルノが大衆化する前に、淫乱な絵などが赤裸々に描かれて鑑賞されるところもトイレである。インターネットがそうであるように、トイレも自分の名前と顔を隠してあらゆる隠れた欲望といったずらを思う存分排泄して意思疎通する空間である。また、深奥な哲学（または‘犬糞（つまらない）哲学’）や社会的 이슈についての意見が往来する討論場でもある。

ところで、インターネットと違ってトイレは徹底した男女有別の空間である。少し前までだけでも一つの空間の中に女性用の空間と男性用の空間が一緒にあるトイレがかなりあったが、最近ではこのような所は急激に少なくなっている。男女間の境が段々かすんでくる社会的な傾向と反対に向かっているのだ。男性たちは小便をするとき、他の人々と並んで立って用を足す。知っている人々同士は簡単な話もやり取りする。女性たちは友達同士どやどやと集まって入ってきておしゃべりをしつつ、しばらくの間一息つくこともある。女性たちは男性よりトイレにいる時間が若干長いのだが、それは相対的に便器の数が少なく、より長く待たなければならないうえに、用を足すのに男性より時間がさらにかかるためだ。その上、洗面台の前で身なりを整えて化粧をするのもかなり時間がかかる。鏡を通して横の人の顔をちらちら見て、自分の容貌をおだてる所はやはり‘トイレ’である。一方では同じ女性であっても、男性のトイレまでしばしば出入りしながら一日中掃除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おばさんたちの表情はいつも疲れている。

そのように一生懸命掃除をしても清潔さを維持しにくい所がトイレだ。特に公衆トイレはなおさらそうだ。考えてみると、トイレだけではなく公共で利用する施設が大体いいかげんに管理されているが、トイレの場合はこのようないいかげんな管理結果があまりにも目立つだけだ。老朽化したうえにろくに管理もできていない建物や公園、地方の小都市の市外バスターミナルなどのトイレはとても後れた状態である。よく目につくものとしてトイレットペーパーの筒がすぐ目の前に置かれているうえに、そこにトイレットペーパーがぎっしりとあふれ出るような光景を目にすることができる。そして底にはいっぱい水が溜まっていて見るにも耐えがたいだけでなく、スリップによる事故と悪臭の原因にもなる。このような光景は‘観光の韓国’にふさわしくない風景だ。その他にも施設と物品の管理面で常に神経を使わなければならない部分が多い。一方で管理体系だけではなく、利用者たちも改善しなければならない点がある。例えば用を足して出て、手を洗わない習慣は眉間にしわを寄せるような問題であるだけでなく、衛生的にも問題があり得る。

幸い 2002 年のワールドカップを執り行うと同時に、トイレについて集中的な改善がなされるようになった。外国人たちがたくさん出入りし得る公衆トイレの中のいくつかはほぼホテルの水準に達するほど清潔になった。さらに進化し、それ自体が立派な文化空間というほど、すばらしいインテリアで飾られたトイレも至る所にできた。いくらかの地方自治

団体は異色のトイレを名所として掲げながら、自分たちの地方を広報しているようだ。そんなトイレは照明から香り、そしてその上、音響に至るまで共感的に利用者たちの心を安らかにしてくれるデザインで飾られている。心理的なものと生理的なものが密接に関連しているとみなす時、快適な環境がもたらすリフレッシュ感は排泄欲求の解消にもとても肯定的な機能を果たすだろう。また、公衆トイレだけでなく各家庭のトイレも非常にきれいになった。このような私たちのトイレは日に日に清潔になっている。³卵鬼神はもう過ぎ去った話である。

しかし、本当に清潔になったのだろうか。トイレがきれいになればなるほど地球は次第に汚くなる。身近な日常の空間はすっきりしたが、このために途方もない水を消耗して（1回に流される水は約 13 リットル）、見えない遠い所を汚染させざるを得ない。このような生活様式についてアメリカの文明批評家のウェンデル・ベリーは次のように批判した。「飲み水に小便と糞を混ぜ入れるコストのかかる技術を開発し、その水を再び飲むことができる水として浄化するさらにコストの高い技術を発明するというのなら気が狂ったと言うだろう。」

下水終末処理場で最終的に残った糞尿のかすは西海の遠くに捨てられるのだが、現在はそれなりに自然浄化されているが、今後中国で水洗式トイレが広く普遍化されると大変な事態を招くかもしれない。ごみと一緒に糞は現代文明のアキレス腱である。

とはいえ、長い歴史の中で糞は資源だった。韓国でもほんの 30 余年前だけをみても、農家では肥料の代わりに糞尿を多く使った。過去日本では江戸の各家庭で排出された排泄物を近隣の農夫たちがお金を払って買って行ったのだが、糞尿ごとに等級があって大名など身分が高い人の家が出たものほど、その栄養価が高かったために価格が高かった。人糞を貴重な資源として考えたのは、韓国でもほんの一世代前までと同じだった。作家パク・ワンソの話をあげてみよう。

田舎のトイレについて怖いという先入観を持っている最近の子どもたちが聞くと吐いてしまいそう話だが、実際に私の故郷のトイレは小豆粥を食べても良いくらい清潔だった。[……] 大人は大人で朝晩にトイレの床を掃いて、はっきりとした萩ほうきの掃いた跡を残しておいた。堆肥と人糞を肥料として使う時代だった。農地に比べて人口が少なく、常に人糞が不足した。ある時は松都（ソンド）まで出て行って人糞を買ってくることもあった。そうするたびに開城（ケソン）のずる賢い商人は小便の糞に水を混ぜて売ったという悪口を言ったりした。そのように悪口を言う村人もまた開城のずる賢い人で、近所へ遊びに行っても小便がしたくなると自宅の畑まで来て他人の畑で大小便をすることはなかった。

—パク・ワンソ、『あんなに多かったシンアは誰が全部食べたのか』中より

³ 卵の顔をしたおばけ。韓国版「トイレの花子さん」。

一方で人糞を資源として使用する代価として払わ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ものは寄生虫だった。筆者は小学校に通っているとき、1年に2回ずつ大便検査を受けて回虫薬をもらって飲んだ記憶がある。したがって、旧方式そのままの糞尿を資源化することは望ましくない。それならば代案はあるのか。前で引用したジョセフ・ジェンキンスの『糞の活用、土地の活用』を見ると、のこくずを活用したり人糞を衛生的に堆肥化したりする方法を実施しているのだが、このようにすると化学肥料を減らすと同時に土地を生き返らせ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これは非常事態に急いで簡易トイレを作る場合も適用される方法である。これを巨大な都市にどのように取り入れることができるか専門的な研究が必要だろう。

昔から糞の夢は吉夢という（家の中に糞があふれる夢は大きく富裕になるだろうとか）夢解きがあった。それほど糞についての恐怖感がなかったのだ。トイレは安らかでなければならない。‘restroom’とは言葉通り体だけではなく心も満足にさせなければならない。本当に私たちはこっそり泣きたいときにトイレを探す。ところで、その安らかさが持続可能なものになるためには、糞尿処理システムが変わらなければならない。かつて食べるものと排泄するもの、きれいさと汚さはメビウスの帯のように相補的にかみ合わさっていた。今日の文明は体と自然の循環をどのように実現するのだろうか。トイレに座って真剣に考えてみよう。

トイレに対する考え方の変化

杉野由可子

1. はじめに

トイレは日常生活になくてはならない存在だ。そこで今回のスタディツアーでは韓国のトイレ事情について調査した。

日本人が韓国を訪れ、最初に戸惑うのはトイレではないだろうか。韓国は日本と違ってトイレットペーパーを流さない。これは、韓国旅行「コネスト」で次のように説明されている。

50～60年代、紙自体が貴重でトイレットペーパーが無かった頃、田舎では稲藁やカボチャの葉っぱ、セメントの包装紙、新聞紙、雑誌、カレンダーなどがトイレットペーパーのかわりに使われた！70年代以降、白いロールペーパーが生産されトイレットペーパーとして使われるようになったが「トイレには廃紙を使う」という昔ながらの考え方から、ちり箱に捨てるという風習は今でも残っているといえる。

韓国旅行「コネスト」トイレ事情

最近の家庭やホテルでは水に流せるトイレットペーパーを使うところも増えてきたが、まだまだトイレの横に大きなごみバケツを置いているトイレが主流だ。

2. 生活の中のトイレ

韓国に着いてまず仁川空港のトイレに向かった。空港のトイレは様々な国の人が利用するため、トイレの除菌には特に気をつけているようだった。写真にあるように「사용하시기 전에 좌측의 빨간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使用する前に左側の赤鈕を押して下さい。」とトイレのドアを入るとすぐ見えるように書いてあり、ボタンを押すと便座についているビニールが入れ替わって、常にきれいな便座に座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っている。



また、便器に座ると正面には右のような注意書きが掲示されていた。一番大きく「금연」と書かれており、禁煙のマークもあるので、禁煙についての文章が書かれているのだと思

えば、内容は「변기 안에는 비치된 화장지 외에 다른 이물질을 버리지 마세요. 변기 막힘의 원인이 됩니다. 便器の中には設置されたトイレットペーパー以外に他の異物を捨てないで下さい。便器詰まりの原因になります。」という少し異なった内容だった。

2日目の国立中央図書館（デジタル図書館）では地下1階から4階までのトイレを調査した。5階分のトイレの写真を撮って気づいたのだが、上の階に上がっていくごとにトイレのデザインが派手になっている。地下1階は白色を基調としたシンプルなデザイン、1階は黒色、2階は赤色と茶色、3階は茶色、4階は茶色と灰色のチェックを基調としていた。地下1階と地上1階はパソコンや電子機器が一带に並ぶデジタル図書館であるため、硬く冷たいイメージのある白・黒・シルバーを基調としているようだ。一方で2階以上は本がずらっと並んでいて実際に手に取って見ることができるため、木の暖かさを感じさせる赤色や茶色を使った配色になってい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



↑ 地下1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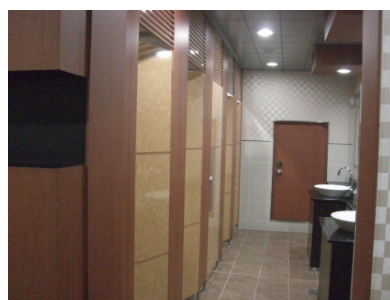
↑ 1階



↑ 2階



↑ 3階



↑ 4階

トイレのデザインに合わせて、洗面台も変化していた。地下1階、2階、4階の洗面台を比べると、上の階に上がるごとにデザインが凝ったものになっていることがわかる。



左から順に
地下1階
2階
4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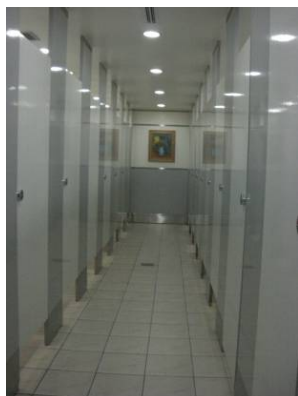
図書館のトイレには洗面台の部分だけでなく、1階のようにトイレのドアを開けたところに化粧をしたり身だしなみを整えるための鏡があったり、2階にはトイレの入り口を入っ

てすぐのところに大きな鏡があった。
また、日本では障害者用トイレは男性用・女性用トイレとは別に障害者用トイレが設置されていることがほとんどだ。しかしこの図書館の障害者用トイレは女性用トイレの中に設置されていた。男性用トイレの中を見ることは不可能なので確認することはできなかったが、おそらく男性用トイレの中にも障害者用トイレが設置されているのだろう。ただ問題なのは、障害者用トイレの中は広かったのだが、ドアを開けると洗面台についている手すりが邪魔をして、車いすでは非常に通りにくい設計になっていたことだ。

昼食で訪れたデパートでは、用を足すというトイレ本来の目的よりも化粧をしたり身だしなみを整えたりする人の姿のほうが目立っていた。実際、写真のようにトイレの中には大きな鏡が設置されており、その前にはあふれるほど人がいた。



身だしなみを整える人々→



2日目の午後に行った教保文庫の
トイレは白とシルバーの落ち着いた感じのデザインだった。汚い印象は全くなくむしろ清潔で、奥にはきれいな絵が飾ってあった。
NANTAの劇場のトイレは少し古い感じがしたが、壁や洗面台は黒を基調としたシックなデザインになっていた。

↑ 教保文庫

3日目の民俗村ではトイレも民族的なデザインだった。男性用・女性用・障害者用に分かれているのだが、トイレの表札の男性と女性は韓服を着ていた。トイレの入り口の扉も昔の建物に使われているような扉で、民俗村の景観に合うデザインだった。



チムジルバンの中にある女性専用アロマ睡眠室のトイレは他の階にあるトイレとは違って、ドアも洗面台もおしゃれなデザインだった。アロマ睡眠室という癒し空間を邪魔することなくむしろその場に馴染んでいて、トイレとは思えないほど落ち着いた空間を生み出していた。

3. まとめ

今まで生活していてトイレをじっくり観察することはなかったが、よく見てみると利用者に応じて、トイレに備えている機能を若干変えている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例えば、デパートの中にあるトイレは食後に化粧を直すための化粧台があり、しかも買い物をした荷物を置けるように台が設置されている。また、民俗村では赤ん坊を連れて訪れる人も多いため、トイレにはおむつの交換台も設置されていた。一方で図書館は赤ん坊を連れてくることはほとんどないため、おむつの交換台を見ることはなかった。また、デザインもその場に合うように考えられており、トイレが周りと一体化している。



4日間トイレを調査していると、自由に水分補給ができる冷温水器がトイレの外に設置されている所が多いということに気がついた。図書館では1つの階ごとに2つトイレが設置されていたのだが、両方のトイレの前に冷温水器があった。以前までのトイレは“汚い・臭い”というイメージだったのが、今ではきれいで清潔なものと考えられるようになったのだろう。

韓国にいる間トイレを見てまわったがすべてトイレは洋式便座で、和式便座は1つもなかった。有料トイレもあると聞いていたが、今回のスタディツアーでは見つけ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

トイレを見ると、人々の考え方の変化やトイレ本来の機能以外に求めるものが見えてくる。トイレはどこにでもあるものなので、次回韓国を訪れたときもトイレに注目してみたい。



4. 参考

韓国旅行「コネスト」『トイレ事情』

http://www.konest.com/data/korean_life_detail.html?no=1016 (2009.8.25 取得)

편의점

육만을 검색하는 도시의 야경꾼

지금도 한국 곳곳엔 도시의 성취처럼 편의점이 종종 들어서고 있다. 그것은 고대의 별자리가 그랬듯 현대 인간에게 어떤 위치와 방향을 가리켜주고 있는 듯하다. 그 성취 아래서 나는 꾸준히 요구르트를 사고, 쓰레기봉투를 사고, 생리대를 산다. 그것이 주는 대수로운 영향들이나 별자리의 운세가 어떤 것일지는 모르겠지만, 당분간 나는 그 쾌적함과 편리함을 좋아할 듯하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 땅 위에 내리앉은 빛 주위를 기웃거리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아이스크림이 든 봉지를 들고 멍하니 서서 ‘무섭다’고 느껴지는 날이 올 것도 같다.

——김애란, 「편의점, 도시의 성취」 (『보그 Vogue』 2006년 5월호) 중에서

‘구멍가게’라는 것이 있었다. 예전에 동네 어귀마다 들어서 있던 그 가게는 기성세대에게 매우 친숙한 풍경이다. 그 공간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사귀어 이루어지고 이런저런 소식이나 소문들이 모여들고 퍼져나가는 ‘허브’였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구멍가게가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다. 슈퍼마켓이 그 자리에 들어서 규모와 가격으로 세를 확장했고, 그 슈퍼마켓마저 얼마 전부터는 대형 할인 마트에 밀려나고 있다. 슈퍼마켓은 더 이상 ‘슈퍼’하지 않다. 하기야 아예 ‘미니 슈퍼’라는 기묘한 합성어가 일찌감치 등장하지 않았던가.

구멍가게와 슈퍼마켓이 대형 할인 마트에 위협당하는 가운데 동네마다 속속 들어선 소형 매장이 있으니 바로 24시간 편의점 convenience store 이다. 70년 전 미국에서 생겨나 1989년 한국에 첫 선을 보인 편의점은 그동안 그 규모가 급속하게 신장하여 2006년 전국의 편의점 수는 1만 개를 돌파하였고 2007년에는 1만 4천 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전체 매출액은 4조 6천억원으로 매년 10% 이상씩 늘어났다. 이렇듯 놀라운 성장의 비결은 무엇인가?

그 경쟁력은 우선 ‘24시간’이라는 영업 시간에서 비롯된다. 매출이 가장 높은 시간대가 밤 8시에서 자정까지라는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편의점의 성장은 도시인들의 생활양식의 변화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질 뿐 아니라, 집에 와서 도 밤늦게까지 이런저런 일은 하거나 텔레비전을 본다. 특히 최근에는 인터넷 때문에 잠지는 시간이 더 줄어든다. 이러한 생활의 변화는 편의점의 신장과 관련된다. 편의점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품목이 우유, 삼각 김밥, 소주(비식품류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상품을 일회용 라이터이다)라는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심야에 출출할 때 간단하게 요기할 음식이나 일상에서 소소하게 필요한 것들을 거기에서 ‘간편 convenience 하게’ 조달할 수 있다.

편의점은 주로 인구가 밀집한 지역에 자리 잡고 있다. 매장의 넓이가 보통 25 평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그 안에 진열된 물건은 무려 1 천 2 백~2 천여 종에 이른다. 물건뿐만 아니라 공공요금 수납, 택배, 휴대전화 충전, 팩스, 꽃배달 주문, 공연 티켓 예매 발권, DVD 대여, 보험상품 판매, 우편 대행, 디지털 사진 인화 등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한 그 안에서 컵라면을 먹을 수 있도록 테이블과 끓는 물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는 한국의 편의점에서만 볼 수 있는 특징이다. 이렇듯 편의점은 집 근처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당장 충족시킬 수 있는 매장으로서는 백화점, 대형 마트 등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틈새시장을 잘 개척해온 것이다.

큰 창고가 없는 편의점에 그렇게 많은 물건을 구비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판매와 재고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POS(판매 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 그리고 그 자료에 근거해 하루에 1~2 번씩 순회하면서 각 가맹점마다 ‘볼펜 몇 자루, 라면 몇 개’ 하는 식으로 완전히 맞춤형으로 공급해주는 배송 시스템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전국 체인점을 관리하는 본사가 상품을 일괄 구매하여 유통하는 규모의 경제, 그리고 각 동네에 깊숙하게 파고들어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섬세하고도 신속하게 제공해주는 유연화 전략이 맞물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구멍가게나 슈퍼마켓, 백화점, 대형 할인 마트, 그리고 홈 쇼핑과도 겨룰 수 있는 경쟁력의 원천은 바로 거기에 있다.

편의점의 또 한 가지 차별성은 매장의 디자인에서도 찾을 수 있다. 우선 조명이 환하다. 천장을 잘 보라. 형광등이 빼곡하게 걸려 있고 대낮에도 환하게 켜져 있어 어느 공간보다도 밝다. 밤이 되면 그 밝음은 일종의 화려함으로도 느껴진다. 우리는 편의점에 들어설 때 다소 신선하고 활기찬 시공간을 경험한다. 이렇게 명도(明度)를 높이는 것은 소비 욕구를 자극하는 고전적인 수법으로서 백화점의 쇼윈도에서 그 극치를 이루지만, 편의점은 그러한 비밀상성을 일상 가까이에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건을 진열하는 데도 불빛이 어떤 각도로 반사되어야 소비자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킬지를 면밀하게 계산하여 조명과 선반의 위치를 규격화해놓고 있다.

그렇듯 밝은 실내 분위기는 진열된 상품들을 빛나게 할 뿐 아니라, 드나드는 이들을 안심시키는 효과도 갖는다. 여성들도 심야에 아무런 망설임 없이 편의점에 들어갈 수 있고, 낯선 손님들이 옆에 있어도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은 구석구석을 환하게 비추는 불빛 덕분이다. 그리고 투명 유리를 통해 바깥에서 내부를 훤히 들여다 볼 수 있어 더욱 안정이 된다. 또한 도난 방지용으로 설치된 볼록거울을 통해 계산대 직원의 시선이 점내에 두루 미칠 수 있는 구조도 고객을 안심시킨다. 흥미로운 것은 그 밝은 불빛이 매장 밖으로도 뻗어나가 어두운 도시에 오아시스 같은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이는 지역의 치안에 도움이 된다. 실제로 일본의 어떤 편의점에는 ‘아이들과 여성의 110 번(한국의 112 번)점포’ 라는 안내문이 창문에 붙어 있고 천장이나 간판 옆에 경광등을 설치하여 비상시에 사이렌을 울린다. 위험한 상황에 처하거나 다급한 일이 있을 때 누구든지 편의점에 도움을 청할 수 있어 말하자면 파출소의 역할까지 겸하는 셈이다.

편의점은 도시 문화의 산물이다. 도시인, 특히 젊은이들의 인간관계 감각과 잘 맞아떨어진다. 구멍가게의 경우 주인이 늘 지키고 앉아 있다가 들어오는 손님들을 예외 없이 ‘맞이’ 한다. 따라서 무엇을 살 것인지 확실하게 정하고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편의점의 경우 점원은 출입할 때 간단한 인사만 건넨 뿐 손님이 말을 걸기 전에 입을 열지도 않을뿐더러 시선도 건네지 않는다. 그 ‘무관심’의 배려가 손님의 기분을 홀가분하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특별히 살 물건이 없어도 부담 없이 들어가 둘러볼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인간관계의 번거로움을 꺼려하는 도회인들에게 잘 어울리는 상업공간이다(대형 할인 마트가 백화점보다 매력적인 것 가운데 하나도 점원이 ‘귀찮게’ 굴지 않는다는 점이 아닐까). 그러므로 ‘익명’의 고객들이 대거 드나드는 편의점에 단골이 생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다.

편의점은 24 시간 열어놓고 있어야 하기에 주인들은 자기가 계산대를 지키기보다는 아르바이트 점원을 세우는 경우가 훨씬 많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그 점원들이 고객을 대하는 태도나 방식이 어느 편의점이든 똑같고 유니폼처럼 표준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는 편의점뿐 아니라 패스트푸드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서, 사회학자 조지리처 George Ritzer 는 그의저서 『맥도날드 그리고 맥도날드화 The Mcdonaldization Society』에서 ‘각본에 의한 고객과의 상호 작용’ ‘예측 가능한 종업원의 행동’ 등의 개념으로 분석하고 있다. 저자는 햄버거 가게에서 종업원들이 고객을 대하는 규칙이 매우 세밀하게 짜여 있고, 그 편안한 의례와 각본 때문에 손님들이 매료된다고 보고 있다. 종업원이 누구든 그 외모, 말씨, 감정 등이 예측 가능하기에 고객들은 편안하게 주문하고 구매할 수 있다. ‘쿨’한 인간관계 그 자체다. 그리고 그러한 효율적인 소통이 짧은 시간에 많은 손님들을 접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패스트푸드점의 그러한 속성을 편의점도 거의 그대로 지니고 있다.

그런데 주인과 고객 사이에 인간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편의점은 역설적으로 고객에 대한 정보를 매우 상세하게 입수한다. 소비자들은 잘 모르지만 일부 편의점에서 점원들은 물건값을 계산할 때마다 구매자의 성별과 연령대를 계산기에 붙어 있는 버튼으로 입력한다. 그정보는 곧바로 본사로 송출된다. 또 한 가지로 편의점천장에 붙어 있는 CCTV 가 있는데 그용도는 도난 방지만이 아니다. 연령대와 성별에 따라서 어느 제품 코너에 오래 머물러 있는지를 모니터링하려는 목적도 있다. 녹화된 화면은

주기적으로 본사로 보내져 분석된다. 어떤 편의점에서는 삼각김밥 진열대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손님들의 구매행태를 기록한다. 먼저 종류를 정한 뒤에 선택하는지, 이것저것 들어보며 살펴가면서 고르는지, 유통기간까지 확인하는지, 평균 한 번에 몇 개를 구입하는지 등을 통계 처리하는 것이다. 그렇듯 정교하게 파악된 자료는 본사의 영업 전략에 활용된다. 편의점이 급성장해온 이면에는 치밀한 정보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성장이 편의점 주인들의 수의 확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할때 편의점은 잘 나가는 사업 아이템으로서 한 달에 3 백만 원 이상의 수입이 넉넉히 보장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서 사정이 완전히 달라졌다. 조기 퇴직자,부업으로 편의점을 경영하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가맹 희망자들이 줄을 이었고, 본사들은 예상 매출액을 부풀려 개업을 적극 권장했다. 그 결과 가까운 거리에 많은 편의점들이 들어서 제 살 깎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적자를 보는 가게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쉽게 그만둘 수도 없는 것이 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엄청난 손실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본사가 가맹점들과 매우 불공정한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울면 겨자 먹기로 장사를 계속하는 이들도 있다. 급기야 일부 점주들은 최근 계약 조건이 일방적이고 불합리하다며, 본사의 ‘편의’ 대로 작성된 약관을 시정하기 위해 연대 행동에 들어갔다. 그에 대해 2006 년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약관에 대한 심사를 하여 몇몇 조항들을 시정하였지만, 상당 부분을 그대로 유효하다고 판정해 가맹점 업주들과 시민 단체 경실련의 반발을 샀다. 기업 간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그 압박은 계속 개별 가맹점에 전가될 것으로 보인다.

주인 못지않게 힘겨운 것이 아르바이트 점원들의 신세이다. 그들은 비정규직으로서 가맹점에 공통으로 제공되는 유니폼을 입고 시급 3 천 원 정도의 저임금을 받으며 하루 10 시간 정도 노동을 한다. 물건이 들어올 때마다 검수하고 옮기는 일, 창고를 정리하고 상품을 진열하는 일, 가게 안팎을 청소하는 일, 인수인계 때마다 판매된 전체 물품과 계산된 총액의 일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일 등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한다. 특히 밤을 꼬박 새우는 것이 매우 피곤한다 밤중에 술 취한 손님이 들어와 행패를 부리면 난감하기 짝이 없다. 낮에도 가장 고역스러운 일은 까다로운 손님을 상대하는 것이다. 없는 물건을 막무가내로 내놓으라는 손님, 돈이 모자라는데 봐달라며 때를 쓰는 손님, 슈퍼보다 가격이 비싸다고 항의하는 손님, 커피를 타 달리는 손님 등을 만나면 지극히 곤혹스럽다. 나이가 어리고 손님에게 늘 친절하게 대해야 하는 입장을 악용하여 함부로 대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자 점원의 경우 가끔 주인을 잘못 만나면 굴욕적인 일을 겪기도 한다.

‘편리함’ 을 뜻하는 영어 단어 ‘convenience’ 는 ‘함께 있음’ 이라 는 뜻의

라틴어에서 왔다. 편의점은 이제 일상의 자연스러운 일부분으로 자리 잡았다. 사람들은 그 깔끔하고 환한 공간을 자기의 방만큼이나 친밀하게 느낀다. 고독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편의점은 ‘도시의 성곽처럼’ 안위를 준다. 늦은 밤 온라인을 배회하다가 출출한 배를 태우고 싶을 때 언제나 찾아갈 수 있는 곳이 편의점이다. 수많은 물품을 진열하고 24 시간 연중무휴로 열려 있는 것이 너무 고맙다. 그러나 그곳을 드나드는 소비자들의 욕망은 체계적으로 검색되고 관리된다. 그리고 그 주인과 점원의 업무도 주어진 매뉴얼 속에서 기계적으로 영위된다. 일상의 편리함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고객의 편의를 위해 엄청난 불편을 감내해야 하는 이들이 있다. 구멍가게와 슈퍼마켓을 밀어내고 촘촘히 들어서서 편의점은 문명의 외롭고 고달픈 속살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위 습관을 알뜰하게 빚어내고 그 거대한 시스템은 도시인위 미래를 어떻게 구상하고 있을까.

(翻訳)

欲望を検索する都市の야경꾼

今も韓国のあちこ치では都市の星座のようにコンビニがぎっしりと建っている。古代の星座がそうであったように、人間にとって何らかの位置と方位を指し示しているようだ。その星座の下で私はこつこつとヨーグルトを買い、ゴミ袋を買い、生理用品をかう。それが与える影響や星座の運勢がどんなものかわからないが、しばらくの間私はその快適さと便利さを好むようだ。そしてそのようにずっと地上に降りる光の周囲を覗き込むとある日ふと、アイスクリームが入った袋をもってぼうっとたって「怖い」と感じる日が来るようだ。

雑貨屋というものがあつた。以前町の入り口ごとにたっていたその店は、既成世代にとっても親しい風景だ。その空間は単純なものを買って売る場所ではなく人々の間につきあいを作り、あれこれ知らせやうわさが集まってきて、広がり出て行く「ハブ」だった。しかしいつからか雑貨屋が姿をくらし始めた。スーパーマーケットがその座につき、規模と価格で力を拡張し、そのスーパーマーケットさえいくら前からは大型割引マートに押し出されている。スーパーマーケットはもう「スーパー」ではない。もっとも最初から「ミニスーパー」という奇妙な合成語が早めに登場しなかったろう。

雑貨屋とスーパーマーケットが大型割引マートに脅威をうける間町ごとに続々と入り込む小型売店があつたのでまさに 24 時間のコンビニだ。70 年前アメリカで生じ、1989 年かんこくで初公開したコンビニはそのあいだその規模が急速に伸張し、2006 年全国のコンビニ数は 1 万個を突破し、2007 年には 1 万 4 千個になるだろうと予想される。そして全体の売上高は 4 兆 6 千億ウォンで毎年 10 % 以上ずつのびている。このようなおどろく成長の秘訣はなんだろうか？

その競争力はまず「24 時間」という営業時間から始まる。売り出しがもっとも高い時間帯が夜 8 時から午前 0 時までという統計からわかるようにコンビニの成長は都会の人の生活様式の変化と密接にかみ合っている。帰宅時間がだんだん遅くなっているだけでなく、家に帰っても夜遅くまであれこれしたり、テレビを見る。特に最近ではインターネットのせいで寝る時間がさらに減る。このような生活の変化はコンビニの伸長と関連する。コンビニで最もたくさん売られる品目が、牛乳、おにぎり、焼酎（非食品類の中で最もたくさん売られる商品は 1 回用ライターだ）という統計からわかるように私達は深夜におなか为空いたとき、簡単に腹の足しになる食べ物や日常から明らかに必要な物をそこで「手軽に」調達することができる

コンビニは主に人口が密集する地域に席を置いている。売り場の広さが普通 25 坪程度しかないが、その中で陳列されたものは実に 1200~2000 あまりに種類になる。物品だけでなく公共料金収納、宅配、携帯電話の充電、ファックス、花束の注文、公演のチケットの前売り発券、DVD 貸し出し、保険商品販売、郵便代行、デジタル写真プリントなど多様なサービスも提供する。またその中でカップラーメンを食べることができるようテーブル、お湯が準備されているのだが、これは韓国のコンビニでだけ見ることが出来る特徴だ。このように、コンビニは家の近くでそのときそのとき必要な財貨やサービスを即座に充足させている売り場として、百貨店、大型マートなどの影響力が及ばないわずかな隙間の市場を開拓してきたのだ。

大きな倉庫がないコンビニにそのようにたくさんの品物を用意することができる秘訣はなんだろうか。販売と在庫と実時間で把握することができる POS（販売情報統合管理）システム、そしてその資料により一日に 1~2 回ずつ巡回しながらそれぞれの加盟店ごとに「ボールペン〇本、ラーメン〇個」という方法で完全に合わせる形で供給してくれる配送システムが存在するためだ。いわば、全国チェーン店を管理する本社が商品を一括購入して流通する規模の経済、そして各町に奥深く染み込んだ住民たちの生活に必要な物品を繊細にも迅速に提供してくれる柔軟な戦略がかみ合わさったシステムと言える。既存の雑貨店やスーパーマーケット、百貨店、大型割引マート、そしてホームショッピングとは比べることができない競争力の源泉はまさにそこにある。

コンビニのまた一つの差別性は売り場のデザインにも探すことが出来る。まず照明が明るい。天井を良く見てみなさい。蛍光灯がぎっしりと詰まっているようにつけてあって、真昼間でも明るくつけられていて、そのある空間よりも明るい。夜になると、その明るさ是一種の華麗さとしても感じられる。私たちはコンビニに入る時、多少新鮮で活気溢れる視空間を経験する。このように明度を高くすることは消費欲求を刺激する古典的な技法として、デパートのショーウィンドウからその極致を成すが、コンビニはそのような非日常性を日常の近くへ引きこむものであると言える。品物を陳列する場所も灯りがどんな角度で反射されれば消費者に負担にならず購入欲求を呼び起こすかを綿密に計算し照明と棚の位置を規格化して置いている。

そのように明るい室内の雰囲気は陳列された商品を輝かせるだけでなく、往来する人々を安心させる効果も持っている。女性達も深夜になんのためらいもなくコンビニに入ることができ、見慣れないお客が横にいても気にしないのは隅々まで明るく照らす灯りのおかげだ。そして透明ガラスを通して外から内部を明るく窺うことができさらに安心する。また盗難防止用に設置された凸面鏡を通してレジの職員の視線が店内で隅々まで届く構造も顧客を安心させる。興味深いのは、その灯りが売り場の外にも伸びて行き暗い都市でオアシスのような役割をするという点だ。これは地域の治安の助けになる。実際に日本のあるコンビニには「子どもと女性の 110 番（韓国では 112 番）店舗」という案内文が窓に貼っており、天井や看板の横に警告灯を設置し、非常時にサイレンを鳴らす。危険な状況におかれたり緊迫したことがある時、誰でもコンビニに助けを求めることができ、いわば交番の役割まで兼ねているわけだ。

コンビニは都市文化の産物だ。都会人、特に若者達の人間関係感覚ときっちり合う。雑貨屋の場合、主人がいつも座って留守番をし、入ってくるお客達を例外なく「出迎え」をする。従って何を買うか確実に決めて入らなくてはならない。しかしコンビニの場合、出入りするとき簡単な挨拶だけかけるだけで、お客が声を掛ける前には口を開きもしないだけでなく、視線も合わせない。その‘無関心’の配慮がお客の気を楽にさせる。そこで特に買うものがなくても負担なく入って見回すことができる。そんな点から人間関係の煩わしさを嫌がる都会人によく合う商業空間だ（大型割引マートが百貨店より魅力的なことの間で一つも店員が‘煩わしく’ふるまわない点ではないだろうか）。それゆえ‘匿名’の顧客達が一度に出入りするコンビニに固定客が生じることはとても難しいことだ。

コンビニは 24 時間開いておかねばならず雇い主たちは自分がレジを守ることよりはアルバイト店員をたてる場合がはるかに多い。しかし興味深い点はその店員達が顧客に接する態度や方法がどのコンビニでも同じで、ユニフォームのように標準化されていることだ。これはコンビニだけではなく、ファーストフード店の場合も同じで、社会学者の George Ritzer は彼の著書『マクドナルドそしてマクドナルド化 The McDonaldization Society』で‘シナリオによる顧客の相互作用’‘予測可能な従業員の行動’などの概念を分析している。著者はハンバーガー店から従業員が顧客に接する規則がとても詳しく組まれていて、その気楽な儀礼とシナリオのためにお客たちが魅了されているとみている。従業員が誰でもその外見、言葉遣い、感情などが予測可能なので顧客達は気楽に注文をして購買することができる。‘クール’な人間関係それ自体だ。そしてそのような効率的な疎通が短い時間にたくさんの客たちを接待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させるのだ。ファーストフード店のそのような速成をコンビニもほぼそのまま備えている。

しかし雇い主と顧客の間に人間関係が形成されないコンビニは逆説的に顧客に対する情報をとても詳しく入手する。消費者達はよくわからないが一部のコンビニで店員達は物の値段を計算するたびに購入者の性別と年齢代をレジについているボタンで入力する。その情報はすぐに本社に送られる。また一つにコンビニの天井に設置されている CCTV があるの

だがその用途は盗難だけではない。年齢代と性別に従いどの製品コーナーにながくとどまっているかをモニタリングしようという目的もある。録画された画面は周期的に本社に送られ分析される。あるコンビニでは三角おむすびの陳列台に超小型カメラを設置しお客達の購入の行動を記録している。まず種類を決めた後で選ぶのか、あれこれ見て探りながら選ぶのか、賞味期限まで確認するのか、平均で一度に何個を購入するのかなどを統計処理するのだ。そのように精巧に把握された資料は本社の営業戦略に活用される。コンビニが急成長してきた裏側には緻密な情報システムが稼働しているのだ。

しかしそのような成長がコンビニの主人達の収益拡大につながっているのではない。一時、コンビニはうまくいく事業アイテムとして1ヶ月に300万ウォン以上の収入が十分に保障されていた時代があった。しかし最近に入って事情がまったく変わった。早期退職者、副業としてコンビニを経営しようとする人々が増え加盟希望者達が関係を結び、本社は予想売上高を膨らまし開店を積極的に奨励した。その結果近い距離に多くのコンビニが建ち並び自分の身を削いでいる実情だ。赤字をこうむる店も少なくない。しかし簡単にやめる事もできないのは、期間満了前に契約を解約するととんでもない損失金を支払わなければならないからだ。本社が加盟店ととても不正な条件で契約を結んだため泣き寝入りしながら商売を継続する人々もいる。あげくのはてに一部の店主達は最近の契約条件が一般的で不合理なら、本社の‘便宜’どうりに作成された約款を是正するため連帯運動に加わった。それに対し2006年公正取引委員回がコンビニの約款に対する審査をし若干条項を是正したが、当てはまる部分をそのまま有効だと判定し加盟店の業主達と市民団体の경실련の反発を買った。企業間の経済が加速化されながらその圧迫はずっと個別加盟店に転嫁されるようだ。

雇い主がひけをとらないように手を焼くのはアルバイト店員達の世話だ。かれらは非正規職として加盟店に共通で提供するユニフォームを着て、自給3千ウォン程度の低賃金をもらい1日10時間程度労働する。ものが入ってくるたびに検査し運ぶ仕事、倉庫を整理し商品を陳列する仕事、店の中と外を掃除する仕事、受け渡しのたびに販売された全体の物品と計算された総額の一致のよしあしを几帳面に確認する仕事など様々な業務を行っている。特に夜をぶっ通しで明かすことはとても疲れるのだが、夜中にお酒に酔ったお客が入ってきて乱暴をはたらくと耐えがたいことこの上ない。昼でも最も苦しい仕事はややこしい客を相手することだ。ない物を頑として出して置けというお客、お金が足りないのに見てくれとだだをこねるお客、スーパーより価格が高いと抗議するお客、コーヒーをいれてくれというお客などに会うとこの上なく困る。年が幼くお客にいつも親切に接しなければならない立場を悪用してむやみに接するのだ。そして女性の店員の場合、時々良くない雇い主に会うと屈辱的なことを味わうこともある。

‘便利さ’を意味する英語の単語‘convenience’は‘共にする’という意味のラテン語から来た。コンビニは今や日常の自然な一部分として座席をつかんだ。人々はそのさっぱりとした明るい空間を自分の部屋であるくらい親密に感じている。孤独で耐えがたく暮ら

している人々にとってコンビニは‘都市の星座のように’慰めてくれる。遅い夜にオンラインを徘徊して空腹なお腹を満たしたい時、いつでも訪ねていくことのできるところがコンビニだ。多くの物品を陳列し24時間年中無休で開いていることはとてもありがたい。しかしその場を出入りする消費者達の欲望を体系的に調べ管理する。そしてその雇い主と店員の業務も与えられたマニュアルのなかで機械的に営まれる。日常の便利さはただで得られるものではない。顧客の便宜のためにとてつもない不便を耐えなければならない人々がいる。雑貨屋とスーパーマーケットを追い出しぎっしりと立ち並ぶコンビニは文明の寂しく辛い肌をあらわにしている。私達の習慣をしっかりと作り出すその巨大なシステムは都市人の未来をどのように構想しているのだろうか。

コンビニから見る韓国文化

原田有紀子

<はじめに>

私は、今回のスタディーツアー（8月17日～20日）で韓国のコンビニエンスストア（以下コンビニ）から韓国文化を発見しようと考えました。私はコンビニ（Seven Eleven）でアルバイトをしているので、その経験から韓国のコンビニにと日本のコンビニの違いを探しながら韓国の文化を見つめることができないかと思いました。私が4日間でコンビニを利用した回数は少なかったですが、“Seven Eleven”と韓国のコンビニ“GS25”を利用しました。また“Family mart”も見かけたのですが店外を見ることしかできませんでした。

<店外の様子>



韓国のセブンイレブンの店外の様子です。①、②、④はミョンドンのセブンイレブンです。日本のコンビニは雑誌を並べて外から見えるようにしてありますが、韓国のコンビニは写真のようにポスターなどの貼紙がしてありました。②の写真のように、ミョンドンのセブンイレブンは韓国の海苔を一面に陳列し外から見えるようにしてありました。ここは

日本人の観光客も多いので、お土産として好まれる韓国海苔を陳列することで、お客を呼び込もうという戦略をとっているのだろうと思いました。また日本のコンビニは外にゴミ箱や灰皿が設置してありますが、韓国では見かけませんでした。その代わり店内にゴミ箱が設置してありました。韓国は道路に捨ててあるゴミが日本よりも多いので、コンビニの前にゴミ箱を設置すべきだと思いました。③の写真もセブンイレブンですが、普通のセブンイレブンとは大きく違う点が2つ見られます。このセブンイレブンは屋根が瓦になっている点です。このセブンイレブンは民俗村という場所にあります。民俗村は昔の韓国の様子を残してある場所です。その雰囲気を壊さないように周りの様子に合わせて作られたのだと考えることができます。日本でも京都のセブンイレブンは京都の雰囲気、景観に合わせて建てられたものがあります。そのように工夫する点は同じだと思いました。もう一つは店の前にテーブルと椅子が設置してある点です。日本の感覚からすると珍しく、韓国のコンビニの特色だと言えます。山口で見られる多くのコンビニは駐車場が広く、食べ物を買ってそのまま車で食べるという人も多いですが、韓国では外にテーブルと椅子が設置してあるので、話をしながら食べている人々をみかけました。コンビニは便利さを求める場所という点ではその利にかなっています。

<店内の様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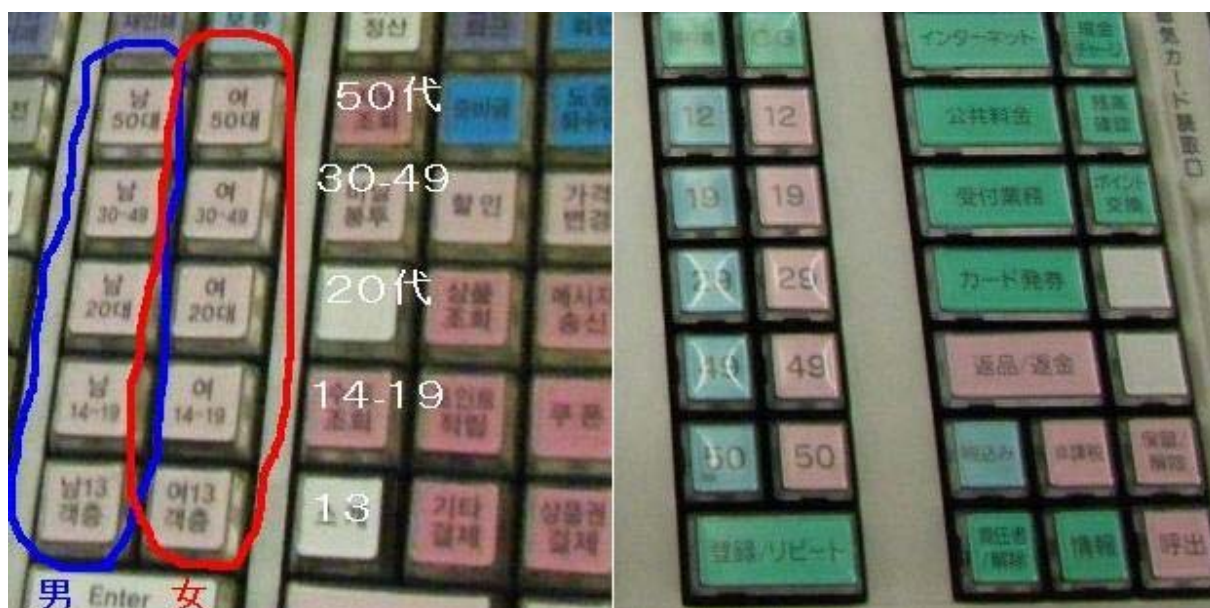
次はセブンイレブンの店内の様子です。⑤の写真はインスタントコーヒーと雑誌です。⑤のすぐそばに⑥のカウンターが設置してありました。店内ですぐに飲む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っています。韓国のコンビニは店内にこのようなスペースが設けてある場合が多いです。韓国のコンビニに入ってから最初に感じたことは店内が狭いということでした。他のコンビニもあまり広くありませんでした。日本のように店で揚げて作る「から揚げ」や、「フライドポテト」は見かけませんでした。その代わりにレジの周りにもインスタントコーヒーを作るための機械が設置してありました。韓国の人はインスタントコーヒーやカップラーメンなどをその場で作って食べることをよくしているのか、どのような人がそのサ

ービスを利用しているのかを調べることができませんでしたが、コンビニの店内を見ることが韓国の人々にとって、買ってその場ですぐに食べる、飲むという行為が当たり前のように行われ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考えました。



お菓子やカップラーメンは品揃えが豊富でした。(写真⑧、⑨、⑪) 陳列の仕方は日本のようにきれいに並べてあり、手前に名前と値段のラベルが貼ってありました。⑧の一番上の段にあるお菓子は日本の「かっぱえびせん」の類似品です。山積みになっていますが、売れるものは幅を広く取り、色取りも考え並べてあるので効果的に陳列されている点は日本と同じでした。お菓子の棚は日本のように店内の中央付近の棚にありました。⑩はおにぎりやサンドイッチの棚です。⑪の手前はパンの棚です。日本に比べると韓国のコンビニはパンやおにぎりの品数、種類が少なかったのですが、それはどこのコンビニでも共通して言えることでした。日本のようなお弁当は見かけませんでした。日本のコンビニは昼食や夕食のためにお弁当などといった一回分の食事が取れるほどの品物がありますが、韓国のコンビニはちょっとした空腹を満たす程度の品物しかありませんでした。そのため、店内をゆっくりと見て品物を選ぶという光景は見られませんでした。今回は調べ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のですが、おにぎりやサンドイッチ、パンを買う人がどの年代人で、人数がどのくらいであるか、時間を追って調べることができたら良かったと思いました。

<韓国のレジと日本のレジ（セブンイレブン）>



日本と韓国のコンビニのレジの比較もしてみました。左が韓国のセブンイレブンのレジで、右が日本のセブンイレブンのレジの写真です。やはり客層の情報を得るために韓国のレジもお金を打つだけでなく品物を買ったお客さんの性別や年齢を押すボタンがありました。日本のセブンイレブンのレジのボタンは男性が薄い青色、女性は薄いピンクで色分けがしてありますが、韓国のレジは男女での色分けはしてありませんでした。また、日本と韓国ではボタンの並びも異なっていました。日本は上から 12、19、29、49、50 となっていますが、韓国は年上のボタンが一番上にありました。コンビニを利用する人は若い人が比較的多いので、日本は若い年齢層のボタンを一番上にしたのではないだろうかと考えました。しかし韓国は年上のボタンが上にありました。これは年上の人を敬うという韓国文化に関係してい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と考えましたが、はっきりとしたことはわからないので、また調べてみたいと思いました。年齢の区分は日本では、0-12 歳、13-19 歳、20-29 歳、30-49 歳、50 歳以上です。韓国は 0-13 歳、14-19 歳、20-29 歳、30-49 歳、50 歳以上となっていて 20 代から上の年齢層の区分は同じですが、最初の二つの年齢層が 1 歳ずつずれています。最初の年齢層は小学生、その次が中・高校生という区分であることが考えられますが、韓国は年齢の数え方が違うので日本とずれ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考えました。韓国の年齢の数え方で言うと、日本と同じように小学生の年齢層と中・高校生の年齢層になっているので、やはりこの違いは年齢の数え方によるものだと思います。

＜コンビニでバイトをする人、コンビニを利用する韓国の人々＞



私が韓国でコンビニを利用した時、朝の 8 時頃に行った時は、出勤途中の男性を見かけました。ラーメンを買って、お湯を入れカウンターに立って食べていました。もう一人の客は、サンドイッチとおにぎりを買ってすぐ出て行きました。コンビニは便利さを第一にしているのは日本も韓国も同じですが、人々の様子が違うと私は感じました。まずバイトをしている人のサービスが日本とは大きく異なります。まず店に入ると「いらっしゃいませ」と声をかけられ、物を買おうとレジに品物を持って行くとそのままバーコードを通して「〇〇ウォンです。」と言われ、お金を払いお釣りを貰いました。そこで私は、「ビニール袋をください」や、「ストローをください」と言いました。日本は言わずとも店員が自らお客にお箸やスプーン、ストロー、ビニール袋が必要か不必要かを尋ねますが韓国ではそうではない場合が多かったです。日本ではコンビニと言っても、お客として行くと、何か物を買いに来たとしても、立ち寄っただけだとしても当然サービスを受けるという立場になり、お客として店員からとても丁寧な扱いを受けますが韓国はそうではありません。自分が買いたいもの、求めているものをより早く購入することができればいいということが見受けられます。そのため店員は店にお客がいるにも関わらず、写真⑦のように携帯電話でメールをしたり電話をしたりしている姿も見られます。しかしそれに対し韓国の人々は何も気にしていない様子で店を足早に出て行きます。興味深いなと思ったことは、韓国の店員さんはお金を払い終わり出て行くお客さ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안녕히 가세요（さようなら）」と言っていることでした。「さようなら」は去る人に対する挨拶で、日本のコンビニでは聞かない台詞だと思いましたが、韓国ではその挨拶が決まり文句の一種として定着しているのだと思いました。

⑤の写真を見るとわかりますが、雑誌が置いてある数が少ないです。このコンビニだけでなく他のコンビニでもそうでした。日本では雑誌がたくさん陳列してあるため、店内で立ち読みをしている人々をたくさん見ることができます。韓国の人々は店内に長く留まる

人はおらず、先ほども書いたように自分の欲しいものを購入し終わるとすぐに出て行くので、雑誌が並べられていないのはそのせいではないかと思いました。韓国は「빨리（早く）」という言葉をよく使い、人々の行動も慌しく感じますが、その韓国の風習がコンビニでも見ることができました。

同じセブンイレブンでもやはりその国の人々の生活に合わせて品物やサービス、人々の行動が異なるので、コンビニという空間からも文化を発見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

지하철

애써무관심한척하지만

저 건너편에 앉아 날 훑쳐만 보네.매일 아침 이맘때나 밤늦게도 보네.어떨 땐 반갑다가도 또 귀찮기만 해. 하지만 별 걸 다 신경 쓰네, 왜 이럴까? [.....] 괜히 말이나 걸어볼까 생각도 했었지. 하지만 왜? 언제? 또 무슨 말을 해? 그저 전철에서 만난 남남인데. 관심도 하나도 없는 남남일 뿐인데. 참 멍청하게도 생겼다. 밥먹,위유----. 숨 쉬지마, 입에서 남새 나. 어욱, 입 남새 [.....] 넌 전철의 한 부분일 뿐 내겐 흥미도 없고,내가 안 탄다 해도 별 관심 없겠지. 하기가 내가 너래도 그럴 걸 뭐.

— 록 뮤지컬 「지하철 1 호선」중에서

지하철이 지구상에서 처음 출현한 것은 1863 년 영국 런던이었다.세계 최초로 강 밑에 뚫린 도로인 템즈 터널 Thames Tunnel 이 개통된 지 20 년 만에 도시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건설된 지하철은 그 이후 유럽의 여러 나라들과 미국 그리고 일본 등으로 확산되어 갔다.

현재 지하철은 지구촌 160 여 개 도시에 깔려 있고 약 7 천개의 역이 있다. 서양에서 지하철을 가리키는 단어는 여러 가지이다. 우리에게 익숙한 ‘subway’는 북미권에서 사용하는 말이고,영국에서는 공식적으로 ‘underground’라고 하면서 일상 대화에 서는 ‘tube’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리고 영국과 북미 이외의 지역에서는 ‘metro’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한국에 처음 개통된 지하철은 1974 년 서울역에서 청량리 구간 을 잇는 1 호선이었다. 서울에 지하철이 개통되던 무렵의 상황에 대해 서울시립대 송도영 교수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영등포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한강 이북 지역에 한정되어 있던 서울은 전국 인구의 급속한 서울 집중 한상으로 인해 기존 서울의 도시 경계 안에서 더 이상 주거를 마련할 여력도 없고 교통 혼잡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서울은 만원이다” 라는 비명이 울리고 있었고, 그에 따라 강남 개발이 모색되고 있던 시기였다.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뭔가 아주 특별한 방법이 있어야만 하는 시기였던 것이다.”

그 뒤로 꾸준히 증설해온 서울은 지금 9 호선을 건설 중이고,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도 새로운 노선들이 깔리고 있다.현재 한국의 지하철 규모는 전 세계에서 다섯번째라고 하니, 살로 압축 성장이라 할 수 있다. 양적인 면에서만뿐만 아니라 통합된 교통 카드 시스템, 역내와 차량의 쾌적함에서도 수준급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는 많이 노후된 런던의 지하철을 타보면 우리가 얼마나 호강하고 있는지를 실감할 수 있다.

또한 지하철의 선진국일본도 보스와 지하철의 요금 체계를 우리처럼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연계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제 대도시에서 지하철은 필수불가결한 생활 현장이다. 거기에서 관찰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사회의 중요한 단면들을 읽어낼 수 있다. 한국에서 10 년 이상 장기 공연되고 있는 록 뮤지컬 「지하철 1 호선」이 사람들의 공감을 널리 불러일으키는 것도 지하철을 타고 내리는 인간 군상의 내면을 잘 포착했기 때문이다. 원래 독일의 그립스 극단이 상연한 「Linie 1-Musikalische Revue」를 김민기가 번안하여 1994 년 첫선을 보였는데, 독일의 원작자가 한국의 작품을 보고 나서 이것은 또 하나의 창작이라며 저작권료를 면제해주기도 했다. 그것은 김민기의 탁월한 연출 감각으로, 한국의 지하철에서만 목격되는 특유한 분위기를 담아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지하철의 풍경은 시시각각 바뀌면서 도시인의 일상을 진열한다.첫차를 타보지. 부지런히 새벽일을 나서는 아주머니들, 등산복 차림의 노인들의 정정한 낮을 만날 수 있다. 아직 빈 자리가 많은 차내에는 억척스럽게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의 기운으로 가득하다.7 시에서 9 시 사이. 직장인과 대학생들의 시간이다. 발걸음이 매우 분주하다. 특히 환승역에서 질주하듯 계단을 오르내리는 승객들은 ‘다이나믹 코라아’를 확실하게 입증한다. 그러나 발걸음은 재 빠르지만 열차와 역은 조용한 편이다. 출근길 승객들은 거의 다 혼자서 이동하기 때문에 대화 상대가 없다. 그 무료함을 겨냥해 스포츠신문과 각종 주간지들이 등장하여 꾸준히 매출을 신장해 왔다. 지금은 각종 무가지들이 그 시장을 상당 부분 잠식해버렸지만.

오전 10 시 무렵, 승객들은 현저히 줄어든다. 삼삼오오 나들이 하는 주부들이 여기저기에서 이야기 마당을 열고 있다. 자녀를 어느 정도 키워 놓은 50 대 이상의 여성들이 많이 눈에 띈다. 그런가하면 경로석에서는 무작정 집을 나선 할아버지들이 아득한 하루를 시작하고 있다. 냉난방이 잘되는 지하철을 한겨울과 한여름 시간 때우기에 안성맞춤이다. 그래서 실직자들도 정처 없는 몸을 전동차에 싣는다. 다른 한편 그 무렵 차내 통로가 한산해지면서 속속등장하여 이목을 끄는 이들이 있는데, 바로 행상인 , 걸인, 그리고 종교 전도자들이다. 그들은 공익 요원들의 단속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하철을 누비고 다닌다.이런 사람들은 오후 늦게까지 계속 출몰한다.

저녁 퇴근 시간이 되면서 전철은 다시 만원이 되고 시끌벅적해 진다. 출근 시간 때와 달리 동행자가 때문이다. 그래서 신문을 별로 보지 않는다.밤이 깊어갈수록 열차는 더욱 소란해진다.11 시쯤 지하철을 타보면,20 대 청춘 남녀들로 가득하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북적거리는 도시는 다른 나라에 흔치 않고, 그 시공간을 젊은이들이 독점하다시피 하는 것도 특이하다. 그런데 12 시가 넘어T심야에 이르면 지하철의

분위기는 또 달라진다. 몸을 기누지 못하는 취객들, 의자에 벌러덩 누워버린 노숙인들이 눈에 띈다. 막차에서 잠들어버린 이들을 일일이 깨워 내보내느라 승무원과 공익 근무 요원들이 봄주해지고, 청소부 아주머니들은 곳곳에서 온갖 쓰레기와 오물을치우느라 오생한다.

지하철이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편리한 것은 정시성(定時性) 때문이다. 일정한 간격으로 차가 오가고 도로가 막하지 않기 때문에 약속 시간에 늦을 염려가 없다. 그러나 어쩌다가 차량이 고장나거나 운영 사시스템에 오류가 생기면 도시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한노선을 달리는 모든 차량들이 연쇄적으로 멈추기 때문에 엄청난불편함이 초래되는 것이다. 또한 지하철은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매우 안전한 이동을 보장해준다. 그러나 승강장에서 자칫 발을 헛디더 선로에 떨어지거나 하차할 때 출입문에 가방이나 옷이 끼아차와 함께 끌려가게 되면 끔찍한 사고가 일어난다. 그리고 대구 지하철 화재에서 보았듯이 단 한 사람의 부주의나 테러가 대형 참사로 이어질수 있다.

따라서 운전자들은 늘 극도로 긴장하게 된다. 지하철 운전은 얼핏 보면 주어진 선로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까 버스나 택시에 비해 운전이 쉬을 듯하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바로 그렇게 단순하고 반복적인 동작이 노동을 지루하게 만든다. 그리고 역을 벗어나 어두운 구역으로 들어가면 양옆 위 쪽으로 나란히 켜져 있는 형광등이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되면 계속 스쳐 지나간다.하루 종일 그 광경에 노출되어 있다 보면 눈이 극도로 피곤해질 수밖에 없다. 또한 러시아워에는 몇 천 명의 승객들이 타고 내리는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문을 여닫고 안내하느라 바짝 긴장하게 된다. 아직 스크린 도어 가 설치되지 않은 역에서는 이따금 자살을 하려고 뛰어드는 사람 이나 승강장 끝에서 아슬아슬하게 서 있는 취객들이 운전자의 신경을 곤두서게 한다.안전하고 편리한 지하철 공간을 만드는 것은 운전자뿐만 아니라 탑승객들의 책임기도 하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타도 내리는 지하철에는 갖가지 행동 수칙들이 끊임없이 방송된다. 열차가 들어오고 있으니 한걸음 물러서라, 멀리 가실 분은 안으로 들어가라, 화재 발생 시에 비상 장치로 출입문을 열고 신속하게 대피하라,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라, 휴대폰을 진동으로 해놓아라, 주변에서 수상한 사람을 보면 신고하라, 옆 사람에게 ‘혐오 감’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마라, 승강장과 전차 사이의 간격이 넓으니 내릴 때 발을 조심하라…… 핵심을 간추리면‘안전,’그리고‘배려’이다. 그런데 승객들은 그런 안내 방송을 좀처럼 귀담아 듣지 않는다.

지하철에는 안내 방송 외에도 많은 정보가 쇄도한다. 승강장에 서부터 차내에 이르기까지 갖가지 동영상과 포스터 광고물들이 승객들의 시선을 빨아들인다. 그리고 오전에 배포되는 무가지 신문들이 여러 승객들에 의해 유통된다. 의자 위의 선반은 그것들을 주고받는 ‘공유 폴더 ’로 활용된다. 그 위에 가득 쌓여 있는 신문들은

도사인들이 게걸스럽게 소비한 정보의 배설물처럼 보인다. 승객들은 신문을 보지 않는다면 책에 몰입하거나, 이어폰을 꽂고 음악이나 영상에 빠져 있거나, 핸드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게임을 하는데 열을 올리거나, 아니면 아예 눈능 감고 잠을 청한다. 창밖으로 아무런 풍경이 펼쳐지지 않기에 매우 지루한 것이다.

그 허전한 시선들이 뻗어가는 대상 가운데 하나는 바로 사람이다. 외부와 차단된 공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비좁게 붙어 있는 동안, 서로에 대해 무관심한 척하면서도 상대방에 대한 관심의 축수가 예민하게 움직일 때가 있다. 빼곡히 서 있을 때 창문을 거울삼아 옆 사람의 얼굴을 살짝 훑쳐보기도 하고,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을 힐끗 쳐다보면서 여러 가지 상상의 나래를 펴기도 한다. 글썽머리에 인용한 뮤지컬의 노래 한 구절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는 말이다. 밀집된 상황에서 타인의 작은 몸짓이나 행동이 언짢은 감정을 유발할 때가 종종 있지만 여간해서는 그러한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다. 양 다리를 짹 벌리고 앉아 옆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아저씨 (이른바 ‘찍벌남’), 큰 목소리로 휴대폰 통화를 하는 아줌마, 자리를 빨리 차지하기 위해 막무가내로 밀치고 들어오는 노인……

그러나 애써 무관심한 척하다가도 어느 순간 상대방에게 노골적으로 다가가 개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개똥녀’ 사건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2005년 6월 서울의 어느 지하철에서 어느 여성이 데리고 있던 애완견이 바닥에 배설하였고, 그것을 우라는 주변승객들의 요구를 거부하여 붙여진 이름이 개똥녀이다. 이 장면을 어느 승객이 촬영하여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면서 네티즌들 사이에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결국 그 신원까지 추적되었는데, 이를 계기로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사이버 폭력에 관한 논쟁이 불붙었다. 개똥녀는 어느덧 외국인들에게까지 알려지게 되었다. 위키피디아에는 ‘Dog poop’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개똥녀 사건의 전말이 관련 자료와 함께 상세히 소개되어 있다.

그러나 무관심의 장벽은 그렇게 부정적인 상황에서만 허물어지는 것은 아니다. 나이든 어른들은 옆에 앉은 이들과 금방 말문을 트기도 하고, 귀여워 보이는 아기가 있으면 ‘몇 살?’하고 묻는다. 또한 우는 아이를 어르고 달래는 엄마 가운데는 옆에 앉은 남자에게 느닷없이 ‘아저씨, ‘이놈!’ 해주세요’라는 당황스러운 부탁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듯 서슴없이 불쑥 말을 건네는 모습은 도시의 냉랭함과 사뭇 대조적이다.

또 한 가지 지하철에서 이루어지는 활발한 상호작용은 노인들에 대한 자리 양보이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신기하게 바라보는 이 미풍양속이 건재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거기에는 노인을 공경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양보하지 않으면 받게 될 따가운 눈총도 작용한다. 자신과 타인이 노약자인지 아닌지를 이토록 민감하게 식별하고

의식해야 공간은 없다.

그런가 하면 경북대 사회학과 천선영 교수는 지하철에서 노약자의 함의에 대해서 흥미롭게 분석하고 있다.그는‘노약자’라는 범주에 주목한다.노약자의 구분은 필연적으로 비노약자라는 존재를 가정하고 있고,그러한 상호 자기 규정과 경계 설정은 사회적 긴장을 수반한다고 진단한다.그리고 그 구별은 노약자들을 배타적으로 분할하는데,이는 노약자석의 배치에도 그대로 반영된다고 한다.즉 노약자석이 객차 여기저기에 흩어져 배치되어 있는 유럽과 달리 한국에서는 양쪽 구석으로 몰아놓은 것이다.

지하철에서는 이따금 감동적인 미담의 주인공들이 탄생하기도 한다.승강장과 전차 사이에 어떤 승객의 발이 끼었을 때 수십 명이 달려들어 전차를 밀어 올렸던 장면은 온라인을 통해 널리 회람되었다.그리고 2001년 일본 도쿄 신오쿠보(新大久保)역에서 술에 취해 선로에 떨어진 승객을 구하려다가 목숨을 잃은 이수현씨는 한일 교류의 증진한 가교가 되었다.

지하철의 그러한‘영웅’은 다른 나라에서도 종종 나타난다.2007년 정초 뉴욕에서 50세의 흑인 건설 근로자 웨슬리 오토리는 어떤 청년이 선로에 떨어지자 뛰어내려 몸으로 덮어 목숨을 구하였다.그는‘지하철 슈퍼맨’이라는 이름으로 언론에 대서특필되었고,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이 그의 용기를 기리는 결의안을 제출하기까지 했다.또 각지에서 격려금이 들어왔다.냉랭한 무관심으로 인간 소외의 극치를 보여주던 뉴욕에서 그런 인물이 나왔다는 것에 미국인들은 큰 위안을 얻었다고 한다.

지하철은 무엇인가? 분주한 직장인들의 이동 경로/노인들과 실직자들의 부담 없는 처소, 전근대적인 무질서와 격의 없음이 잘드러나는 점이 지대/안내 방송에서 영어 공용화가 자연스럽게 정착된 글로벌한(?) 공공장소,서로에게 애써 무관심한 철저한 익명의 공간/‘개똥녀’같은 파렴치한 행동을 절대 간과하지 않는 삼엄한 감시망,수백만 시민들의 안락한 교통수단/한순간 대형 참사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시설,동방예의지국 최후의 보루/성추행이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구역……이렇듯 상반된 여러 얼굴을하고 지하철은 도시의 땅 밑을 세차게 달리고 있다.사람과 사람,장소와 장소를 숨 가쁘게 잇고 있다.

(翻訳)

できるだけ無関心なふりをするが

あの向こう側に座って私を盗み見ているね。毎朝今ごろの時間帯や夜遅い時間帯にも会ったりする。ある時は嬉しくてもまたある時は煩わしい。しかし、どうでもいいことまで気にしてしまう。どうしてだろう？ [……] 不意に言葉でもかけてみようかと思ったりもした。どうして？ いつ？ また何の話をすればいいの？ ただ電車で会った他人同士であるのに。関心の一つもない他人であるのに。本当に間抜けな顔だねえ。食欲、ふう。息をするな、口から臭いを出すな、うっ、口臭 [……] あなたは電車の一部分でしかなくて私に興味もなく、私が乗らないとしても別に関心もないだろう。そりゃ私があなただとしてもそうでしょ

ーロックミュージカル『地下鉄1号線』の中から

地下鉄が地球上に初めて出現したのは1863年イギリスのロンドンだった。世界で初めて川の下を通った道路であるテムズトンネルが開通したあと、20年目の都市改善事業の一環として建設された地下鉄は、それ以降ヨーロッパの様々な国とアメリカ、そして日本などに拡散していった。

現在地下鉄は、地球上160あまりの都市に広がっていて、約74の駅がある。西洋では地下鉄を表す単語は様々だ。私たちが聞き慣れている‘subway’は北米圏で使う言葉で、イギリスでは公式的には‘underground’と言い、日常会話では‘tube’と呼んだりもする。そしてイギリスと北米以外の地域では‘metro’という単語を使う。韓国で初めて開通した地下鉄は、1974年ソウル駅で청량리 (チョンニャンリ) 区間を結ぶ1号線であった。ソウルに地下鉄が開通したころの状況についてソウル市立大소도영 (ソドヨン) 教授は次のように説明している。「영등포 (ヨンドゥンポ) などを除く大部分が漢江より北側の地域に限定されていたソウルは、全国人口の急速なソウル集中現象に伴い、既存のソウル都市境界の中では、それ以上の住居を提供する余力もなく交通渋滞も解決するのが難しい状況だった。“ソウルはもう満員だ”という悲鳴があげられており、それによって江南開発が模索されていた時期だった。交通問題の解決のためには、何か特別な方法を考えなければならぬ時期であった。」

その後、着々と増設してきたソウルは、今9号線を建設中で부산 (釜山)、대구 (大邱)、광주 (光州)、대전にも新しい路線が敷かれている。現在韓国の地下鉄の規模は、全世界で5番目と言われ、実に圧縮成長を遂げたといえる。量的な面だけではなく、統合された交通カードシステム、駅内と車両の快適さでも一定の水準を上回っているといえる。今や多くの老朽化したロンドンの地下鉄に乗ってみると、私たちがどれほどぜいたくな暮らしをしているかどうかを実感することができる。また、地下鉄の先進国である日本も、バスと地下鉄の料金体系を我々のように便利かつ効率的には連携できていない。

今、大都市で地下鉄は必要不可欠な生活の現場である。そこで観察される人々の姿から、社会の重要な断面を読み取ることができる。韓国で 10 年以上長期公演されている『ロックミュージカル地下鉄 1 号線』が、人々の多くの共感を得ているのは、地下鉄に乗り降りする人間群像の内面をよく描いているためである。元ドイツのグロプス（クリプス）劇団が上演した「Linie 1 – Musikalische Revue」を김민기（キムミンギ）が翻案して 1994 年に初上演したが、ドイツの原作者が韓国の作品を見て、これはまた一つの創作と言いながら著作権料を免除してくれたりした。それは김민기の卓越な演出感覚によって、韓国の地下鉄だけで目撃される独特な雰囲気をかもし出したからである。

地下鉄は随時風景を変えながら都会人の日常を陳列する。始発に乗ってみよう。夜明けから仕事にせせと出かけるおばさんたち、登山服の格好をした元気な年寄りたちに会える。まだ空席が多い車内には、たくましく一日を始める人々の活気でいっぱいだ。7 時から 9 時の間は、会社員と大学生たちの時間だ。非常に慌ただしい。特に乗換駅で足早に階段を上り下りする乗客たちは、“ダイナミック 코리아”を確実に立証する。しかし足取りは早いが列車と駅は静かな方だ。出勤途中の乗客たちは、ほとんど一人で移動するので話相手がいない。その退屈さを狙ってスポーツ新聞と各種週刊誌が登場し、着実に売上げを伸ばして来た。今は各種⁴무가지들（無価紙）がその市場をほとんど蚕食してしまったが。

午前 10 時頃、乗客たちはめっきり減る。三三五五外出する主婦たちが、あちこちで話の場を開いている。子どもをある程度育てた 50 代以上の女性たちが特に目立つ。そうであるかと思えば、敬老席では何も考えずに家を出たお爺さんたちが、果てしなく長い一日を始めている。冷暖房のよくきく地下鉄は、真冬と真夏の暇つぶしにうってつけである。それで失職者たちも当てもなく身を電車に乗せる。他の一方、その頃車内通路が閑散としながら続々と登場して人目をひく人々がいるのだが、それはまさに行商人、乞食、そして宗教伝道者たちだ。彼らは公益要員たちの取り締まりにも、ものともせず地下鉄を堂々と歩き回っている。このような人々は午後遅くまでずっと出没している。

夕方、退勤時間になると電車はまた満員になり騒々しくなる。出勤時間の時と違い、複数でいる者が多いためだ。そのため新聞をあまり見ず、夜が更けるほど電車はより騒がしくなる。11 時頃、地下鉄に乗ってみると 20 代の若い男女たちでいっぱいである。こんなにも遅い時間までごった返す都市は他の国からしてみると珍しく、その空間を若者達が独占していることも特異である。ところで 12 時が過ぎ、深夜になると地下鉄の雰囲気はまた変わる。身を支えることもできない酔った客たち、椅子にばたっと寝てしまったホームレスが目立つ。終電で眠ってしまった人達を一人一人起こすために、乗務員と公益勤務要員たちは慌ただしくなり、掃除のおばさんたちはあちこちであらゆるゴミと汚物を片付けるために苦勞する。

地下鉄が他の交通手段に比べて便利なのは、定時性という点である。決まった間隔で電車が行き交い、線路が渋滞しないため約束時間に遅れる心配もない。しかし、たまに電車

⁴ 無料で配布される新聞

が故障したり、運営システムに問題が生じたりすると都市全体が影響を受ける。一つの路線を走るすべての車両が連鎖的に止まるため、とてつもない不便が生じるのである。また、地下鉄は他の交通手段に比べて、安全な移動が保障される。しかし、乗り場で足を踏みはずし線路に落ちたり、下車する時、扉にかばんや服がはさまれたまま電車で引きずられて行ったりすると、無惨な事故が起こる。そして^{テグ}大邱の地下鉄で起こった火事のように、たった一人の不注意や、テロが大惨事につながることになる。

したがって運転手たちは常に極度の緊張を強いられる。地下鉄の運転は、見た感じでは与えられた線路のうえを走りさえすれば良いので、バスやタクシーに比べて運転は簡単そうである。しかしそうではない。まさにそのように単純で反復的な動作が、労働を退屈にしてしまう。そして駅を出発し暗い区域に入っていくと、両側の上に並んでいる蛍光灯が同じパターンで繰り返し点いていてずっとすれ違う。一日中その光景にさらされていると、目が極度に疲れないはずがない。またラッシュアワーには何千人もの乗客たちが乗り降りする状況に細心の注意を払って扉を開閉し、案内しようとピリピリと緊張する。未だにスクリーンドアが設置されていない駅では、時々自殺をしようと跳びこむ人や、乗り場の端でふらふらと立っている酔った客が運転手をひやひやさせる。安全で便利な地下鉄の空間をつくるのは運転手だけではなく、乗客たちの責任でもある。そのため多くの人々が乗り降りする地下鉄では、様々な行動規則が絶えず放送される。電車が入って来ているので一歩下がってください、遠くに行かれる方は奥の方に入ってください、火事発生時には非常用ボタンで扉を開いてから速かに避難してください、老弱者に席を譲ってください、携帯電話をマナーモードにしてください、周辺に怪しい人がいたら申し出てください、隣人に‘嫌悪感’を与える行為をしないでください、扉に寄りかからないでください、品物売買する行為をしないでください、ホームと電車の間隔が広いので降りる時は足元に気を付けてください……まとめると‘安全’そして‘配慮’である。しかし乗客はそのような案内放送をめったに注意して聞かない。

地下鉄では案内放送以外にも多くの情報があふれている。ホームから車内に至るまで様々な動画とポスターの広告物が乗客の目を引き付ける。そして多くの乗客たちは午前配布される 無価紙新聞を輪読する。椅子の上の棚はそれらを交換する‘共有フォルダ’として活用される。その棚に山ほど積まれている新聞は、都会人たちが無差別に消費情報の排泄物のように見える。乗客たちは新聞を読まないのであれば、本に没頭したり、イヤホンをして音楽や映像に没頭したり、携帯電話でメールを送ったりゲームに熱中したり、または最初から目を閉じて眠ろうとする。窓の外には風景が広がっていないため、非常に退屈であるのだ。

そのうつろな視線を伸ばす対象の一つは、まさに人だ。外部と遮られた空間で多くの人々が窮屈に感じている中、互いに無関心なふりをしながらも相手に対する関心の触角が鋭敏に動く時がある。混雑している時、窓を鏡として隣人の顔をこっそり盗み見たり、前に座っている人をちらっと見ながら様々な想像を広げたりする。文の最初に引用したミュージ

カルの一つの語句はまさにそんな状況で心の中につぶやく言葉だ。密集した状況で他人の小さな身振りや行動がよくない感情を誘発する時が度々あるが、些細な事ではそのような感情を表に出さない。両足をぱっと広げて隣に座っている人を不便にさせるおじさん（いわゆる^{チョッポルラム}‘쪼꼬리남’）、大きな声で携帯電話をするおばさん、席を早くとるために他の乗客を押しのかけて入って来る年寄り……。

しかし、できるだけ無関心なふりをしていながらも、ある瞬間相手に露骨に近づいていく場合があるのだが、‘개똥녀（犬糞女）’事件が代表的な事例だ。2005年6月ソウルのある地下鉄で女性が連れていた愛犬が床に排泄をし、それを片付けなさいという周辺乗客たちの要求を拒否してつけられた名前が개똥녀だ。この場面をある乗客が撮影して自分のブログにあげると⁶ネチズンたちの間であつという間に広がっていき、結局その身元まで調べられたが、これをきっかけに個人のプライバシーとサイバー暴力に関する論争に火がついた。개똥녀はいつの間にか外国人にまで知れわたるようになった。ウィキペディアに‘Dog poop girl’という単語に翻訳されて、개똥녀事件の真実が関連資料とともに詳しく紹介されている。

しかし、無関心な障壁はそのように否定的な状況だけで崩れることではない。年をとった大人たちは横に座った人々にすぐ話をかけたり、かわいく見える赤ん坊がいたら「何歳？」と聞いたりする。また泣く子どもをあやし慰めるお母さんの中には、横に座った男に不意に「おじさん、こいつ！してください」という困ったお願いをする人もいるのだが、このようにためらわず突然声をかける姿は、都市の冷たさといかにも対照的だ。

もう一つ地下鉄で見られる活発な相互作用は、年寄りに対し席を譲ることだ。韓国に訪れる外国人たちが不思議に眺めるこの美風良俗が健在するわけは何か。そこには年寄りを敬うという意味もあるが、席を譲らなければ他人からきつい目で見られることも作用している。自分と他人が老弱者であるのかをこれほどまでに敏感に意識しなければならない空間はない。

そうであるかと思えば慶北大学社会学科천선영（チョンソニョン）教授は地下鉄で老弱者という言葉が含む意味に対して興味深く分析している。彼は‘老弱者’という範疇に注目する。老弱者の区分は必然的に非老弱者という存在を仮定しており、そのような相互自己の規定と境界の設定は社会的緊張を伴うとみている。そしてその区別は老弱者たちを排他的に分割するのだが、これは老弱者席の配置にもそのまま反映されていると言う。すなわち老弱者席が車両のあちこちに散らばって配置されているヨーロッパと違い、韓国では両側の隅に追い込まれて置くことだ。

地下鉄では時々感動的な美談の主人公たちが誕生したりもする。ホームと電車の間に、ある乗客の足が挟まった時、数十人が飛びつくように電車に押し上げた場面は、オンラインを通じて広く多くの人に知らされた。そして2001年日本の東京の新大久保駅で酒に酔っ

⁵ 電車の中で脚を広げて座っている男性のこと

⁶ ネットワーク（network）＋市民（citizen）の合成語

て線路に落ちた乗客を助けようとして命を失ったイ・スヒョンさんは、韓日交流のしかりとした架け橋になった。

地下鉄のそのような‘英雄’は他の国でもたびたび現われる。2007年の初め、ニューヨークで、50歳の黒人である建設勤労者웨슬리 오트리（ウェスルリ オトゥリ）は、ある青年が線路に落ちるやいなや飛びおりて体で覆って命を救った。彼は、‘地下鉄スーパーマン’という名前で言論に特筆大書され、ヒラリークリントン上院議員が彼の勇気を称える決議案を提出するまでに至った。また各地から激励金が入って来た。冷たく無関心な人間疎外の極致を見せたニューヨークで、そんな人物が出たということにアメリカ人たちは大きな慰めを受けたと言う。

地下鉄は何だろうか？慌ただしい会社員たちの移動経路/年寄りたちと失職者たちの負担のない仮の住まい、前近代的な無秩序と隔たりのなさがよく現われる点が地帯/案内放送で英語の公用化が自然に定着されたグローバル化した（？）公共場所、お互いにできるだけ無関心で徹底的な匿名の空間/‘개똥녀’のような破廉恥な行動を絶対に見逃さない厳しい監視網、数百万の市民たちの安全な交通手段/一瞬で大惨事が起きる危険施設、東方礼儀国最後の砦/セクハラが常習的に発生する区域……このように相反した様々な顔をして、地下鉄は都市の地下を激しく走っている。人と人、場所と場所を息苦しく繋いでいる。

地下鉄から見る韓国の現状

森田幸枝

<はじめに>

私は、今回のスタディーツアーで韓国の地下鉄の現状について調査しました。

<韓国の地下鉄>

現在ソウル市内を走る地下鉄には1号線から9号線があり、市民の重要な移動手段となっています。特にソウル市内は時間帯によって車の渋滞が多いのですが、その点においても地下鉄は、市内を網目のように走っているので移動手段として大変便利になっています。また、路線ごとに車両が色分けされており、駅にもそれぞれ番号がつけられているので初心者でも利用しやすくなっています。

現在ソウル市内であれば一区間の料金は900ウォン（12キロまでそれ以降は6キロごとに100ウォンずつ加算される）となっており、T-money と呼ばれる交通カードを利用すると更に割引になります。（T-money を利用した場合は100ウォンの割引あり）

T-money とは、ソウルメトロ、ソウル都市鉄道、仁川広域市地下鉄公社、韓国鉄道の広域電鉄やソウル、仁川、京畿道の各路線で 사용할 ことができる交通カードの一種で、小銭を持ち歩く必要がなく、運賃が割引になるというメリットがあります。この T-money は、「次世代型新交通カード」とも呼ばれ、交通カードとしての利用以外にも、加盟店でポイントを貯めて各種のサービスを受けることができ、将来的には今よりも幅広い分野での利用が可能になると言われています。駅の窓口やコンビニ、ロッテワールド、教保文庫、T-money 加盟店などで購入することができます。なお T-money はプリペイド式（前払い制）で、一定金額をカードにチャージしながら使用するものです。またカードの残金が残りが少なくなったり、0 になると、地下鉄の窓口や T-money の自動チャージ機などで再び一定金額を支払うことにより繰り返し何度でも使用することもできます。地下鉄やバスを多用する人は T-money を持っている と大変便利です。

地下鉄の中では、その国の文化を知ることができます。儒教社会の韓国では目上の人を敬う慣わしがあるので、お年寄りが乗車してくると、誰かが席を譲ります。今回調査したなかでは、立っていたお年寄りも居ましたが、席を譲る若者も多くいました。社会の変遷



の中で少しずつ習慣が変わっているのは確かですが、いまだに目上の人を敬う傾向は強いと感じました。

韓国の地下鉄で特徴的なものと言えば「物売り」です。商品はさまざま、絆創膏や傘などの日常雑貨から CD などがあります。車内全体に聞こえるような大きな声で商品の説明をして、CDなどは実際に音楽を流して宣伝します。座っている乗客の膝の上に商品を置いていき、説明をした後に回収する場合があります。また、車内に限らず乗り換えの通路でも商売をしている者がいます。特



別関心のないものは耳を傾けてはいないのですが、実際に購入する者もいるようです。このような光景は日本ではあまり見受けられないのですが、韓国社会では珍しくない光景の一つといえます。ソウル市内の地下鉄ではかなりの確立で物売りに遭遇することができます。私たち日本人にとっては非常に珍しい光景なので地下鉄に乗る楽しみが一つ増えるのではないのでしょうか。

特徴的な光景として次にあげられるものは、宗教の勧誘です。主にキリスト教の勧誘が多いようです。教会の数も多く、街のいたるところに十字架が見えます。教会のパンフレットを配布し、語り続ける者もいます。宗教の勧誘は街中でもよく行われていることです。



地下鉄の車内を見ると、堂々と携帯電話で通話する者がいます。携帯電話に関しては車内でもトンネル内でも電波は良く、大声で話していても誰も気にする者はいません。車内放送でも携帯電話を控えるよう忠告することはありません。あちらこちらで着信音が響きます。周りを

気にせず話す者がほとんどなのですが、手を口に翳し周りを気にして話す者もいます。また車内では本を読む者、雑誌を読む者、ケータイ型テレビを見る者、新聞、会社の論文に目を通す者、ゲームをする者、音楽を聴く者、寝ている者などが居ます。少し前までは考えられなかった事だと言われた車内での化粧をする人も今回見受けられました。日本でも本や雑誌、音楽を聴いたりすることは当たり前とされています。韓国では音楽やテレビをイヤホンなしで聴いていたりするなど日本よりはるかに車内が私的公共の場になっているようです。

韓国の地下鉄において様々なポスターも目につきます。日本にも様々なポスターがあり、目を引くのですが、日本と違ったポスターを探すのも楽しいものでしょう。韓国では公の場で他人の目を気にせず、スキンシップをしたりするので公の場でスキンシップをすることを禁止するポスターも車内には貼られています。韓国でも日本と同様、痴漢が多発しているようで、その注意を促すポスターや病院の宣伝などと様々です。また、どの車両でも電工掲示板が設置されていて次の駅を示したり、宣伝が流れたりします。車内放送は、韓国語、英語、日本語で案内放送を流し、到着と出発でアナウンサーの性別が異なります。



身体障害者の人も暮らしやすい街にするのはどこの国も考えなければならない問題の一つだと思いますが、そのなかでも韓国の地下鉄は改善すべき点があるのではないのでしょうか。私にとっても地下鉄の乗り換えは階段が多く大変なものでした。韓国の地下鉄は目の不自由な方用に点字ブロックが設置されている箇所もあったのですが、必要箇所に設置されていないケースもありました。



<考察>

地下鉄から韓国の現状を見ることができます。韓国の地下鉄内が乗客にとっての私的公共の場になっているのは、社会の変遷からだと感じました。また、私は乗車中に隣に座っていた老婆に日本語で話しかけられたのですが、その人は列記とした韓国人でした。歴史的な問題も未だに残っているが時代が変わるにつれて日韓の友好関係の道が徐々にひらかれ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

<参考文献>

KONEST /韓国ソウル/交通/T-money について

http://www.konest.com/data/traffic_info_detail.html?no=1259 (2009・8・26 取得)

II. 專門演習

翻訳

『마음에 행복을 주는 이야기』

사랑이 아름다운 건
愛が美しいのは

사랑이 아름다운 건 이별의 슬픔을 머금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생명이 유한하다는
愛が美しいのは別れの悲しみを含んでいるからだ。人間の生命が限りあるという

점이 역설적으로 인간을 더욱 소중한 존재로 만드는데 사랑도 마찬가지다. 소중한
点が逆説的に人間をさらに大切な存在にさせるのだが愛も同じだ。大切な

사랑일수록 단명하게 마련이다. 풀잎 끝에 영롱하게 맺혔는가 싶었는데 어느새 사라져
愛であるほど短命なものである。草葉の先にきらきらと宿ったと思ったのにいつの間にか
消えて

버리는 이슬과 같아.
しもう露のようだ。

사랑이 이슬과 같이 덧없다고 해서(ephemeral)그 가치마저 덧없는 것은 아니다.
메마른

愛が露のように儚いものだからと言って、その価値さえ儚いものではない。干からびた

사막의 식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이슬과 같이 사랑은 이 무미 건조한 인생과
세계에

砂漠の植物に決定的な役割をする露のように愛はこの味気なく乾いた人生と世界に

생명수를 공급하고 있다.
生命水を供給している。

생명수가 중요한 것은 구태여 사막에 가보지 않아도 안다. 우후죽순이라는 말도
있지만

生命水が重要なのはわざわざ砂漠に行ってみなくてもわかる。雨後の筍という言葉もあるが、

비가 온 며칠 후 상추밭에 가보면 물의 위력을 새삼 실감할 수 있다. 아기 손보다

雨が降った数日後チシャ畑に行ってみると水の威力を改めて実感できる。赤ちゃんの手より

작던 상추가 어른 손바닥보다 큰 잎으로 온 밭을 덮는다. 좀 과장해서 말하자면
小さかったチシャが大人の手のひらより大きな葉で畑全部を覆っている。少し大げさに言う

상추를 뜯고 난 후 어찌다 뒤돌아보면 또 몇 센티쯤 자란 것 같은 느낌을 받을정도다.
チシャを摘んだ後ふと振り返ってみるとまた何センチか大きくなったような感じを受ける
ほどだ。

우리의 험난한 인생 길에 사랑이야말로 마라톤 코스 곳곳에 놓여진 생수와 같아.
私たちの険しい人生の道のりに愛こそマラソンコースのいたる所に置かれた生命水のよう
うだ。

자신이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 외에 사랑을 추가시킨다면 누구나 풍요로운 인생이
될것으로
自分が追求する人生の目標の他に愛を追加することによって、誰でも豊かな人生になると

확신한다.
確信している。

용기를 주는 사람이 최고다
勇氣をくれる人は最高だ

중국 격언에 우리가 진정으로 복수해야 할 사람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中国の格言に私達が本当に復讐しなければならない人は私達に恩恵を与えた

사람이라는 말이 있는데 대단히 의미심장한 말이 아닐 수 없다.
人であるという言葉があるのだが、非常に意味深長な言葉だ。

어려울 때 결정적으로 한두 번 도움을 주는 것은 좋지만 지속하면 자립심을
困っている時、決定的に1, 2回助けを与えるのは良いが、続けると自立心を

기르는 데 걸림돌이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그러나 진심으로 용기를 주는
育てることに對しては、妨げになる場合をたくさん見る。しかし、本当に勇氣を与える

것은 아무리 지나쳐도 좋다.
のはいくら度を超しても良い。

미국의 출판업자, 문필가, 정치인, 과학자로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의 하나인
アメリカの出版業者、文筆家、政治家、科学者として最も尊敬される人の中の一人であ

벤저민 프랭클린은 보스턴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るベンジャミン・フレンクリンはボストンの貧しい家庭で生まれた。

17 세 때 필라델피아로 이주해 출판업 등을 통해 자수성가한 후 42 세 때
17歳の時、フィラデルフィアに移住して出版業などを通して、自力で一家の暮らしを

은퇴하고 글 쓰는 데 전념해 많은 업적을 남겼다.
立てた後、42歳の時引退して文を書くことに専念して多くの業績を残した。

한 번은 조셉 프리스틀리라는 사람이 우연히 프랭클린을 만났는데 그 당시 그는
ある時、ジョセフ・プリストリという人が偶然フレンクリンに会ったのだが、その当時

설교를 잘하지 못해 목사직을 포기하고 교사직을 알아보고 있었다. 프랭클린이
彼は説教が下手で牧師職を放棄して、教師職を探っていた。フレンクリンが

그를 만나 보니 초등학교 교사가 적성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彼に会ってみると、小学校の教師が適性にも合わないだけでなく、仕方なく

선택하는 직업이라 성공할 가능성이 작아 보였다. 그래서 ‘전기의 역사’에 대한
選択する職業であると成功する可能性が低いように見えた。それで‘電気の歴史’につい

책을 쓸 능력이 충분하니 한 번 써 보라고 권했다.
ての本を書く能力が十分なので、一度書いてみると勧めた。

그는 프랭클린의 격려에 힘입어 곧 수락했다. 물론 프랭클린은 자신의 책과 기록
彼はフレンクリンの激励に恩恵を被ってすぐに受諾した。もちろんフレンクリンは自分

등을 참고 자료로 제공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の本と各種の記録などを参考資料として提供するなど、支援を惜しまなかった。

프리스틀리는 결국 일 년 만에 책을 완성해 발표했으며 과학자가 되었고 결국은
プリストリは結局たった1年で本を完成させ発表し、科学者になって結局は

최초로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소화기도 발명하는 등 성공적인 사람이 되었다.
初めて二酸化炭素を利用した消火器も発明するなど、成功した人になった。

사십 세 이전에는 미모를 가진 매력적인 여성이 배우자감으로 최고라고 생각한
40歳以前には美貌を持った魅力的な女性が配偶者として最高だと考えた

적도 있으나 불혹의 나이가 되어 인생에 대해 어느 정도 알다 보니 남자에게 힘과
こともあるが、40歳の年齢になって人生についてある程度わかってくると、男性に力と

용기를 주는 여자가 제일임을 깨닫게 되었다.
勇気を与える女性が一番であることを悟るようになった。

남자만이 진실한 사랑을 알고 있다
男だけが真実の愛を知っている

남자들은 겉으로 보기엔 육체적인 사랑에만 탐닉할 것 같지만 사실은 남자만이
男たちは表面で見るには肉体的な愛にだけ溺れるようだが、実際は男だけが

진실한 사랑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있다. 모파상의 ‘의자 고치는 여자’가 아마도
真実の愛を長い間大切にしている。モーパッサンの「椅子直しの女」がたぶん

유일한 예외적인 경우라 할 것이다.
唯一の例外的な場合だろう。

성적인 편견이라는 비난을 감수하고 말하자면 본래 ‘계집이란 쌀쌀하고 매정한
生的な偏見という非難を甘受して言えば、本来女というのは「冷淡で薄情なもの」

것’으로 ‘펭귄 노릇’을 제대로 할 때나 붙어 있다. 동물의 세계에서 암컷이
で「ペンギンの役」を思い通りにするときだけ男にくっついている。動物の世界で雌が

본능적으로 가장 유능하고 강력한 수컷을 고르듯 그것이 자연의 섭리며 인정이기
本能的に最も有能で力強い雄を選ぶように、それが自然の摂理であり情けである

때문에 애초에 지고한 사랑을 꿈꾸지 않는 것이 좋다.
ため最初から至高な愛を夢見ない方がよい。

‘이별이 작은 시대’를 얘기하던 시인도 우리가 ‘당장은 갈 수 없는 곳(He’s
「別れが頻繁な時代」を語った詩人も私たちが「すぐには行くことができない所」

gone where we can not follow)’에 갔을 정도로 세월이 흘렀다. 이별이 잦은 이유는
に行っただけくらい歳月が流れた。別れが頻繁な理由は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론은 하나다. Mr.Right 이나 Ms.Right 이 아니기 때문이다.
様々あるだろうが結論は一つだ。相手が自分にふさわしくないからだ。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정한 사랑을 찾아야 한다. 진정한 사랑의 판별법은 그 사랑을
時間がかかっても本当の愛を探さなくてはいけない。本当の愛かどうかはその愛に

만난 사람들은 누구나 이해하겠지만 의외로 단순하다. 놓으려 해 스스로
出会った人々は誰でも理解することだが、意外に単純だ。手放そうとしても自然に

되돌아오는것만이 진정한 사랑이다. 어쩌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밀착되어 있어
戻ってくるものだけが本当の愛だ。どんなに遠く離れていても密着していて

‘특수한 인력에 의해 되돌아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하는 사랑만이 진정한
「特殊な引力によって戻ってくるもの」のような感じをさせる愛だけが本当の

사랑이다. 억지로 조건을 맞춰 사랑하려다 보면 더버빌의 테스트 같은 결말을 맞이할
愛だ。無理やり条件を合わせて愛そうとしてもドボビルのテストのような結末を迎える

수밖에 없다.
しかない。

직접 관련이 없음에도 춘천의 옛 성심여대까지 출강한 노 수필가가 왔는가 하면
直接関連がないことにもチュンチョンの昔ソンシム女子大まで出講した随筆家が

20 여 년 동안 ‘하얀 기억 속의 첫 여인’ 을 찾아다닌 것도 남자다.
いるのかどうかすると20年の間白い記憶の中の初恋の女性を探しまわったのも男だ。

첫 여인의 정을 잊지 못해 반평생 동안 봉평을 떠나지 못하는 장돌뱅이도 우리의
初恋の女性の情を忘れる事ができず半生の間離れる事が出来ない行商人も私たちの

기억에 새롭다. 흐드러지게 핀 메밀꽃이 그녀의 고운 얼굴처럼 느껴졌는지도
記憶に新しい。見事に咲いた蕎麦の花が彼女の綺麗な顔のように感じられた

모른다.
かもしれない。

오늘은 메밀꽃 핀 그곳을 걷고 싶다.
今日は蕎麦の花が咲いたところを歩きたい。

가끔 낮잠을 즐기자 時々昼寝を楽しもう

직장인들이 평일에 낮잠을 자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働いている人たちが平日に昼寝をするということはほとんど不可能だ。

그러나 주말이는 잠시라도 낮잠을 권하고 싶다. 심신이 지쳐있을 때 낮잠 만한 것도 없다.

しかし週末には少しでも昼寝を勧める。しかし週末には少しでも昼寝を勧める。心身がくたびれたとき、昼寝ほど勝るものはない。

낮잠 하면 나는 주로 고희의 작품이 떠오른다. 고단한 농사일을 하다가 잠시 밀짚 단
昼寝というと、私は主にゴッホの作品が浮かぶ。疲れて農作業をしていて 少し麦わらの束
の上に夫婦と一緒に横たわって昼寝を楽しんでいる姿であるのに

위에 부부가 함께 누워 오수를 즐기고 있는 모습인데 남편의 옆에 벗어 놓은 낱은
の上に夫婦と一緒に横たわって昼寝を楽しんでいる姿であるのに夫のそばに脱いでおいた

신발과 두 부부의 수수한 작업복이 그들의 형편을 말해준다.
古い靴と2人の夫婦の地味な作業服がそれらの暮らしを語ってくれる。

그러나 남편 쪽으로 향해 엎드려 자고 있는 아내의 모습에서 부부의 사랑이 은은히 전달된다.

しかし夫側に安心してうつぶせて寝ている妻の姿から夫婦の愛がかすかに伝わる。

낮잠의 효용에 대해서는 의학적 또는 과학적인 증거가 많이 있겠지만 가장 인상적인 것은 한경직 목사의 낮잠이다.

寝の効用については 医学的または科学的な証拠が多くあるが、最も印象的なことは ハン・ギョンシ크牧師の昼寝だ。

그는 얼릴 적부터 몸이 약했다. 그러다 보니 미국 유학 시절인 청년기에 편결핵에 걸려 생사의 갈림길에 서기도 했다.

彼は幼い時から 体が弱かった。そのためにアメリカ留学時代で、青年期に肺結核にかかって生死のわかり目にたったりもした。

그런 신체적인 조건을 아는 그의 부인이 어떻게든 시간을 내 남편이 낮잠을 자도록 했다고 한다.

そして身体的な条件を知っている彼の妻がなんとかして時間をつくって夫が昼寝をすすめた。

그 시간에는 동네 아이들이 시끄럽게 놀지 못하게 단속했다는 일화도 있다.

その時間には町内の子供たちがうるさく遊ぶことができないように取り締まりをしたという逸話もある。

그 정성 때문이었는지 한 목사는 종교인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 상을 수상, 세계적인 목회자로 존경을 받으며 90 세가 훨씬 넘도록 장수했다.

その精神のせいだったのか ある牧師は 宗教人のノーベル賞という テンプルトン? 賞を受賞、世界的な(キリスト教と信者の信仰生活の指導者)として尊敬を受け 90 歳がはるかに越えるまで長生き(長寿)した。

처칠이 60 대 후반, 하루에 16 시간씩 일하며 2 차 대전을 지휘할 수 있었던 것도 낮잠의 덕택이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이야기다. 이만큼 낮잠과 휴식은 최상의 에너지원이다.

チャーチル大統領が 60 代後半、1 日に 16 時間ずつ働き、第二次世界大戦を指揮できたことも昼寝のおかげだということはよく知られた話だ。このように昼寝と休息は最上のエネルギー源だ。

작은 친절이 큰 결과를 낳는다
小さな親切が大きな結果を生む

1851년에 미국 최초로 여자 의사가 된 엘리자베스 블랙웰이 처음 개업을 하려 했을 때 아무도 그녀에게 빌딩을 임대해 주려 하지 않았다.

1851年に米国最初に女医者になったエリザベス・ブラックウェルが初めて開業をしようとした時誰も彼女にビルを貸そうとしなかった。

천신만고 끝에 의원을 열었지만 아무도 여자 의사에게 진료를 받으려는 사람이 없었다. 多くの苦勞と困難の末に病院を開いたが誰も女医者の診療を受けようとする人はいなかった。

몇 주일이 지났을 때 어떤 여자가 심하게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겨우 블랙웰의 병원에 찾아왔다.

何週間が過ぎた時どうにか女性がひどく苦痛な表情でやっとブラックウェルの病院に訪ねてきた。

너무나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누가 치료하든 개의치 않을 정도였다. あまりにも苦痛だったために誰が治療しようが意に介さないほどであった。

블랙웰은 그 환자를 성심껏 치료하고 돈도 받지 않았다. ブラックウェルはその患者に誠意を尽くし治療してお金も受け取らなかった。

그녀의 헌신적인 치료에 감동을 한 그환자는 주위 사람들에게 얘기했고 점차 이름이 알려지더니 결국은 더 큰 빌딩으로 옮겨야만 했다.

彼女の献身的な治療に感動をしたその患者は周囲の人々に話して徐々に名前が知られると結局はより大きいビルに移動し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

구전이란 이렇게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지는 것이다. 口伝えというのはこのように途方もない波及効果を持つものだ。

바그다드 카페 Bagdad Café 는 1988년독일에 의해 제작된 영화다. バグダッド カフェ Bagdad Cafe は1988年ドイツによって製作された映画だ。

이 카페는 주로 대형 트럭만이 지나다니는 미국애리조나 사막의 한촌, 먼지만 폴폴날리는 큰길가에 자리 잡고 있다.

このカフェは主に大型トラックだけが通る米国アリゾナ砂漠の寒村, ホコリだけがピューピュー飛ぶ大通りの傍に店を構えている。

어느 독일인 부부가 라스베가스에 놀러 왔다 대판 싸우고 헤어지게 된다.

あるドイツ人夫婦がラスベガスに遊びにきて大ゲンカして別れることになる。

마술사였던 아내가 이 퇴락한 카페에 들렀다가 그녀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유명한 카페로 살아난다.

魔術師であった妻がこの崩れ落ちたカフェに立ち寄って彼女の献身的な努力で有名なカフェに生き返る。

고객에 대한 특별한 서비스, 친절이 고객을 다시 불러모을 수 있다는 것을 실증해 보인 영화다.

顧客に対する特別なサービス, 親切が顧客をまた呼び集めることができるとの確証をみられる映画だ。

갑자기 내린 비로, 물에 빠진 생쥐처럼 젖어 있는 여자에게 건네는 타월 한 장이 다이아몬드 이상의 효과를 내기도 한다.

いきなり降った雨で, 水に落ちたハツカネズミのように濡れた女性に渡すタオル一枚がダイヤモンド以上の効果を発揮したりもする。

후회하지 않는 인생 後悔しない人生

짧게는 1 시간, 보통 2~3 일, 길어야 3 주일을 산다고 하는 하루살이에 비하면 인생이
短くて1時間、普通2~3日、長くて3週間生きるというカゲロウに比べると、人生は

길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주적인 시간에 비하면 짧기만 한것이 인생이다. 어떻게
長いという人もいるが、宇宙的な時間に比べるともっぱら短いのが人生だ。どのように

사는 것이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이라도 감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生きることが後悔しない人生を生きることだと、恐れることなく自信を持って言える人は

얼마나 될까? 종교인들과 철학자들 혹은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할
いくらいるだろうか? 宗教者や哲学者たち或は社会的に成功したという人々はそれなりに

말이 많을 것이다.

言いたいことが多いだろう。

하지만 그렇게 예술 같은 인생을 살만큼 현실이 녹록지는 않다. 보통의 사람들은
しかし、そのような芸術の様な人生を生きるほど現実はたやasukない。普通の人々は

생업에 충실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주위의 사람들로 부터 인심을 잃지 않을
生業に充実でありながら家族の生計を維持し、周囲の人々から認識を失わない

정도의 처신만 해도 잘하는 것이다.

程度のふるまいだけでもうまく暮らしているのだ。

여기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있었다면 어느 기준으로 보든 성공적인 삶을
ここで愛する人々が途切れることなくいたならばどの基準から見ても成功的な人生を

산 것이 아닐까.

送ったのではないだろうか。

예술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인생이 풍요해지도록 돕는 것인데, 어떤 이들은 ‘인생의 芸術というものとは結局私たちの人生が豊かになるように手助けをするもので、あるものは

예술’ 이야말로 가장 귀중한 것이라고 한다.
‘人生の芸術’こそ最も貴重なものだという。

유명한 스타는 아니지만 우리 주변에 그들로 인해 세상이 밝아지고 힘이 되는
有名なスターではないが、私たちの周囲で彼らにより世界が明るくなり、力になる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특히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나타나 말없이 큰 힘이 되곤 한다.
人々がいる。彼らは特に大変なことにあった時に表れて、言葉なく大きな力になったりする。

인간에 대해 실망하고 마음의 문을 닫으려 할 때마다 그들은 보고는 인간만이
人間に対して失望し心の扉を閉じようとするたびに彼らに対しては人間だけが

희망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런 일이 가능케 하는 사람들은 전통적인 개념으로는
希望という考えをするようになる。このようなことを可能にする人々は伝統的な概念からは

설명하기 힘들지만 분명 이런 사람들도 예술가라 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説明するのが難しいが、明らかにこのような人々も芸術家といえる主張が説得力を

갖는다. 이들은 인생의 예술가로 하루하루 나름대로 작품을 만들고 있다.
持つ。彼らは人生の芸術家として一日一日それなりの作品を作っている。

자신의 기쁨을 위해 발휘하는 예술적 재능보다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고 즐거움이
自分の喜びのために発揮する芸術的才能より、他の人の力になり楽しく

되게 하는 인생의 예술이야말로 사실은 가장 매력적인 예술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させる人生の芸術こそ、本当は最も魅力的な芸術ではないだろうかと考えてみた。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地球上で最も幸せな人

세계적인 기업가나 정치가도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世界的な企業や政治家も幸せな人になれる。自分が望むことを

성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일반적인 상식을 보기 좋게 뒤엎는 여론
成就したためだ。しかし、私達のこのような一般的な常識をわかりやすく覆す世論

조사가 영국의 한 신문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 조사에 의하면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調査がイギリスのある新聞を通じて成り立った。その調査によれば、最も幸せな人は

다음과 같다.

次のようだ。

-하루 종일 바쁘게 보낸 엄마가 아기를 욕조에서 모욕시킬 때.

-1日中忙しく過ごした母が赤ちゃんを湯船で沐浴させる時。

-해변에서 모래성을 쌓고 지켜보는 아이.

-海辺で砂の城を積んで見守る子ども。

-인고의 노력 끝에 작품을 완성하고 차를 마시면서 그를 바라보는 예술가.

-忍苦の努力の末に作品を完成させ、お茶を飲みながらそれを眺める芸術家。

이 신문에는 없었을지 모르지만 남편과 자녀를 위해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この新聞にはなかったかもしれないが、夫と子どものために夕食を準備する

전업주부도 행복한 사람들 중의 하나가 아닐까 생각한다.

専業主婦も幸せな人々の中の1人ではないかと思う。

격언에도 있듯이 행복해지기만 쉬운 것이다.

格言にもあるように、幸せになるのは簡単だ。

남들보다 더 행복해지려 하니 행복을 느끼기가 어렵다. 행복을 흔히 ‘분에 넘치는 他の人よりももっと幸せになろうとすればするほど幸せを感じにくい。幸せをよく

상태’라고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불행한 사람들도 많다.

‘盆にあふれる状態’と誤って考えるために不幸な人も多い。

몇 년 전만 해도 번듯한 직장에서 직원들의 결재서류를 받던 사람이 시력을 잃고 何年か前だったら立派な職場で従業員の決裁書類を受け取った人が視力を失い、

결국은 구조 조정의 대상이 되어 식당 일을 하는 아내의 도움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結局はリストラの対象になり、食堂の仕事をする妻の助けで生計を立てる

딱한 사정을 들은 적이 있다. 생활은 어려워도, 시력만 온전하면 못할 일이 없는데 気の毒な事情を聞いたことがある。生活は貧しくても、視力だけ申し分なければできない

사람들은 이런 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

ことはないのに、人々はこのようなことをあまりにも当然に思っている。

慣用句

「ハングル」検定公式ガイド
合格도우미

	페이지수	慣用句	日本語訳	例文(韓国語)	例文(日本語訳)
1	P.145	값을 하다	その価値にふさわしいことをする	비싼 악기는 비싼 값을 해서 좋은 소리 난다.	高い楽器は高いだけあって良い音を出す。
	P.145	기분이 없다		친구 권유에 마음이 없어요.	友達の誘いに気が乗らない。
	P.145	꽃을 피우다	盛んにする/名を上げる	그녀는 가수로서 꽃을 피웠다.	彼女は歌手として名を上げた。
2	P.145	눈을 주다	①目で合図をする ②目を向ける/視線を移す	회의중 눈을 주어요.	会議中に目で合図をする。
				주위 사람들이 깨닫지 않도록 눈을 썼다.	周囲の人々に気づかれないように目で合図をした。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서 친구에게 눈을 주었다.	その人の声を聞いて友達に目で合図をした。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려서 많은 사람들이 눈을 썼다.	突然大きな音が聞こえて多くの人々が視線を移した。
				그는 창 밖으로 눈을 썼다.	彼は窓の外へ目を向けた。
	P.145	눈이 빠지다	首を長くして待つ	BIG BANG의 통장을 눈이 빠집니다.	BIG BANGの登場を首を長くして待ちます。
				한국 여행에 눈이 빠진다.	韓国旅行を首を長くして待つ。
				빨리 대압을 듣고 싶어서 눈이 빠졌다.	早く返事をきぎたくて首を長くしてまった。
				남자친구가 약속 시간이 돼도 안 와서 눈이 빠졌다.	彼氏が時間になっても来ないので首を長くして待った。
				그에게서의 대답을 눈이 빠지다.	彼からの返事を首を長くして待つ。
	P.146	눈이 어둡다	①視力が悪い ②(よくないことに心を奪われ)理性を失う	저는 아주 눈이 어둡습니다.	私はとても視力が悪いです。
				눈이 어두워서 안경을 써야 한다.	視力が悪いので眼鏡をかけなければならない。
				돈에 눈이 어두워서 나쁜 일이 생겼다.	お金に目がくらんで悪いことが起きた。
				눈이 어두워서 밤을 새서 계속 놀았다.	理性を失って、夜を明かしてずっと遊んだ。
				눈이 어둡어 안경을 쓰고 있다.	目が悪くて眼鏡をかけている。

3	P.146	답을 짚다	關係を断つ/縁を切る	친구와 싸워서 답을 짚었다.	友達とけんかして關係を絶った。
				부모와 답을 짚었다.	親と縁を切った。
				드디어 두 사람은 답을 짚었다	ついに二人は關係を絶った。
				친구 악행을 보면 마음에 답을 짚었어요.	友人の悪事を見たら心に壁ができた。
				가출한 아들과는 답을 짚었다.	家出した息子とは縁を切った。
	P.146	돈을 뿌리다	お金を無駄遣いする	백화점에서 돈을 뿌렸다	デパートでお金を無駄遣いをした。
				친구는 돈을 뿌리는 사람이었어요.	友人はお金を無駄遣いする人だった。
				살 예정이 없었던 비싼 구두를 사서 돈을 뿌렸다.	買う予定ではなかった高い靴を買って無駄遣いした。
				스트레스가 쌓여서 돈을 뿌렸다.	ストレスがたまってお金を無駄遣いした。
				자신도 돈을 뿌렸다.	ついお金を無駄遣いした。
	P.146	매듭을 짓다	事の始末をつける	이 문제만는 빨리 매듭을 짓고 싶어요.	この問題だけは早く事の始末をつけたい。
				친구를 설득하고 매듭을 짓을 셈이에요.	友人を説得して事の始末をつけるつもりだ
				그 여자는 매듭을 짓고 떠났다.	その女の子は事の始末をつけ、去った。
				매듭을 짓기 위해서 법원에 있었다.	事の始末をつけるために裁判所に行った。
				사원 모두 매듭을 짓다.	社員皆で事の始末をつける。

4	P.146	몸을 떨다	非常に興奮する	멋진 공연을 보고 감동해서 몸을 떨었다.	素敵な公演を見て感動し非常に興奮した。
				모두 이야기를 듣고 몸을 떨었다.	全ての話をきいて非常に興奮した。
				몸을 떨어서 엉겁결에 일어났어요.	非常に興奮して思わず立ち上がった。
				이건 몸을 떠는 영화예요.	これは非常に興奮する映画だ。
				연예인을 만나서 몸을 떨었다.	芸能人に会って非常に興奮した。
	P.146	물과 불	敵同士/敵対関係にある人や物事	저기에 있는 여자랑 나는 물과 불이다.	あそこにいる女の子とわたしは敵同士だ。
				두 사람은 물과 불이다.	二人は敵同士だ。
				천사와 악마는 물과 불이에요.	天使と悪魔は敵同士だ。
				두 사람은 영원한 물과 불의 관계다.	二人は永遠にライバルの関係だ。
				언니와는 자매인 동시에 물과 불이다.	姉とは姉妹であると同時に敵同士でもある
	P.146	바람을 쐬다(쐬이다)	(氣晴らしに) 出かける	시험이 끝나서 바람을 쐬었다.	試験が終わって氣晴らしにでかけた。
				어제는 공원에 바람을 쐬었다.	昨日は公園に氣晴らしに出かけた。
				일 사이에 바람을 쐬었다.	仕事の合間に出かけます。
				같이 바람을 쐬시다.	一緒に氣晴らしに出かけましょう。
				시험기간 중에 피곤해서 바람을 쐬러 나갔다.	試験期間中に疲れたので氣晴らしに出かけた。

5	P.146	발을 빼다	手を引く/引退する	이 계획에서 발을 뺐다.	この計画から手を引いた。
				그 사건에서 발을 뺐다	その事件から手を引いた。
				그는 회사 거래에서 발을 뺐다.	彼は会社の取引から手を引いた。
				그 사업에서 발을 뺐다.	その事業から手を引いた。
				나는 그 내기에서 발을 빼겠다.	私はその賭けから手を引くつもりだ。
	P.146	발이 넓다	顔が広い/知り合いが多い	나는 정계에 발이 넓다.	私は政界に顔が広い。
				그녀는 아주 발을 넓은 사람입니다.	彼女はとても顔の広い人です。
				그는 고장에서는 발이 넓다.	彼は地元では顔が広い。
				발을 넓은 친구.	顔の広い友人。
	P.146	밤낮없이	昼夜を問わず/いつも	그녀는 밤낮없이 노래를 부른다.	彼女はいつも歌を歌う。
				밤낮없이 술을 마시기만 하는 아버지.	いつもお酒を飲んでばかりいる父。
				밤낮없이 놀기만 한다.	いつも遊んでばかりいる。
				최근에는 밤낮없이 취직에 대해 생각한다.	最近はいつも就職について考えている。
				밤낮없이 자기만 하는 학생.	いつも寝てばかりいる生徒

6	P.147	밥(아침/점심/저녁) 을 사다	食事をとおる	남자친구가 밥을 다 사줬다.	彼氏が食事を全部おごってくれた。
				후배에게 밥을 샀다.	後輩に食事をとおった。
				자난번 밥을 사 주었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밥을 사겠어.	こないだおごってくれたから今日は私がおごるよ。
				오랜만에 밥을 사 주어서 놀랐다.	久しぶりに食事をとおってくれて驚いた。
				사죄로서 밥을 샅습니다.	謝罪としてご飯をおりました。
	P.147	생각이 없다	欲しくない/したくない	오늘은 숙제를 할 생각이 없다.	今日は宿題をしたくない。
				먹을 생각이 없다.	食べる気にならない。
				부모하고 싸웠기 때문에 집에 갈 생각이 없어.	親と喧嘩したので家に帰りたくない。
				싫은 일은 이제 할 생각이 없어요.	嫌なことはもうしたくない。
				별로 생각이 없습니다.	別に欲しくありません。
	P.147	속이 좁다	度量が狭い/せせこましい/偏狭だ	속이 좁은 사람은 별로 인기가 없다.	度量の狭い人はあまり人気がない。
				속이 좁은 남자다.	度量が狭い男だ。
				속이 좁은 놈이다.	度量が狭いやつだ。
				속이 좁은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다.	度量の狭い人はあまり好きではない。
				속이 좁은 사람입니다.	度量の狭い人です。

7	P.147	손에/으로 넘어가다	所有權が変わる/人の手に渡る	회사가 남의 손에 넘어갔다.	会社が人の手に渡った。
				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집 소유권이 아버지 손에 넘어갔다.	祖父が亡くなって、家の所有權が父に渡った。
				내가 쓰던 아이팟이 다른 사람 손으로 넘어갔다.	わたしが使っていたiPodの所有權が他の人に変わった。
				어느덧 손으로 넘어갔다.	いつのまにか所有權がかわった。
	P.147	손을 벌리다	手を差し出して金品を要求する	아들이 손을 벌렸다.	息子が手を差し出して金品を要求した。
				엄마에게 손을 벌렸다.	お母さんに手をさだして金品を要求した。
				거스름돈을 받기 위해서,손을 벌렸다.	おつりをもらうため、手を差し出した。
	P.147	손을 보다	手を加える/手入れする	초목을 손을 보다.	草木の手入れをする。
				일요일에는 차의 손을 본다.	日曜日には車の手入れをしている。
				집 뜰의 손을 봤다.	家の庭を手入れした。
				미숙한 작품에 손을 보았다.	未熟な作品に手を加えた。

韓国ルポ

2009 年度慶南大学交換留学生

藤村菜美

韓国に来てからもう1か月が経とうとしています。

韓国の生活にも段々と慣れてきました。

私が韓国に来て一番悩まされたことは「食事」です。

韓国は辛い食事が多いことは知っていたし、私も辛い食事は好きなのでいく前までは食事の心配はしていませんでした。

しかし韓国料理の「真」の辛さを私はなめていました。

毎食、毎食辛い食事に胃がやられました。。笑

しまいには辛いものを食べたらじんましんが出るようになってしまい、本気で悩みました。

日本に帰るころにはガリガリになってるかも一なんて思ったりもしました。

しかし慣れというものは恐ろしいですね…

辛い食事にも少しずつ慣れて来たのです!!!!今ではいっぱいご飯を食べるようになったので韓国の友人にも「豚」なんて呼ばれています。

気をつけないと…

食事に関連して私が韓国に来て驚いた日本と異なる文化を紹介します。

ある日私が友人と食事をしに行った時のことです。

昼食をとろうとお店に入り注文し、友人と一緒にご飯を食べていました。

すると店の奥から従業員の人たちがぞろぞろと料理をもって店内に出てきました。

お客さんの料理を運んでるのかなーと思っていたら、その料理を従業員がテーブルに座って食べ始めたのです!!!

日本では「お客様は神様」という考えがあるので客の前での従業員同士の会話も失礼な行為なので、ましてや飲食なんて考えられません。

その光景を見た瞬間笑ってしまいました。

しかしそのような光景はどこの店でも見られます。飲食店に限らず、服屋さんでも従業員が出前を取って店内で食べていました。

異文化って面白いなーと感じた瞬間でした。

韓国の大学祭

こんにちは。韓国に来てもう3カ月が経ちました。すっかり夏が来て学校の一番頂上にある寮の行き来に毎日ヒーヒー言ってます。笑

そろそろ県立大学も大学祭の時期ですね！私がいま通っている慶南大学でも5月19日～22日まで大学祭が行われました。

私たち日本人学生は日本語教育学科に所属しているのですが、日本語教育学科の祭りで私たち日本人留学生も出し物をしました。私たちは韓国と日本の文化差異についての劇と、世界にひとつだけの花を歌いました。日本人留学生と韓国人学生が一つのグループになって毎日練習してすごくいい経験になりました。他のグループの出し物も日本のコメディの劇やダンス、浴衣と着物の着方や日本の詩の朗読と、完成度が高くとても楽しかったです！

慶南大学の大学祭はとても大きくて驚きました。夜になると出店が道沿いに出てとにかく人！人！といった感じでした。しかし出店はほぼ全部といっていいほど全てが飲み屋でした。…さすが韓国！！！笑

初日には韓国の有名な歌手も来て大盛り上がりでした。ステージも凄く大きくて花火も上がっていました。

今回の大学祭を通して韓国の学生はすごく勉強と遊びにメリハリがあると思います。遊ぶときはとにかく必死になって遊び(笑)、勉強するときはとにかく必死に勉強します！今回の大学祭の1週間もみんな必死に遊んでいました。しかし祭りが終わると2週間後に迫った期末試験に向けて気分を切り替えて勉強に取り組んでいます。

期末試験が終われば夏休み！しっかり遊ぶためにも試験に向けて死ぬ気で取り組まないと…！！

新学期開始

早いことに二学期が始まりもうすぐ一カ月が過ぎようとしています。

慶南大学は県立大学と違い、一カ月早く学期が始まります。そして私が留学をして早くも半年が過ぎ、留学期間もそろそろカウントダウンが始まります。

ここ馬山で半年生活し、大学にもようやく？慣れてきました。一学期のころは一人で出かけることや、バス、タクシーに乗ることが怖くてなかなか挑戦できなかったのですが、今は一学期のときに出来なかったことが出来るようになり本当に嬉しいです！また、言語の面でも少しは聞き取れ、話せるようになったため、今まで話したことのなかった韓国の人も会話出来るようになり、二学期は本当の意味での留学生活を楽しく送っています。

最近韓国でも日本と同様、「新型インフルエンザ」が騒がれています。校内にもたくさん注意を促すポスターや垂れ幕などが見られます。日本ではどんな措置をとっているのか分かりませんが、慶南大学では新学期が始まって一週間は毎日学校の門のところに熱を測る人がいて、毎日測られて記録していました。寮でも特に私たち外国人は検査を行われました。また、授業中にも授業が始まる前に学生と教授の熱を測り、記録しています。最近トイレにも消毒液が設置されました。このように徹底的にインフルエンザが広がらないような措置が取られています。つい最近友達から「日本人はみんなマスクをして生活しているの？」と聞かれました。その子はNHKのニュースを見たそうで、そのニュースの中で日本人がみんなマスクをしていて驚いたそうです。確かに韓国ではマスクをした人はほとんど見かけません。逆に日本では今、マスクが欲しくても売り切れていて買えないところもあるそうで、そのことを聞いて私も驚きました。また、海外でマスクをしているのはほとんど日本人だ、ということも聞きました。その子は日本人がマスクをして生活していることをとても不便そうに感じ、また珍しかったようです。こういうところでも、日本と韓国の差異を感じます。

インフルエンザの影響で様々な人が集まる行事が中止になっています。留学している私にとっては残念でたまりませんが、私も健康には気を遣いつつ、韓国での留学生活を楽しみたいと思います！語学の面もちろん、今しか出来ないことをたくさん経験して悔いの残らない留学にしたいです。そのためにも時間を大切に、毎日毎日笑顔で生活していきたいです。

みなさんも季節の変わり目なので体調には気をつけてくださいね。

추석(秋夕)

추석とは陰暦 8 月 15 日に行われる韓国の大きな名節で、新穀物と新果実を供え、親戚一同が集まり、先祖に^{チャレ}차례(陰暦の元旦や秋夕、毎月 1 日、15 日などに位牌を安置した廟や祠堂で行う簡単な祭祀のこと)を行い、親しい知り合いや隣家と互いに食べ物を分けるなど楽しく過ごす一日のことです。日本で言うとお盆のことですね。韓国は日本と違い陰暦ですので、今年の추석は 10 月 3 日でした。

추석の日は朝には新しく出た果物と穀物を先祖にお供えして、先祖のお墓参りに行くそうです。このような習慣は日本のお盆とほぼ変わりないですね。でもやはりお供えするものや、추석の日に食べるものなどは日本とは違います。추석の日に食べるものの中でも特に気になったのが「お餅」でした。추석の日が近付くとお店には色々な種類のお餅が並びます。お餅の中にあんこが入った「ソンピョン」をはじめとしてとにかくたくさんの種類があります。私も留学生の授業で先生が色々な種類のお餅を持ってきて下さってたくさん食べました！日本のきなこもちに似たようなものもあれば、初めて体験するお味もたくさんありました。どれもとってもおいしかったです。

また韓国人の友達がお餅以外の料理を家から持ってきてくれてそれものとても美味しく頂きましたー!! 추석ならではの様々な行事、料理を楽しんで、来週から始まる中間試験に挑みたいと思いますー！

釜山花火大会

10月17日、釜山で行われた花火大会に友達と行ってきました。慶南大学から釜山までは高速バスに乗って一時間ほどで到着します。韓国では日本のように夏に花火大会のような催しはあまりないそうです。なので一緒に行った友達も「こんな大きな花火を見るのは初めてだから楽しみー！」と期待していました。花火は釜山にある橋の近くで行われるとのことでしたが、そこは人が多いだろうと思って、私たちは海雲台という海の近くで見ることにしました。しかしそこも人！人！人！で、場所取りはまるで戦いのようでした。私たちは幸いベストポジションを陣取っていたので、その争いを横目で見ていました。

10月の半ばといっても海辺ですし、夜になると段々冷えてきて、「さむーい！」と言いながら花火が始まるのを待っていました。花火といえば、浴衣を着てかき氷を片手に！という概念があったのですが、今回は温かいコーヒを片手にマフラーを巻いて…という貴重な体験をさせてもらいました。久しぶりに見た花火はとっても綺麗で感動しました。花火に合わせて音楽も流れており、本当にお祭りさわぎですごく楽しかったです。

次は一緒に行った韓国人の友達を夏に日本に招待して、一緒に浴衣を着て花火を見に行きたいと思います！素敵な思い出がまた増えました。

発想の大転換 感想

人間에게는 두 타입이 있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아무 것도 못 할 때 무리라고 생각해서 포기하는 사람과 무엇인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서 포기하지 않는 사람의 두 종류이다. 어떤 사람에게도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시련은 올 수 있다. 그때 포기해버리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성과는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성과가 따라 온다. 더 이상 아무 것도 못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전할 수 있는 그 하나의 방법에 발상의 전환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나의 경험으로 말하면 발상의 전환은 궁지에 몰렸을 때에 생각해 내는 것이다. 또 발상의 전환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상상이 풍요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발상의 전환이라고 하면 필자가 진술하는 전례가 없거나 주변이 놀라는 것 같은 것도 들 수 있지만 그것 뿐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주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시점이 바뀌고 새로운 발상을 낳을 수 있고 밑바닥에 들어가도 더 이상의 밑바닥은 없다고 생각하면 기분도 편해져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발상의 전환과는 큰 것뿐만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자신에 있어서 큰 한 걸음이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어릴 때 위대한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의 「천재와는 1%의 영감과 99%의 땀으로부터 된다」라고 하는 말에 감명을 받았다. 즉 발상의 전환만큼 관계 없이 어떤 것에 대하여도 전력으로 대응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翻訳)

人間には二つのタイプがいると考える。これ以上何も術がないとき、無理だと思って諦める人間と、何か方法はないかと諦めない人間の二つである。誰にだって、どうすることもできない試練に出会うことはあるだろう。そこで諦めてしまう人間には、それ以上の成果はない。しかし諦めず挑戦する人間には、何らかの成果がついてくる。これ以上なす術がないにもかかわらず、進んで行けるその一つの方法に、発想の転換が挙げられるだろう。私の経験から言えば、発想の転換は、窮地に迫いやられた時ほど思いつくものである。また、発想の転換が出来る人は、想像豊かな人であるとも考える。発想の転換といえば、筆者の述べる前例がなかったり、周りが驚くようなことも挙げられるが、それだけではないと考える。例えば、主観的に考えていたことを、客観的に考えることで、視点が変わり、新しい発想を生むことができるし、どん底に落ちてでもこれ以上のどん底はないと思えば、気持ちも楽になり前に進めるだろう。このように、発想の転換とは、大きなことだけでなく小さなことでも自分にとっては、大きな一歩になるのである。

最後に、私は幼い頃、偉大なる発明家トーマスエジソンの「天才とは1%の靈感と99%の汗からなる」という言葉に感銘を受けた。つまり、発想の転換だけに関わらず、どんなことに對しても全力で取り組み努力することが大切なのである。

저는 사물을「절대로 ○○다」「○○의외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정한 것은 반드시 한다」「최후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굳은 성격이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성격은 자기를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가 되지만 때론 단점이 됩니다.

사물의 시각은 가지가지고 진실도 하나가 아닙니다. 고정개념을 가지는 것은 자기 자신의 시야를 좁히는 것입니다.

“발상의 대전환” —그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물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 상대의 입장에 서보는 것은 유연한 사고방식을 더 익히는 대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翻訳)

私は物事を「絶対に○○だ」「○○以外ありえない」と考える傾向があります。それは私が「決めたことは必ずする」「最後まで諦めない」という真っ直ぐな性格だからかもしれません。このような性格は、自分を動かすエネルギーになりますが、時として短所にもなります。

物事の見方は様々で、真実も一つではありません。固定概念を持つことは自分の視野を狭くしてしまいます。

“発想の大転換” —これは非常に重要です。物事を客観的に見ること、相手の立場に立ってみることは、より柔軟な捉え方ができるようになるために重要だと思います。

어떤 의견에도 ‘우선 생각해 본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국 GE 사의 회의에서 제안된 의견은 너무 재미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은 보통에 생활하고 있어서 생각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무 관계도 없는 도구를 연결하는 발상은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으로, 모두가 ‘바보 같은 제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반대로 천재의 제안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에서는 생각해야 하는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잊지 않고 재미있는 발상을 하고 싶습니다.

(翻訳)

どんな意見にも‘まずは考えてみる’ということが重要だということに気付きました。アメリカ GE 社の会議で提案された意見は、とても面白いものだと思います。こんな考えは、普通に生活していて考えられるものではないと思ったからです。何の関係もない道具を連結する発想は、たくさんのアイデアを持っている人が考えるもので、みんなが‘バカみたいな提案’だと考えることは逆に、天才の提案とも考えることができると思いました。

人生では考え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がたくさんあると思います。しかし、このお話を忘れず、面白い発想をしたいと思いました。

이 문장을 읽고 사람은 있는 사물을 생각할 때, 하나 방법 밖에 안보이게 되어 버릴 때가 자주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끌어 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 깊게 생각해서 갑니다.

곧바로 발상의 전환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문장을 읽고, 그저 하찮은 일이 아닌 것이 거기에는 여러가지 것이 숨겨져 있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翻訳)

この文章を読んで人はある物事を考えるとき、一つの方法しか見えなくなってしまうときがよくあると思いました。すると、それを導いていくにはどのようにしたら良いか深く考えていきます。すぐに発想の転換をすることは難しいです。しかし、この文章を読み、ほんの大したことでないことでも、そこには様々なものが隠されているということを思いました。

왠지 좋지 않는 것이 있으면 우리는 마이너스로 생각하기 쉽지만 플러스 사고로 발상을 전환하는 것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느꼈다. 취직 활동의 하나로 받은 강의에서도 “자기 분석을 할 때에 단점 밖에 찾아낼 수 없다”고 고민하는 학생들이 많다고 들었다. 그러나 그 선생님은 단점이 장점도 된다고 하셨다. 가령 “왕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단단한 사람”, “착수하는 것이 늦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에도 신중하게 임한다”라고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자신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앞으로 나는 취직 활동으로 면접을 많이 받겠지만 좀처럼 내정을 받을 수 없을 지도 못는다. 그래도 자신을 다시 응시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싶다.

(翻訳)

何か良くないことがあると私達はマイナスに考えがちだが、プラス思考に発想を転換することで、前に進むことができると感じた。就職活動で受けた講義でも、「自己分析をする時に短所しか見つからない」と悩む学生が多いと聞いた。しかし、その先生は短所も長所になると言っていた。例えば、“ガンコ”と考えるのではなく“意思が固い”、“取りかかるのが遅い”と思うのではなく、“何事にも慎重に取り組む”と考えれば、自然と自分に自信を持てるようになる。

これから私は就職活動でたくさん面接を受けるが、なかなか内定をもらうことができないだろう。そんな時も自分を見つめなおすチャンスだと思って前向きに活動したいと思う。

문득 머리에 떠올린 생각이나 아무렇지 않은 생각이 나중에 좋고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것을 저도 지금까지 느껴 왔습니다. 누군가가 작은 목소리로 그냥 말한 덕분에 큰 힌트를 얻은 적도 있습니다. 이 문장을 읽고 나서 아무리 작고 바보 같다고 느끼는 생각이라도 무엇인가의 계기를 낳아 성공으로 이끌어 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떨 때에는 자기 자신을 좋을 방향으로 이끌어 준다고도 생각했습니다. 자기만으로는 생각 지도 못했던 것을, 다른 사람들 덕분에 깨닫거나 고민이 해결된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 것에 좀더 눈을 돌려 보면 아직도 새로운 발견이 있을 수 있다, 지금 있는 것들을 더 좋게 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翻訳)

ふと思ったことや、なにげない考えが後で良い大きな影響を及ぼしたりするということはあたしも今まで感じて来ました。誰かが小さな声で何気なく言った事によって大きなヒントを得られたこともあります。この文章を読んでやはりどんな小さなバカみたいだと思う考えでも何かのきっかけをうみ、成功に導くかもしれないと思いました。あるときは自分を良い方向へ導いてくれると思いました。自分では考えつかなかったことを他人によって気づいたということも何度もありました。その考えから新しい方法を思いついたり、悩みが解決されたこともありました。さまざまな物事に少し目を向けてみれば、まだまだ新しい発見がある、今あるものをさらにより良くしていけるのではないかと考えました。

발명에 있어서도 뭔가에 물두한는 일에 있어서도 개념에 사로 잡히 새로운 것은 나오지 않는다.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할 때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주위로부터 비난을 받을 때도 있다. 특히 일본인은 주위와의 와 깨지 위해서, 자신의 의사를 확실히 전하는 것을 좀처럼 하지 않는다.

불황이라고 하는 요즘. 새로운 발상을 해, 회사로부터 필요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이 불황에서 살아 남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현재 나는 특별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 이 세상에 살아 남을 수 있도록 우선 다양한 책을 읽고 지식을 얻는 것부터 시작하려고 한다.

(翻訳)

發明にしても何かに取り組むにしても概念にとらわれていると新しいものは生まれてきません。何か新しいことをする時には勇気も必要です。周りから非難を受ける事もあります。特に日本人は、周りとの和を壊さないようにするために、自分の意志を伝えたりすることをなかなかしません。

不況といわれている現在の世の中。新しい発想をし、会社から求められる人間になることがこの不況の世の中に残れる人間ではないでしょうか。私は、特別な専門性があ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この世の中に残れるように、まず様々な本を読み、知識を得ることから始めようと考えます。

나는 “바보 같은 소리다.”라는 이유만으로 의견을 바로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이 바보라고 생각한다. 아마 그들은 다음과 같은 생각하지 않는다.
“상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바보 같아서 잘 안 되는 걸까?”
아무리 타인에서 “바보 같다.”라고 비난을 받아도 가능성은 있다.
따라서, 타인의 아이디어를 들을 때는 처음부터 부정적인 태도를 하지 않도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별, 경기가 나쁜 요즘은, 한 아이디어라 헛되게에 해서는 안 된다.

私は、「馬鹿げている。」という一つの理由だけで意見をすぐに否定しようとする人間の方が馬鹿げていると思う。恐らく彼らは、このようなことは考えていない。
『常識』とは何か?、「馬鹿げているから上手くいかないのか?」
いくら他人から「馬鹿げている。」と非難を受けても可能性はある。
したがって、他人のアイデアを聞くときは最初から否定的な態度をしないように注意する必要がある。
特に、景気の悪い今は一つのアイデアも無駄にはできない。

Ⅲ. Y P U

ドリームアドベンチャー プロジェクト

『ぶちええじゃん！ブログ型山口マップ 韓国語版』
야마구치 정말 짱이에요! 블로그형 야마구치 맵』

<構成員> 佐志原彩華 原田有紀子 杉野由可子 森田幸枝 山田雄太
垣下友希 小野華奈 畑野友里恵

<目的>

私たちの専攻する韓国語を使い、山口県の魅力を紹介する「ぶちええじゃん！ブログ型山口マップ 韓国語版」を作成する。これにより韓国人観光客を増やすこと。

<活動概要>

1. 「山口のいいところ調査」
 - ・観光地、レジャー、行事、お土産、飲食店、カフェ、穴場スポット
 - ・アンケート調査実施（学生 92 名＋職員 8 名＝計 100 名）
2. 現地調査
3. ブログ作成
4. 情報発信（県大生が選ぶ山口のおすすめについて）

<成果,感想>

成果

- ・2009.10.02～2010.01.20 の期間のアクセス数：404 名
- ・アクセス地域：日本一山口、東京、新潟、大阪、福岡、広島
海外一韓国、アメリカ
- ・コメントももらいブログ上でコミュニケーションがとれた

学んだこと

- ・人にわかりやすく記事を書くことの大切さ
- ・計画の重要性
- ・みんなで活動することは難しいがやりがいがある

<反省点,課題>

反省点

- ・メンバーの都合がなかなか合わず、打ち合わせでみんなが集まらないこともあった
- ・調査をするまでの計画がきちんとたてられなかった

課題

- ・予算がない中でどのようにしてブログや調査を続けていくか
- ・一人でも多くの韓国人に見てもらうための工夫

★1 今から「ぶちええじゃんブログ型山口マップ韓国語版」の発表を始めます。

★2 構成員見せる

★3 私たちが、「ぶちええじゃんブログ型山口マップ韓国語版」を作成しようと思ったきっかけは、2008 年「釜山からおいでませ山口へ」の調査結果により、関釜フェリーで山口を訪れる韓国人観光客が少ないという現状を知ったからです。

そこで、私たちは、「ぶちええじゃんブログ型山口マップ韓国語版」を作成し、山口を PR することで、韓国人観光客を増やしたいと考え、そして韓国語でブログを書くことで、私たちが専門としている韓国語を生かすことができると考えました。またブログは、韓国語だけでなく、日本語でも書くことで、韓国人観光客に限らず、日本人にも山口を知ってもらい、山口への観光客が増えれば、地域貢献にもつながると考えました。

★4 それでは、プロジェクト課題である「ぶちええじゃんブログ型山口マップ韓国語版」の詳細について説明します。

★5 活動計画

6 月に「山口のいいところ調査」というアンケートを作成しました。

7 月にアンケート調査を実施し、

8 月にアンケートの集計を行い、

9 月に、ブログ開設の準備やアンケート調査の結果をもとに現地調査を行いました。

10 月～12 月には、ブログ更新、現地調査を続けました。

★6 アンケート調査概要

本調査では、山口のいいところについて調査しました。調査時期は、2009 年 7 月中旬で、調査対象は、山口県立大学の学生（92 名）と教職員（8 名）の計 100 名です。私たち韓国語学研究室の学生がお勧めする山口だけでなく、たくさんの人に調査することで、より充実した内容のブログとなり、また、本学の宣伝にもなると思いました。

★7 アンケート内容

項目は観光地、レジャー、行事、お土産、飲食店、カフェ、穴場スポットの 7 つに分類し、1 位から 3 位まで記入してもらいました。

★8 これは実際のアンケート調査用紙です。

★9 アンケート調査から、以上のような集計結果がみられました。(2～3秒スライド見せる)

このアンケート集計結果から、現地調査を行いました。

★10 現地調査では、秋吉台や秋芳洞、

★11 唐戸市場、ちょうちん祭り、下松健康パークなどさまざまなところに足を運びました。

★12 現地調査後、ブログ作成に取り掛かりました。

まず、私たちが媒介としてブログを選んだ第一の理由として、日本にいながら山口の情報を世界に発信できること、第二の理由として、紙媒体のマップだと更新が出来ず、最新の情報を提供できないこと、第三の理由として、ブログはコメント設定ができるため、閲覧者と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取ることが可能だからです。

しかしブログには、様々な問題点があげられます。まず不適切なコメントが書かれた場合についてですが、コメントは管理者が承認しなければ記事に載らないように設定し、完全にコメントを管理しました。プライバシーが守られているかについては、写真をブログに載せる場合は、一般の人が特定されないようにぼやけた写真を使うなど工夫しました。著作権については、他のサイトを引用した場合はURLを載せるようにしました。

また、私たちはFC2というブログを使用しています。FC2を選んだ理由は、写真や動画の容量が大きいこと、ユーザーが多く評判がいいこと、自由にテンプレートを編集できることがあげられます。FC2は編集中にページが固まったり、記事を書くときに編集ページの表示がわかりにくいなどデメリットがありますが、韓国語が使用できる点と容量が大きいという点を重視してFC2に決定しました。

★13 これは、実際のブログの写真です。

※インターネットで見せる。またはインターネットで見ってもらう。

ただブログを作成するだけではより多くの人に見てもらえないと考え、ブログの広報方法についても検討しました。

★15 ブログの広報方法としては、Mixiなど多くの人が参加しているサイトで紹介し、口コミによって広めました。

そして今後、このような名刺カードを施設や駅に配布したり、また山口観光協会などのサイトにリンクを繋げてもらえるよう申請する予定です。

★16 広報の成果

現時点の広報の成果は、アクセス数が507件、アクセス者の地域は、日本からは、山口や東京、大阪など、海外からは、韓国やアメリカなどからアクセスされています。

★17 このプロジェクトから学んだことは、まず人に分かりやすく、読みやすい記事を書くことの大切さ、計画的に進めることの重要性、仲間同士での情報共有の大切さです。また、ブログに訪問してくれた人からコメントをもらったことで、やりがいを感じたり、そのアドバイスによってよりよい記事を書くことができました。韓国語でブログを作製することで、自分の能力にも自信がつくと同時に、山口の良さを改めて知りました。

★18 一方で反省点として、アンケート調査においては、アンケート回答に空白が多かったこと、店の名前が書いてあっても、どこにあるのかわからなかったこと、アンケート集計結果を全員が把握できていなかったことがなどがあげられます。

次に、現地調査に関しては、いつどこにだれが調査に行くかを計画的にし、経費の見積もりも早めにすべきでした。

そして、ブログについては、ブログの見た目をもっと明るく人の目を引き付けるようにすればよかったと思います。また、記事をアップする間隔に差があり、カテゴリーによって記事の件数にばらつきがありました。

最後に、ブログ広報については、早いうちから口コミなどで広報するべきだったと思います。ポスターなどを作製してもっと目につきやすくし、観光協会などにリンクをしてもらうように交渉するべきでした。

★19 地域貢献のために私たちに何か出来ることがないかと思っ組み始めたこのプロジェクトですが、計画的に進められなかったり、メンバーの予定がなかなか合わず、意思疎通もあまりできていなかったことも、反省点として挙げられます。

★20 このプロジェクトを通して、山口の特産物や行事など、山口の良さを再確認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そして、その山口の魅力をブログを通して、日本人・韓国人を問わず、多くの人に伝えられたと思います。

このプロジェクトは、メンバー全員が動く必要がありました。はじめのうちは、すれ違いが多く、なかなか意見がまとまらないこともありましたが、プロジェクトを進めていく中で、一人ひとりが責任感を持ち、互いに助け合えるようになりました。

★21 最後に、今後の課題としては、次の二点が挙げられます。まず一つ目に、予算が出ない中でどのようにしてブログを更新していくか、二つ目に、一人でも多くの韓国人にブログを見てもらうためにどうするか、です。1つめの課題は来年この韓国語学研究室に入る新3年生を中心に、今後も山口について記事を書いてもらおうと思っています。2つめの課題に対しては、作成した名刺カードを開釜フェリー乗り場に置かせて頂いたり、私（原田）が3月から韓国へ留学する予定なので、このブログを広めてい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

★22 今後も、私たち韓国語学研究室は、日韓の架け橋、そして地域貢献のために様々なことにチャレンジ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以上で報告を終わります。ご清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IV. 卒業論文

日韓両言語の感謝表現に関する対照研究

国際文化 4 年
06011015 小野華奈

恋愛表現からみる
日韓コミュニケーション・スタイルの違いについて

国際文化4年
06011017 垣下友希

韓国語における同義語比較

国際文化４年
06011063 畑野友里恵

V. あとがき

あとがき

小野華奈

今年は授業以外に、卒論・ジャーナル・YPU 活動などたくさんの課題があった。自分には無理だと思った時もあったが、何とか形にすることが出来てよかった。1 年を通し、計画を実行に移すことの大切さを改めて感じた。これからは自分に出来ることをひとつひとつ大切にしたい。2 年間たくさんのことを教えて下さった林先生、新たな道を歩むユキ、ユリエ、そして 3 年生のみんなといつかまた笑顔で集まれたらいいな。

垣下友希

大学生活最後の年を漢字一字で表すなら、「満」でした。就活に卒論、山口と地元の往復…どれも本当に大変でしたが、全力で取り組んだ分、得るものは大きく、自分を育てる肥やしになりました。4 月からは自分の夢に向かって更に頑張っていきたいです。

畑野友里恵

この一年間を一言でいえば『充実』です。大学生活は 4 年間ありましたが、この一年が一番充実していました。またゼミ生で行動することが多くて、一番交流ができた年だったと思います。私自身の責任感や計画性の無さに痛感した年でもあります。こんな私を最後まで指導して下さいだった林先生、仲良くしてくれたゼミ生のみんな、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佐志原彩華

この一年間学んだことは、みんなで協力して 1 つの活動を仕上げていくことの難しさです。みんなでミーティングを開いたり、事前に計画したり、割り振って仕事をする。私はリーダーという立場にあって、これらを指示していくことがとても難しかったです。このような大変なこともありますが、ゼミ内での交流が以前より深まっていけることができて本当によかったと思います。これからもゼミ内での交流もさらに深まっていけたらいいなと思っています。

杉野由可子

この 1 年間はあっという間に過ぎて行きました。初めてゼミに入って専門演習、卒業演習、韓国ジャーナルでのインタビュー、ブログ型山口マップの作成など、大変なこともたくさんありましたが、今思えばいい経験になったと思います。大学生活も残り 1 年となつてしまいましたが、来年度も後悔せずに充実した 1 年を過ごしたいと思います。

原田有紀子

この 1 年間、韓国語学研究室でみんなで 1 つの事を作り上げていくことの大変さ、難しさと、やり終えた後の達成感を感じたと同時にその経験から、協力や思いやりなどの大切さを改めて学びました。最後までやりぬくことの大切さも学びました。韓国語と日本語を通して両国の文化を学ぶのはとても楽しく、もっと韓国語を知りたいと思ったと同時に、母国語である日本語ももっと勉強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いました。

森田幸枝

韓国語学研究室に入って後悔はしていません。前期のゼミ活動では、韓国に関する事情を知ることができただけではなく、プレゼンの力も伸びたと思います。後期のゼミ活動では、韓国語の翻訳が主だったのですが、自身の日本語能力の低さにも気付かされました。このゼミ活動を通して韓国語学習への意力が高まったと同時に、YPU という活動を通して、仲間意識も強まりました。

山田雄太

私はこのゼミで色々な体験をした。特に、情報誌を発行するために行ったインタビュー取材は、自分にとってとても良い経験になったのではないかなと思う。今思い返せば、研究室の一員として責任感を持てたからこそ、精一杯取り組むことができ、インタビュー完成にたどり着けたのだと感じる。このように「責任感」を感じることでできた事柄や、そのチャンスを与えてくれた研究室に感謝する。これからも研究室の活動を通し自らを成長させていきたいと思う。

「どのように学ぶかを学ぶのがすべてである（ジョン・ネスビッツ）」。

本年度は、ゼミ活動として「韓国ジャーナル」の 2 回発行をはじめ、YPUアドベンチャー採択課題「ぶちええじゃんブログ型山口マップ韓国語版」の作成など、盛りたくさん行ってきました。それぞれの活動のなかで、みなさんはいろいろなことを考え、学んだでしょう。しかし、それをその瞬間だけの学びとして心にとどめておくのではなく、次への行動に繋げることがより大切であることを忘れないでほしいです。

行動する勇気を。。

林 炫情